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한국투자증권
함께 가는 금융 친구
I'M YOU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6년 7월 1일 금요일 제1431호

"고의로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하면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벌"

금감원, 삼성생명 경영진 정조준

미지급 건수 많고 생보업계 1위 상징성 높아 '업계 압박' 효과 커 책임규명 위해 고강도 검사 진행

금융감독원의 칼끝이 삼성생명 경영진을 정조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 위법성과 고의성이 판명될 경우 최고경영진까지 엄벌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관련기사 6면

1일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진의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삼성·교보생명 검사에 들어갔다. 특히 교보생명보다 삼성생명 검사가 이목을 끄는 것은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수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생보업계 1위'란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금감원이 발표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삼성생명이 877건(607억 원)으로, 미지급 금액(815억 원)이 가장 많았던 ING생명(561건)보다 오히려 건수가 많았다.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재해사망특약 보유 건수도 삼성생명이 95만여 건으로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검사의 최대 관건은 '고의성' 여부다. 삼성생명이 의도적으로 자살보험금 규모를 축소하고, 지연 이자를 누락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최고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최대 '해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2014년 9월,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ING생명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시행한 후 생보사를 대상으로 자살보험금 지급 협조를 지도했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대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지급을 지연했다.

2014년 9월 당시 삼성생명 주요 임원진은 김창수 사장, 문태곤 상근감사위원(감사원 제2사무차장 출신), 최신형 부사장(경영지원실장), 곽홍주 부사장(CPC전략실장)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현재는 김창수 사장, 이도승 상근감사위원(감사원 감사교육원장 출신), 최신형 부사장(CPC전략실장), 김대환 전무(경영지원실장) 등이 주요 임원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금감원은 김 사장의 재임 기간이 자살보험금 이슈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하는 금감원은 삼성·교보생명뿐만 아니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모든 생보사를 위법 상태로 간주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교보생명의 지급 여부 결정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며 "이번 금감원 검사도 그 영향력을 고려해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신영자 檢 출석… 롯데 오너家 처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ijjak@



최길선 현대重 회장 사우디 석유장관 왜 만날까

현지 합작 조선소 프로젝트 논의 사우디 발주선박 우선 수주권 등 성과 도출땐 경영정상화에 큰 힘

현대중공업 최고 경영진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추진 중인 합작 조선소 건립과 관련해 사우디 에너지산업광물부 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1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최길선〈사진〉 회장, 권오갑 사장, 정기선 총괄부문장(전무) 등 현대중공업 최고 경영진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한국을 방문한 사우디의 칼리드 알 팔리 신임 에너지산업광물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세계 원유 생산량의 15%를 공급하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와 진행 중인 사우디 현지 합작 조선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1월 아람코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양해각서(MOU)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에는 아람코, 사우디 국영 해운사인 바리,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람프렐에너지 등과 사우디 합작 조선소 건설을 위한 협력개발협약(JDA)을 체결했다.

합작 조선소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사우디 내에서 발주되는 선박에 대한 수주 우선권을 확보하고, 조선소 운영 참여 등을 통해 다양한 부가수익 창출 기회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의 사업 범위를 중동지역으로 확대하고, 생산기지 확보도 가능해진다. 또 경영난의 직격탄이 된 해양플랜트의 리스크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합작 조선소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면 구조조정 중인 현대중공업의 경영정상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담에는 아람코의 나빌 알 자미아 부사장과 야시르 머티 부사장도 참석한다. 알 팔리 장관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아람코 회장 겸 CEO를 맡기도 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브렉시트 1주일… 돈 몰리는 신흥시장

초저금리 장기화 선진국 자금 빼 고수익 기대 브라질·中 등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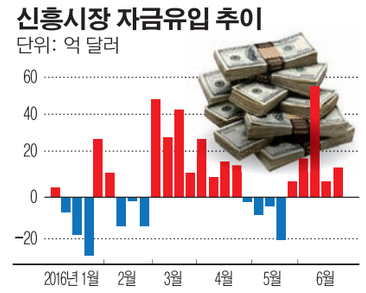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된 지 일주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미 유럽에서 자금을 빼 이머징 마켓에 베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브렉시트발 악재로 초저금리 시대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자 투자자들이 고수익을 좇아 신흥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2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통화인 랜드와 폴란드 즐로티, 멕시코 페소 등 이머징 마켓 통화는 브렉시트 결정 직후 이틀간 5%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이들 통화는 3거래일간 2% 이상 반등했다. 특히 브라질 헤알의 경우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4% 올랐으며 브라질 증시도 브렉시트 직후 기록한 최저점에서 이날까지 4.6% 올랐다. 중국 상하이증시 역시 저점에서 1% 올랐다.

WSJ는 이 같은 신흥시장의 랠리는 글로벌 자금의 이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렉시트 여파로 불확실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금이 안전자산이 아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이머징 마켓으로 몰리는 이유는 '고수익'이라는 매력 때문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신흥시장 자금유입 추이

단위: 억 달러



공매도 실종사건

공시 의무화 시행 여파로 거래비중 연중 최저치 '뚝'

공매도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매도 거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 제도 시행 하루 전에는 공매도 거래 비중이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국내 증시 전체 거래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집계됐다. 지난달 29일 공매도 비중은 2.56%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중 최고치였던 5월 13일의 6.84%와 비교하면 4%포인트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공매도 거래 비중이 급감한 것은 전날부터 시행된 공매도 공시제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새 제도에 따르면 개인 또는 법인이 특정 종목 주식 발행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하면 금감원에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 시한은 보고 의무 발생 시점으로부터 사흘 이내다.

공매도는 특정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주식을 빌린 뒤 팔고,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되사서 갚아 시세 차익을 챙기는 투자기법이다.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활용해 왔으나 개인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채질한다는 이유로 공매도 금지를 주장해 왔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들의 불만이 높은 만큼 기관들은 공매도 전략을 적극적으로 펴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외국인도 상황은 그리 편하지 않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시에는 공매도 관련 내용은 물론 투자자의 인적사항도 포함된다"며 "아직 국내 투자주체의 공매도는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이번 공매도 공시제도 시행으로 기관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정유경 사장 ▶9



최태원 회장 ▶14



연재소설 제2화 첫회 ▶15
그녀는 분식회계 중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부모님은 필요한 만큼 마음 편히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아이는 엄마 아빠와 충분한 시간을 함께하는"

맞춤형 보육이 7월부터 시작됩니다.

맞춤형 보육 문의
129 또는 1644-3558
www.goodchildcare.kr

1. 맞춤형 보육으로 아이와 부모에게 충분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맞벌이 가구 등에는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 맞벌이가 아니어도 취업준비, 임신, 다자녀, 조손, 한부모, 다문화, 장애·질병 등의 경우에는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종일반 이용기준을 운영하여 부모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가정 내 양육이 가능한 부모님들은 현재 이용시간(6시간23분)과 유사하게 이용(약 6시간 45분)하면서, 더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2. 정부는 6월 16일 '여·야·정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 종일반 다자녀 기준을 당초 3자녀 가구에서 어린이집 0세반·1세반(36개월)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맞춤반 기본보육료를 2015년 대비 6% 인상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에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비정규직 등 증빙이 쉽지 않은 분들이 종일반 보육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자기기술서 확인절차 간소화 등 증빙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3. 맞춤반 보육료가 20% 감액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 맞춤반 보육료는 기본보육료가 '15년 대비 6% 인상되고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 100% 맞춤반으로 편성된다 해도 작년에 비해 3.8% 증가되는 것입니다.
  ※ 어린이집의 수입은 맞춤반이 100%인 경우의 3.8%에서 종일반이 100%인 경우의 6% 사이에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춤형 보육 도입시 보육료 변화 (단위 : 원)

연령	'15년 보육료	'16년 맞춤형 보육 도입시	
		종일반	맞춤반
0세반	778,000	825,000	799,000
1세반	537,000	569,000	553,000
2세반	413,000	438,000	435,000

* 맞춤반은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6만원) 포함금액

4.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통해 무상보육을 더욱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 보육료 6% 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 720억원 증액으로 처우개선비 인상, 보조교사·대체교사 확충 등 교사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보육 질 제고를 위한 시간이 늘어납니다.
-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반영한 표준보육비용 연구를 실시하는 등 맞춤형 보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질적인 성장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 일부 단체가 '보육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하고 학부모에게 나머지 4시간 보육료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무상보육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와 중장기 검토 없이 수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 시행과 함께,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보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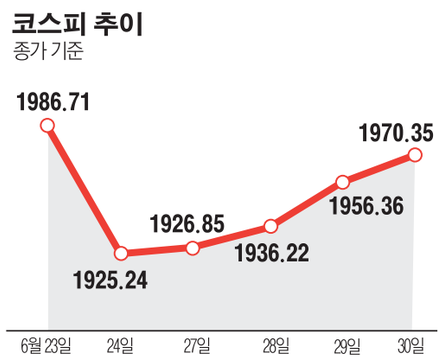
코스피, 하락분 73% 나흘새 회복… 외환시장은 아직 불안

브렉시트 일주일, 대혼란은 없었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일주일, 우려하던 우리 금융시장의 '대혼란'은 없었다. 코스피는 충격을 빠르게 회복하며 진정 국면에 들어섰고, 대외 변수도 안정을 되찾고 있다. 다만 원화가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외환시장은 아직 불안한 모습이다.

◇코스피, 4거래일 만에 1970선 회복=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99포인트(0.72%) 상승한 1970.35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달 24일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개표 결과가 '탈퇴'로 확정되면서 단숨에 61.47포인트(3.09%) 폭락한 코스피는 이후 4거래일 연속 반등하며 하락분을 73% 회복했다. 특히 브렉시트 가결 이후 대규모 자금 이탈을 보이던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 같은 코스피의 충격 완화는 브렉시트가 글로벌 경제위기 대신 정치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과 각국이 사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발 빠른 대응에 나선 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정책공조로 과거 유럽 재정위기 때와 달리 단기적 자금경색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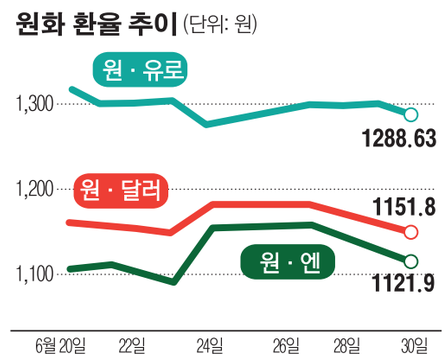


빠르게 안정 찾는 코스피

외국인투자자 순매수 전환 상승 견인
4거래일 연속 반등하며 1970선 회복
글로벌 부양책 따라 2000선 탈환 기대감

우리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10조 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한 총 20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에 나선 점도 증시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스피는 향후 주요국의 추가 부양책 발표에 따라 다시 2000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구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첫 주 코스피 밴드로 1950~2000선을 제시하며 "글로벌 부양책과 2분기 실적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시장은 재차 2000선 안착 시도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 불안한 외환시장

브렉시트 이후 파운드·유로화 약세 지속
원·달러 환율 1150원대 급등세 일단 진정
"주요국 통화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

◇파운드화 약세 여전…원화도 영향= 브렉시트 이후 파운드화와 유로화의 약세가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파운드화는 전날보다 2% 하락한 파운드당 1.3235달러에서 마감했다. 달러화 대비 유로화는 소폭 하락했지만 추세적 약세를 극복한 것은 아니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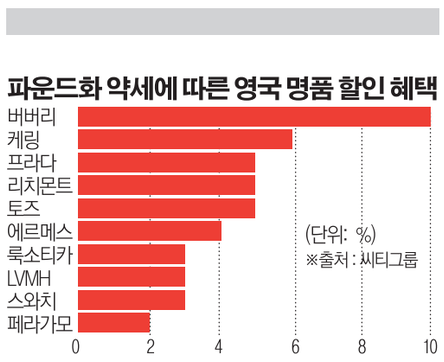
이처럼 달러와 견줘 주요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 가치 하락도 진정되지 않은 것으로 시장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8.4원 떨어진 1151.8원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브렉시트 투표 전날인 지난달 23일까지만 해도 영국의 유럽연합(EU) 잔류 여론이 높은 것으로 보고 나흘 연속 하락하며 1150.2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브렉시트 이후 원·달러 환율 급등세를 모두 되돌린 것이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1150원대선에서 머물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는 "파운드와 달러의 저가 매수세로 원·달러 환율은 115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원화 약세 추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전망도 나온다. 영국의 EU 탈퇴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언제든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뿐 아니라 외환당국도 언제든 실탄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시중은행 외환딜러는 "6월 말에는 수출업체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킨 측면도 있었다"며 "이달 초에는 원화가 이전보다 주요국 통화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혁·유혜은 기자 freshphase@



영국 명품 '즐거운 비명'

파운드화 하락에 5~20% 할인 효과
중국인 등 쇼핑관광 크게 늘어날 듯

영국 명품시장이 중국과 중동에서 밀려드는 관광객 덕분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 여파로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외국인들이 영국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싼값에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C트립닷컴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이 회사의 여행 예약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중국인들의 영국 여행에 대한 검색이 급증했다. 중국어 뉴스 사이트 피닉스는 런던에 가는 여행객에 "Buy, Buy, Buy"라며 쇼핑을 자극하고 있다.

브리티시에어웨이 모기업인 IAG는 파운드화 약세로 영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여행 정보 사이트 비지트브리튼은 집계 결과, 작년에 영국을 찾은 관광객은 27만 명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인들은 명품 시장의 최대 고객이다. 파운드화 약세는 중국인이 가장 큰 고객인 명품 업계에는 단비나 다름없다.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 H. 모저 앤 씨의 에두아르드 메일란 최고경영자(CEO)는 "파운드화 약세로 구매력이 늘어나 중국과 중동의 관광객들이 영국에 밀려들어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들은 5~20%의 할인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버버리그룹과 멀버리그룹 등 영국 명품 업계는 명품 수요 침체와 유럽에서의 테러 공격으로 다소 침체된 상태였다. 그러나 브렉시트 결정으로 인한 파운드화 약세, 이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업계에는 모처럼 화색이 돌고 있다. 영국 고급 백화점인 해러즈의 마이클 워드 전무는 "파운드화 가치 하락은 런던 관광객 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의 세계 6위 명품 시장으로 그 규모는 155억 유로(약 20조 원)에 이른다.

배수경 기자 sue6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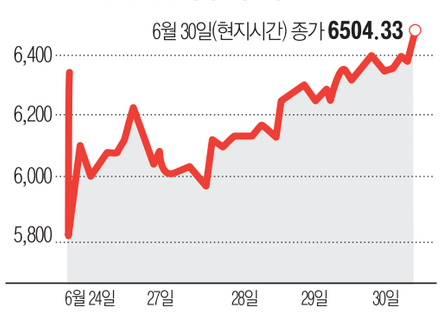
"안심하긴 이르다" 곳곳서 경고 메시지

IMF "브렉시트發 불확실성,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위험 요인"
조지 소로스 "금융위기 다시 올 수도… 디플레 심화 가능성"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공포로 요동쳤던 세계 금융시장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에도 시장에선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영국이 EU와 결별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데다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까지 영국 등 유럽증시는 반등세를 이어가며 브렉시트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뉴욕 다우지수도 브렉시트 투표 후 낙폭의 60%가량을 만회했고, 아시아증시도 이번 주는 거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외환시장에서는 한때 달러당 3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던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다시 반등했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치솟았던 엔화 가치도 달러에 대해 한풀 꺾인 모습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회복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브렉시트로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런 불안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브렉시트로 생긴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에 있어서 핵심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 게리 라이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는 아마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일 수 있는 불확실성을 목격하고 있다"며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했고, 특히 영국에서 짧은 기간 안에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유럽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파운드화 폭락을 경고한 투자의 대가 조지 소로스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회장도 같은 날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이날 브뤼셀 유럽 의회에서 "2007~2008년 발발한 세계적 금융위기와 유사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소로스는 "슬로 모션으로 진행되던 현상을 영국의 EU 탈퇴가 가속화시켰다"며 "이미 확산된 디플레이션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영국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 전 소로스는 브렉시트로 결정되면 파운드는 달러 대비 20% 넘게 폭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소로스는 "영국의 결정은 가정이던 것을 현실로 만들었다. 탈퇴에 투표한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어두운 미래를 깨닫기 시작했다"며 "탈퇴파 선봉에 섰던 이들도 탈퇴의 장점에 대해 했던 말들을 철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날 EU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했다. 영국이 EU를 탈퇴함에 따라 EU 재정의 유연성이 부족해지고 정치적 결속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브렉시트가 3년 동안 유로존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3~0.5%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브렉시트라는 전대미문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코넥스 시총 11배 '뜀박질'…사모증자 쏠림 자금조달은 '걸음마'

〈5조1722억원·6월24일 기준〉

오늘 개장 3주년

개장 첫해보다 상장기업 124개 6배↑
日평균거래액 28억1천만원 7배 증가
코스닥이전 기업 17개 징검다리 역할
작년 25개사 903억원 조달규모 작고
사모증자 30건·CB 5건 방식도 편중
0.1% 못미치는 주식회전율도 과제로

창업 초기단계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이 개장 3주년을 맞았다.

지난 3년간 코넥스시장은 덩치가 몰라볼 만큼 커졌다. 지난 2013년 7월 출범 당시 50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시가총액은 이제 5조 원을 훌쩍 넘기며 11배 이상 증가했다.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에 이은 '제3의 주식시장'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다.

다만 코넥스 시장이 출범 후 3년간 종목·시총 등에서 양적으로 성장했음에도 아직은 시장으로서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모험자본의 중간회수 시장 등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시가총액 '괄목상대' … 4689억 원서 출발해 5조 원 넘겨 = 3년간 코넥스는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코넥스 상장기업은 124곳으로 시가총액이 5조1722억 원에 달했다. 이는 개장일인 2013년 7월 1일 대비 각각 5.9배, 11배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정보통신(IT)과 바이오 업종 기업이 절반을 넘는 66개사(53%)로 집계돼 중소 기술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코넥스의 개설 취지도 잘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거래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등 시장의 유동성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28억1000만 원으로 개장 첫해인 2013년(3억9000만 원) 대비 7.2배로 증가했다. 하루 거래량은 20만2000주로 3년 전(6만1000주)의 3.3배 수준이 됐다.

개인투자자들의 참여가 시장활성화를 견인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올해 거래대금은 5385억 원으로 전체(6574억 원)의 82%를 차지했다. 시장 초기와 비교하면 약 10.7배 증가한 수치다. 기관과 기타법인의 올해 거래대금은 각각 578억 원(9%)과 611억 원(9%)에 그쳤다.

코스닥시장 입성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도 톡톡히 수행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에 성공한 업체 수는 최근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을 통해 진입한 닉스테크를 포함해 총 17개에 달한다. 올 하반기에는 바이오리더스와 엘앤케이바이오메드, 현성바이탈, 이엔드디, 솔트웍스 등 10개 안팎의 업체들이 이전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의 공모가 대비 주가 상승률은 평균 41.6%로 높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시장 제도의 정비작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출범 첫해 677건에 불과했던 공시 건수는 이듬해 1485건, 지난해 2021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438건을 기록 중이다. 기업설명회 역시 출범 첫해 53건에서 이듬해 120건, 지난해 15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4곳 중 1곳만 자금조달… 거래 회전율 0.1%도 안 돼 = 그러나 시장 안팎에서는 코넥스 시장이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치상 코넥스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첫해 136억 원에서 2014년 679억 원, 2015년 903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576억 원을 조달했다. 시장 개설 이후 현재까지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된 금액은 총 2294억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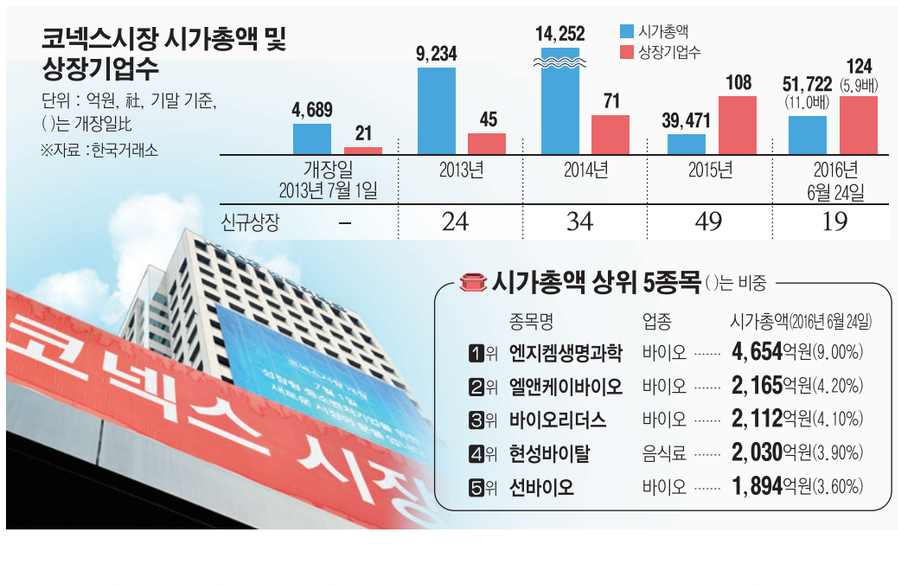
하지만 내실을 보면 코넥스 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규모와 방법 등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코넥스 시장에서 연간 25개사가 약 903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았다. 자금조달 방법은 사모증자 30건, 전환사채 5건, 일반공모 1건 등으로 사모증자에 편중됐다. 이 기간 코스닥 상장기업의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38%를 기록했다.

주식회전율도 지나치게 낮다는 평가다. 지난해 코넥스 시장 일평균 시가총액 매매회전율과 일평균 상장주식 회전율은 각각 0.06%, 0.04%로 코스닥 시장(각각 1.90%, 2.56%)을 크게 밑돌았다. 이는 발행 주식수 중 유통되는 주식의 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유통주식 비율이 낮은 코스닥 소형주와 비교해도 코넥스 시장 종목의 상장주식 회전율은 크게 낮다. 이같이 부진한 거래는 모험자본 중간 회수처로서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코넥스 시장이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자금회수 시장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회전율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량 증가로 가격이 효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장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이오 관련주 등 일부 종목으로의 쏠림 현상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 차원에서도 코넥스시장의 유동성 확충과 시장의 쏠림현상 완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봐야 한다"며 "여전히 현실적인 규제들이 코넥스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일평균 거래대금 및 거래량 단위 : 억원, 천주, 기말 기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6.24)	'13년比
일평균거래대금	3.9	3.9	18.2	18.2	7.2배
일평균거래량	61	49	152	152	90배

투자자별 거래대금·및 비중 변화 단위 : 억원, %

	2013년(7.1~, 6개월간)		16년(~6.24, 6개월간)		2013년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기 관	411	42	578	9	1.4배	△33%p
개 인	503	52	5,385	82	10.7배	30%p
기타법인 등	60	6	611	9	10.2배	3%p
합 계	974	100	6,574	100	6.7배	–

업종별 현황

업종	기업수	비중(%)	업종	기업수	비중(%)
IT	39사	31%	기계·운송	9사	7%
바이오	27사	22%	기타	31사	25%
금속·화학	18사	15%	합 계	124사	100%

코넥스 활성화 어떻게…전문가 견해

"상장사·투자자 '정보 비대칭' 문제 사업보고서 발행 분기단위 바람직"

상장주식 낮은 회전율, 부진한 거래 방증
투자자 정보공유…효율적 가격 결정 중요

'세 돌'을 맞은 코넥스 시장이 코스피와 코스닥에 이은 '제3의 주식시장'으로 온전히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다. 출범 당시 5000억 원에 불과했던 코넥스 시가총액은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일평균 거래량도 3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모험자본의 중간회수 시장 등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코넥스 시장에서 연간 25개사가 약 903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6개사가 136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그러나 사모증자 30건, 전환사채 5건, 일반공모 1건 등 자금조달 방법 대부분이 사모증자로 이뤄진 부분은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또 거래량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발행 주식수 중 유통되는 주식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특히 유통주식 비율이 낮은 코스닥 소형주와 비교해도 코넥스 시장 종목의 상장주식 회전율이 크게 낮다는 점은 여전히 시장 거래 자체가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같이 부진한 거래는 모험자본 중간 회수처로서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코넥스 시장이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자금회수 시장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거래가 활발해 가격이 효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김군호 코넥스협회장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넥스 상장 시 의무 분산요건을 강화하고, 지정자문인의 역할을 확대하되 수수료 개선을 통해 충분한 성과보수를 주는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군호 코넥스협회장도 거래활성화를 위해 투자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업보고서 양식을 간소하게 해서라도 1년에 4회, 분기 보고서가 나오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꼭 증권사가 리포트를 내지 않더라도 사업보고서를 분기별로 내면 정보 공유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투자자 전용 코넥스 전용펀드 출범도 좋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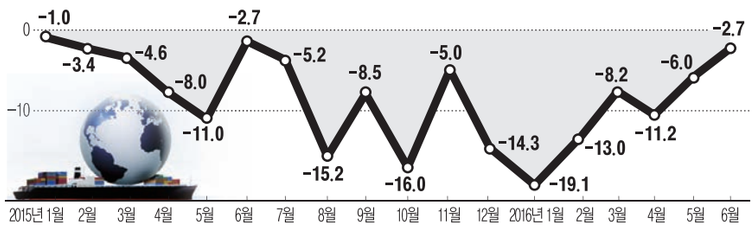
낙폭 줄였지만 감소세 이어가는 수출

지난달 453억 달러 기록
2.7%↓… 1년만에 감소폭 최저
18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
조업일수 적었지만 선박 등 호조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6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작은 낙폭을 보였다. 또 올 들어 처음으로 두 달 연속 한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며 확연한 개선세를 나타냈다. 1년 반 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이 드디어 반등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냐는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마이너스 성장에 마침표를 찍는 데는 실패해 월간 기준 최장 수출 감소 기록은 18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수출액이 45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2.7% 이후 최소 감소율이다. 우리나라 월 수출은 올해 1월 6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인 -19.1%를 기록한 뒤 2월 -13.0%로 감소폭을 줄여가다 3월 4개월 만에 -8.2%로 한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며 회복세를 탔다. 그러다 4월 다시 두 자릿수 감소율(-11.2%)로 악화됐고 5월 다시 한 자릿수(-6.0%)로 개선되는 등 최근 눈에 띄게 낙폭을 줄이고 있는 추세다.

수출 증감률 및 추이 (단위: %)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6월 수출입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2015년 6월	2015년 1~6월	2016년 5월	2016년 6월 잠정치	2016년 1~6월 잠정치
수 출	46,555(△2.7)	268,504(△5.2)	39,793(△6.0)	45,301(△2.7)	241,754(△10.0)
수 입	36,598(△13.8)	222,264(△15.6)	32,813(△9.0)	33,657(△8.0)	192,265(△13.5)
무역수지	9,957	46,240	6,980	11,643	49,490

전체 수출은 줄었지만 6월 일평균 수출액은 19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원화 기준 수출은 전년보다 2.4% 늘어나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업일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일 줄었음에도 선박과 컴퓨터 등의 호조로 6월 수출 감소폭이 큰 폭으로 줄었다"면서 "특히 원화 기준 수출액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들의 수출 채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6월 수출은 낙폭은 크게 줄였지만 증가세로 반등하지는 못해 1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월간 수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장 기간이다.

국제유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 후 원화 평가절하가 예상되면서 이 같은 개선세가 이어져 하반기에는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호무역주의 강세 속 환율전쟁에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정유, 등 주력산업이 과거에 비해 크게 활력을 잃었다"면서 "하반기에는 기저효과 영향이 커 낙관하기만은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5월 경상수지는 103.6억 달러 흑자… 51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가 51개월 연속 이어졌다. 흑자 규모도 역대 5번째 기록이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5월 국제수지 잠정' 자료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103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2년 3월 이후 이어온 흑자 기록을 이어간 것으로 흑자규모도 역대 5번째다.

수출은 424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 줄었고, 선적운임 포함(FOB) 기준 수입도 316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했다. 수출 감소폭은 지난해 6월 2.2% 감소 이후 가장 적은 감소폭이다. 본원소득수지는 9억1000만 달러로 지난 분기 마이너스 40억7000만 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황상필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12월 결산법인의 본원소득수지가 4월에 집중되며 전달 흑자규모가 많이 줄었었다"며 "하지만 5월 본원소득수지가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경상수지도 100억 달러가 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통관 기준으로는 수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한 397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디스플레이 패널이 전년 동기 대비 34.8% 떨어졌고, 정보통신기기도 11.8% 하락했다. 수입의 경우 전년 동기보다 9.0% 감소한 328억1000만 달러를 보였다. 원자재 수입은 19.6% 감소한 반면, 소비재 및 자본재는 각각 6.9%, 1.4% 증가했다.

서비스수지의 적자규모는 건설수지, 기타사업서비스수지 등의 개선으로 전월 16억2000만 달러에서 11억4000만 달러로 축소됐다.

남주현 기자 jooh@

대기업 10명 중 4명 비정규직
규모 클수록 간접고용 많아

대기업 근로자 40%가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중 처우가 열악한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이 더 높았다. 고용 안정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 되레 고용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454개 대기업의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473만7000명 중 직접고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는 380만5000명(80.3%), 사업주에 소속되지 않은 간접고용 근로자는 93만1000명(19.7%)이었다.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하는 제도다.

대기업의 직접고용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는 290만5000명(76.3%),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90만 명(23.7%)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 대기업 근로자 중 간접고용과 기간제 근로자를 합친 비정규직 근로자는 183만1000명(38.7%)에 달했다.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인 셈이다.

더욱이 기업규모가 클수록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비율은 더 높았다. 근로자 500인 미만 기업의 간접고용 비율은 14.0%였지만, 1000인 이상 5000인 미만 기업은 18.4%, 5000인 이상 기업은 26.6%에 달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44.5%), 제조업(24.4%), 운수업(22.7%), 도·소매업(22.6%)의 간접고용 비율이 높았다. 제조업 내에서는 조선(66.5%), 철강금속(38.6%) 업종의 간접고용 비율이 매우 높았다. 직접고용 중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은 산업은 부동산·임대업(65.1%), 건설업(57.4%) 등이었다.

전민정 기자 puri21@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회의



1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소비자물가 0.8% 상승… 두달 연속 0%대

내년 세종시·용인시 조사 추가

6월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0%대를 유지했다.

통계청은 1일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통해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8%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월 대비와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지난달과 같았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1.7% 각각 상승했다. 근원물가는 전월에 비해 0.1%포인트 올랐다.

생활물가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0.1% 각각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식품은 0.6% 올랐고 식품 이외는 0.2% 하락했다. 전월세 포함한 생활물가는 0.4% 상승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동향



신선식품은 전월 대비 6.5%, 전년 동월 대비 1.7% 각각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 신선어개는 5.2% 상승한 반면 신선채소는 8.5%, 신선과실은 5.0% 각각 하락했다. 마늘, 생강 같은 기타신선식품은 49.3%나 상승했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상품은 전월 대비 변동 없고 전년 동월 대비 1.1% 하락했다. 농축수산물은 0.7% , 공업제품은 0.4%, 전기·수도·가스는 6.5% 각각 하락했다. 공업제품 중 석유류는 9.6% 하락했다.

통계청은 이날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2015년 기준으로 개편해 올해 말에 공표할 계획도 밝혔다.

조사 품목 수가 462개로 2010년 기준보다 19개 감소한다.

소비자물가지수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지역도 바뀐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인구가 증가한 용인시가 추가된다. 반면 인구가 감소한 보령시와 남원시가 아산시와 익산시로 대체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통합해 제주도 단위로 작성키로 했다.

곽도흔 기자 sogood@

'맞춤형 보육' 오늘부터 본격 시행

36개월 미만 두자녀 종일반 가능

다자녀 기준 3명서 2명 완화
맞춤반 기본 보육료 6% 인상

어린이집을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눈 맞춤형 보육 제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종일반 이용 다자녀 조건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했다. 두 자녀가 0세반(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 1세반(2014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에 해당되면 종일반에 보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린 연년생이나 쌍둥이를 둔 가정의 보육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1일 복지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자녀 두 명 모두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했다면 홑벌이 가정도 이달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맞춤반의 기본 보육료를 2015년 대비 6% 인상하기로 했다. 맞춤반의 기본 보육료를 삭감하지 않고 종일반 보육료와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의미다. 보육료는 '부모 보육료'와'기본 보육료'로 구성돼 있는데 시설 운영비적 성격을 갖는 기본 보육료를 인상하고, 인상분은 교사 처우 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기본 보육료 조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2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종일반에 다닐 수 있는 홑벌이 가정의 두 자녀 기준을 확대했다"며"이를 통해 종일반 편성 비율은 정부가 예상한 비율인 80%에 다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개편안에 어린이집 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맞춤형 보육을 둘러싼 갈등은 시행 하루를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모습이다. 하지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1만4000개 소속)는 시행에 반대해 집단 행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은 0~2세 영아를 둔 학부모의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한다. 맞벌이를 비롯해 장시간 보육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종일반 이용 자격이 주어진다. 전업주부 자녀는 맞춤반으로 편성돼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하루 약 7시간(6시간 45분)으로 제한된다. 맞춤반 학부모는 사정이 있을 때 보육 바우처를 활용해 자녀를 규정 시간 이상 맡길 수 있다.

박엘리 기자 ellee@

〈2020년까지〉

친환경차 150만대 보급에 3조 투자

미세먼지 대책 총 5조 투입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 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 원 등 약 5조 원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는 천연가스(CNG) 버스 구입비 지원을 600만 원에서 내년 1200만 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제2 공용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150만 대, 전기차 충전기 3000기, 수소차 충전소 100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부처간 소요 예산을 협의 중이다. 내년부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CNG버스 차량 구입 업체에 대당 1200만 원을 지원하고, CNG하이브리드 버스 구입비 지원도 현재 3000만 원 수준에서 내년 35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유세 인상 등 논란을 불러온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은 7월부터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연구에 착수하고 2017년 6월 공동연구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의 구체적 시행방안은 7월 중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이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또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대당 100만 원 한도)한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 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키로 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공정위, 기업 과징금 감면 40% 이내로

오늘의 법안

김동철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과징금을 감면해 법 위반 기업을 감싸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과징금 산정 시 40% 이상을 감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동철 의원(국민의당·광주 광산갑)은 지난 30일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따라야 하며 40% 이내에서만 가산 또는 감액해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 감면 결정의 투명성을 위해 회의록 작성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 적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추상적·포괄적 감면기준을 고시에 규정하고 예외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해 기준 과징금을 대폭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최소한 과징금 가산 및 감면 한도를 법률에 정함으로써 공정위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감면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5년 7월 말까지 147개 사건, 695개 사업자에 대해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5조2417억 원을 3차례 조정과정을 거쳐 절반 이상인 2조9195억 원을 감면했다.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으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고 나서 2차 조정(행위자 요소에 의한 가중·감경)에서 50%까지 감면할 수 있고, 3차 조정(부과과징금 단계)에서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2차 조정된 과징금의 50%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이광호 기자 khlee@

대우조선 비리 수사 남상태 다음 타깃은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검찰, 산업은행·정관계 인사로 수사확대
남 전 사장 재임당시 행장 민유성·강만수
고재호 전 사장때 회장 홍기택도 가능성
개인비리 넘어 정권비리 드러날지 관심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대외 홍보대행사를 통한 연임로비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향후 수사의 칼날이 당시 산업은행 수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남 전 사장과 재임 기간이 겹치는 민유성·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돌고 있다.

1일 사정기관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이 검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단순 개인비리를 넘어 정권비리의 실체까지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김갑중 전 대우조선 부사장(최고재무책임자)이 구속되는 등 수사 초기부터 비리의 핵심 인물에 대한 혐의 입증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남 전 사장은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연임에 성공한 만큼, 검찰은 산업은행과 정·관계 인사들이 연임에 끼친 영향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006년 3월 취임한 남 전 사장은 2009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이듬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개입된 연임 로비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남 전 사장이 대우조선 협력업체인 임천공업에 지급한 선급금 중 수십억 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천 회장 등 MB정권 실세들에게 연임 로비를 펼쳤다는 게 골자였다.

이 기간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민유성 전 행장이,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강만수 전 행장이, 2013년부터 2016년 초까지는 홍기택 전 회장이 이끌어왔다. 이 중 남 전 사장과 재임 기간이 겹치는 민유성·강만수 전 행장은 대표적인 MB맨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남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기관 물갈이가 한창이던 2009년에 이례적으로 연임에 성공하면서 비자금 조성과 로비 의혹에 휩싸였다.

고재호 전 사장이 재임할 당시 산업은행장을 지냈던 홍기택 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 역시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브레인 역할을 한 친박인사다. 그러나 최근 기업 구조조정 과정을 놓고 다른 친박인사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대우조선 관리 부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철우 기자 acw@

남상태 횡령혐의 추가… 회사돈 20억 해외로 빼돌려

2008년 협력사 지분 취득후 배당금 챙겨

대우조선해양 부실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상태(66) 전 사장의 20억 원대 회사 자금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남 전 사장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배임 수재 혐의 외에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2008년 대우조선해양 지사에서 형성된 부외자금 50만 달러(5억여 원)를 협력업체 해외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남 전 사장은 이렇게 취득한 지분을 통해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은 20억여 원 이상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남 전 사장의 회계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남 전 사장의 후임인 고재호 전 사장 재임 당시 분식회계 규모를 5조 원 정도로 파악한 상태다. 고 전 사장의 재직 시절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일한 김 모 씨는 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의 재임 시절 분식회계 규모를 확인한 뒤 부실대출 등 사기 혐의와 성과급 배분 등 배임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백화점 여름세일 시작



주요 백화점이 일제히 여름 정기세일에 들어간 지난달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이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번 정기세일은 롯데백화점이 24일까지, 신세계·현대·갤러리아·AK 백화점은 17일까지며 행사기간 다양한 경품증정 행사도 진행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백화점 갑질 개선… 입점업체 수수료 내린다

40%→30%대로… 계약기간도 2년이상으로

백화점들이 현재 40%가 넘는 입점 업체들의 판매수수료를 30%대로 낮추기로 했다. 또 입점 업체들의 매장 계약 기간을 1년 안팎에서 최소 2년 이상으로 늘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주재로 열린 5개 백화점 CEO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5개 백화점(이원준 롯데백화점 대표,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 김영태 현대백화점 대표, 황용득 갤러리아 대표, 정일채 AK백화점) CEO들은 40% 이상의 높은 판매 수수료를 각 회사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인하할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백화점별로 30% 후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혜택을 보는 중소 입점업체는 모두 7106곳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백화점들이 판매수수료 인하 경쟁이 가능토록 관련 입점 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곽도흔 기자 sogood@

페이퍼컴퍼니 이용해 170억 사기대출… 은행 임직원도 연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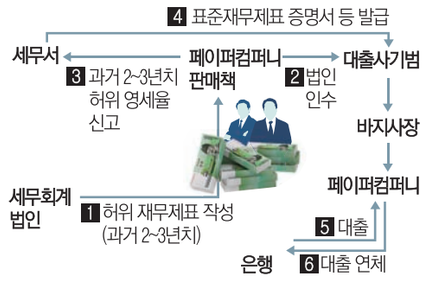
사실상 폐업 10곳 1억여원에 인수
매출 조작 후 돌려막기식 대출 받아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를 통해 허위 매출을 신고해 시중은행으로부터 170억 원대 사기 대출을 한 사기범과 은행 임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 서봉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A사 실소유주 안모(41) 씨 등 2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차모(58) 씨 등 9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사 등 사실상 폐업 상태인 페이퍼컴퍼니 10곳을 인수해 매출을 조작한 뒤 8개 은행으로부터 170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페이퍼컴퍼니 대출사기 사례



이들은 업체를 1억여 원에 인수한 뒤 수년간 매출이 전혀 없었음에도 매출이 있는 것처럼 세무서에 허위 신고하고 명의상 대표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 임직원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지점장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안 씨 등의 업체 대출이 연체되자 새로운 페이퍼컴퍼니를 상대로 대출을 해줘 다른 회사의 대출금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 식 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은행 지점장도 지난해 4월 같은 수법으로 편의를 봐주는 대신에 브로커로부터 2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5명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은행 임직원과 사기범들을 중개하고 2000만~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가 마치 수십억 원의 매출 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허위 신고해 제1금융권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신종 대출사기 수법"이라며 "각종 금융비리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부정선거 의혹' 김병원 농협 회장 17시간 조사

부정선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원(63) 농협중앙회장이 17시간여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1일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전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불러 지난 1월 치러진 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12일 만료된다. 전날 서울 서초동 검찰 청사에 나선 김 회장은 "조사를 잘 받겠다"라는 말만 남기고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좌영길 기자 jyg97@



•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5-3245호(2015.11.2)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www.kbinsure.co.kr
• 고객콜센터 : 1544-0114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평생 희망파트너 KB 손해보험

'벼르는' 금감원… '미운털' 삼성과 또 붙나

삼성생명, 과거 현장검사 앞두고 간부폭언·자료거부 등 조사방해
올해는 자살보험금으로 대치중
금감원과 '7년 악연' 귀추 주목



자살보험금 책임 소재를 놓고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과거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악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삼성생명이 금감원 검사에 '반기'를 든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의원(당시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1월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실시한 과정에서 삼성생명의 일부 간부들이 폭언을 퍼붓고 검사를 방해했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생명 FC마케팅기획파트 소속 직원의 PC를 봉인하고, 삼성생명 측에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무팀 직원들이 검사현장에 나타나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 사내 변호사는 직원들에게 "컴퓨터 파일을 열어주지 말라"고 지시했고, 준법감시파트장 역시 "컴퓨터를 끄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감원 검사팀은 삼성생명 경영관리팀이 주관하는 본부장 회의관련 내부보고서를 요청했으나, 회사 측이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사실 여부 확인 차원에서 PC를 압수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변호사는 그 다음 해 1월 퇴사했다.

이에 금감원은 검사 방해를 이유로 삼성생명 측에 검사를 방해했던 변호사에 대해 "현직이라면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았을 것"이란 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변호사는 금감원장을 상대로 징계조치요구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이뿐만 아니라 2000년대 초반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주의적 기관경고를, 대표이사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리는 등의 문책조치를 단행했다.

2002년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계약전환특약을 부당하게 판매하고, 80만 명이 넘는 고객 신용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은 본사 차원에서 주도한 신용정보 불법 이용을 영업조직에서 발생한 것처럼 허위보고했다.

또한, 당시 검사 기간에 요구자료를 고의로 내지 않아 검사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 금감원이 제재 대상과 범위를 최고경영자까지 확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험업계에선 2년 전의 'KB사태'를 떠올리고 있다.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이 맞붙은 초유의 사태에 금감원은 구두 경고가 통하지 않자 검사인력을 전격 투입해 '표적 검사'를 단행한 바 있다.

당시 임영록 KB지주 전 회장은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국민은행 주전산기를 전환하는 사업을 강행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임 전 회장은 금융당국에 백기를 들고 자진 사퇴했다.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검사 수위를 높인다면 KB사태 때와 같은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대우조선 "요주의"라는데 국책은행만 나홀로 "정상"

4대은행 여신등급 강등에도
"당분간 조정이유 없다" 강조

대다수의 시중은행들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여신 등급을 '정상'에서 '요주의'로 강등한 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우리은행 등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은행은 '정상'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NH농협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은 최근 대우조선에 대한 건전성 등급을 기존 '정상'에서 '요주의'로 낮추는 등 관련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은행들은 빌려준 돈을 떼일 가능성에 따라 여신 건전성을 △정상(충당금 비율 0.85% 이상) △요주의(7~19%) △고정(20~49%) △회수 의문(50~99%) △추정 손실(100%) 등 5단계로 분류한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3월 대우조선 여신을 '요주의'로 강등해 약 1000억 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했고, 신한은행 역시 지난 5월 31일 여신관리협의회를 열어 '정상'으로 분류된 대우조선의 여신을 '요주의'로 한 단계 낮추면서 약 300억 원 규모의 추가 충당금을 쌓았다.

최근 '빅배스'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농협은행도 지난달 30일 대우조선에 대한 여신 등급을 '요주의'로 낮추면서 450억 원 규모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으로 대우조선에 대한 건전성 등급을 '요주의'로 낮추고 충당금 580억 원을 추가로 쌓았다.

조선업황과 수주 상황, 재무구조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요주의'로 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여신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반면 산은·수은 등 국책은행과 정부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우리은행의 경우 대우조선 관련 여신 등급을 내리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주채권은행인 산은이 대우조선 여신 등급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재조정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여신을 낮춘다고 국책은행도 여신 등급을 똑같이 조정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 역시 지난달 23일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우조선 여신 등급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수은 역시 당분간은 대우조선 여신 등급을 하향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수은 관계자는 "대우조선의 경우 연체 등의 특별한 리스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여신 등급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임기만료 앞둔 권선주, 마지막 욕심은 '1조 클럽'

〈IBK기업은행장〉

기업銀 하반기 경영전략 회의
충당금 부담 속 수익성 강조

IBK기업은행이 올 하반기 비용절감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수익성 강화에 주력한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사진〉은 지난달 24일 부서장급 이상 1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6 하반기 경영계획 워크숍'을 열어 "핵심 역량을 발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자"며 이 같은 특명을 내렸다.

특히 이날 경영전략회의는 권 행장이 오는 12월까지 임기 만료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실시한 회의인 만큼 기은 안팎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권 행장이 2014년 부임한 이후 기은은 매년 1조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권 행장 입장에서는 올해 3년 차인 임기 마지막 해에도 순이익 '1조 클럽'에 욕심을 낼 수밖에 없다. 임기 내내 연간 순이익 1조 원을 넘긴 최초의 기업은행장이라는 명예도 가지게 된다.

기업은행은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 377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출발은 좋았지만 조선·해운 업종 등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으로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다.

권 행장이 하반기 경영전략 방향 1순위로 수익성을 꼽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권 행장은 이날 경영전략회의에서 △수익성 강화 △철저한 건전성 관리 △촘촘한 비용 관리 △연계상품 출시 △성과연봉제 정착 등 5대 과제를 주문했다.

권 행장은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비용절감 방안과 조직개편 논의 등에 대해 다소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IBK의 미래를 위해 모두 합심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행장은 초저금리 시대 전통적인 영업방식으로 수익성을 높이기 어려운 만큼 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적극적인 내실경영을 당부했다.

권 행장은 "자본예산 중 약 40%를 차지하는 정보기술(IT) 관련 예산만 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도입하기보다 기존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비용 효율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행장이 강조한 경영전략은 오는 22일 전국 지점별로 실시되는 '2016 하반기 전국영업점장 회의'에서 공유될 예정이다.

장효진 기자 js62@



KB 품에 안긴 현대證, 첫 고객은 윤종규 회장

은행연계계좌 '에이블 스타' 출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현대증권의 '에이블스타(able star)' 은행 연계계좌의 첫 번째 고객으로 가입했다. '에이블스타'는 KB금융 계열사로 편입된 현대증권이 계열사 간 시너지를 위해 처음 출시한 상품이다.

KB금융과 현대증권은 1일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여의도 영업부를 방문해 '에이블스타' 출시 첫 번째 고객으로 가입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윤종규 회장은 "KB금융계열사 간 시너지를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국민들의 자산증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고령자·유병자도 가입 MG손보 '양한방보험'



MG손해보험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자와 유병자가 간편 심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무배당) 건강명의 간편 양한방보험'을 판매 중이다.

MG손보는 한국인의 건강수명(65.4세, 통계청 2014년 기준)이 기대수명(82.4세)보다 20년 가까이 낮다는 점에 착안해 이 상품을 기획했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나이, 혹은 수술·입원 경험 때문에 보험 가입 자체가 힘든 소비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 상품은 각종 질병 및 상해, 3대 질병, 비용 손해 등을 폭넓게 보장한다.

업계 최초로 간편심사보험에 '3대 질병 진단 후 한방치료비', '중증 치매 진단비'를 신설했다. 한국인 발병률이 높은 3대 질병 진단 후, 양방치료뿐 아니라 한방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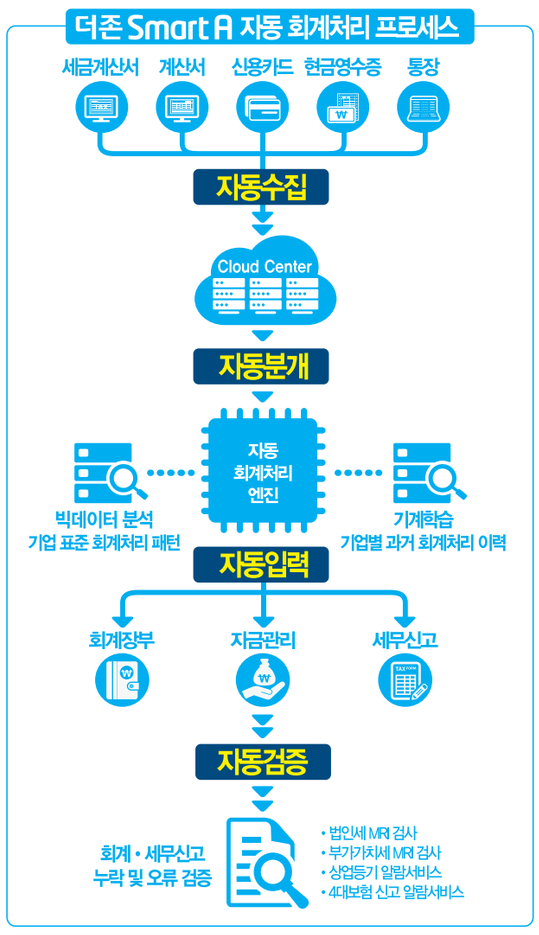
서지희 기자 jhsseo@

www.duzon.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회계관리 세무조정 인사급여 영업관리 생산관리
외주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무역(수출입) 서비스관리
공사현장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바로수금서비스 금융CMS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정보처리)자격시험
더존 프로그램 사용자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존 홈페이지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핵심강좌 무료 수강
지금 검색창에서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더존DUZON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한 FAN 판으로 끝냈지 말입니다

출근길 오늘의 운세를 확인하고,
아침식사는 GS25에서 FAN페이로 적립에 할인까지!
교보문고에서 원스톱으로 베스트셀러도 주문하고,
식사 후 졸린 오후에 게임도 즐기고~
카드 없는 조카에겐 FAN충전카드로 용돈도 선물해줬지 말입니다
이제, FAN[판] 하나면 끝나지 말입니다 ^_^

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있는 FAN!
누구나 앱만 깔면 이용하는 새로운 한 판!



신한카드 FAN [판]

간편 결제서비스를 넘어 금융과 생활, 생활과 생활이
결합된 신한카드만의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
2,200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한카드 FAN프렌즈와 함께 생활의 판을 바꿉니다

FAN 런칭 신규 가입 이벤트!

1) 신한카드 'FAN[판]을 깔자!'
키즈 풀고 스타벅스 쿠폰도 받고, 매일 운세 조회하면 포인트 까지~ 풍성한 혜택의 판이 펼쳐진다
2) FAN충전카드 신청하면 3천원 충전 혜택이!
FAN 신규 가입 후 FAN충전카드 발급고객에게 3천원 충전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FAN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 참조]

FAN 신한카드

iPhone용 Android용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앱스토어나
Google Play를 실행하신 후
신한카드 [FAN]을 검색하여 설치

시장점유율 1위 카드사

BIG to GREAT 신한카드

'빚폭탄' JW중외제약, 재무개선 어쩌나~

지난해 부채비율 169.1% 전년보다 3.7%P 다시 상승
금융이자 지출비용 142억 달해… 순익은 21억 그쳐
수익성 고심… 생명과학 상장·표적항암제 성과 기대

JW중외제약의 부채비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때 부채비율 200%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낮아졌지만, 최근 상승하는 기미를 보여 향후 회사의 대처가 주목된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의 부채비율은 2015년 기준 169.1%를 기록해 2014년(165.4%)보다 3.7%포인트 늘었다. 2016년 1분기에는 170.7%다.

JW중외제약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343억 원, 217억 원이었다. 매출은 전년 대비 5.2% 늘어났으나 제약업계 매출순위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었다. 순이익은 고작 21억 원에 불과했다.

영업이익이 200억 원대를 기록했는데도 순이익이 20억 원대인 것은 금융 이자비용과 매출채권 처분손실 금액 등이 영업외손익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영업외손익에서 58억 원대 금융수익이 있었지만 259억 원가량의 지출이 있었다. 금융비용의 항목을 살펴보면 일반차입금과 일반사채 등의 이자만 142억 원대가 발생했다. 매출채권 처분손실이 44억 원, 외화환산손실도 33억 원가량 발생했다.

이같이 높은 부채비율의 원인은 충남 당진공장 건설을 위해 총 25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2006년 JW생명과학 수액 생산시설을 짓는 데 1500억 원, 2010년 JW중외제약 생산시설을 짓는 데 1000억 원을 들이면서 부채가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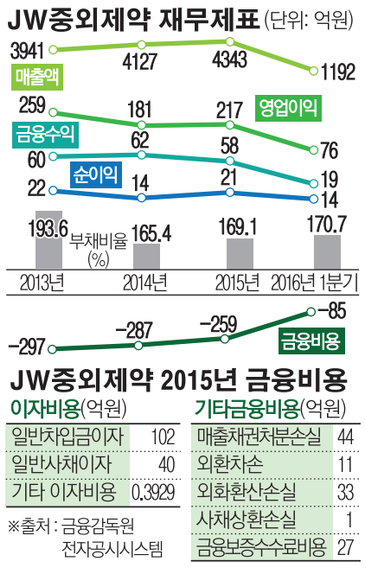
또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수액은 수익성이 낮아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 JW중외제약의 5% 포도당수액(500㎖)은 1272원, 생리식염수주사액(500㎖)은 1029원의 보험약가가 책정돼 수입 생수보다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화성공장 1, 2단지 부지 매각을 시도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2단지만 매각해 255억 원의 차입금만 상환했다. 음료와 코스메틱 분야도 진출을 시도했지만 성과는 부진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연내 JW생명과학의 상장과 현재 임상 1상 중인 Wnt 표적항암제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JW생명과학은 지난해 매출 1239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3챔버 영양수액 위너프는 계약금 2500만 달러와 각국별 허가 상황에 따라 추가로 10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미국 박스터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또 현재 개발 중인 Wnt기반 표적항암제 CWP291A은 9월께 임상 1상 결과가 발표된다. CWP291A의 라이선스 아웃이 추진되면 수익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JW중외제약 재무제표 (단위: 억원)



JW중외제약 2015년 금융비용

이자비용(억원)		기타금융비용(억원)	
일반차입금이자	102	매출채권처분손실	44
일반사채이자	40	외환차손	11
기타 이자비용	0.3929	외화환산손실	33
		사채상환손실	1
		금융보증수수료비용	27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롯데家 형제들, 다시 한국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 어젯밤 입국
당분간 국내서 대응방안 모색
신동빈 회장은 3일 귀국 예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6월 30일 밤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세 번째 표 대결을 치른 롯데가(家) 형제들이 다시 한국에 모인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입국한 데 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3일 입국할 예정이다.

신 전 부회장은 6월 30일 오후 10시께 일본 도쿄 하네다(羽田)발 항공편으로 입국해 김포국제공항 입국장에 부인 조은주 씨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에서의 계획, 향후 주총 전략,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치매약 복용 등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입원 중인 서울 아산병원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부회장은 6월 25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일본으로 출국해 머물러왔다. 그는 신동빈 회장을 해임하는 안건을 제출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무한 주총' 전략을 내비친 그는 최근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벌어지면서 또 다른 카드를 내밀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신 회장이 검찰에 소환되면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신 총괄회장이 수년 전부터 치매 치료제를 복용해 온 사실이 롯데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신 전 부회장은 당분간 한국에 머무르면서 자문변호사 등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영권 분쟁과 성년후견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이 지정돼도 분쟁은 계속할 것이란 게 그의 뜻이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3일 입국할 예정이다. 비자금 조성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는 대로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선애 기자 lsa@

삼성SDI "3분기 中 배터리 인증 준비 끝"

이달 시안공장 가동 1주년 맞아
인증자격 부합… 실적개선 기대

중국 공장 가동 1주년을 맞은 삼성SDI가 중국의 '제5차 배터리 모범 규준 인증' 심사에 재도전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조남성 사장의 진두지휘 아래 최대의 전기차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최근 '제4차 중국 배터리 모범 규준 인증업체'에서 제외됐지만 7월 시안 공장 가동 1년을 맞아 제5차 모범 규준 인증에 부합한 자격을 갖추게 됐다.

올 3분기경으로 예상된 5차 모범 규준 심사에 재신청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공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 사장도 수 차례 중국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삼성SDI는 지난해 6월 중국 시안에 '삼성환신동력전지 유한공사' 공장을 설립, 지난해 7월부터 샘플 가동을 시작했다. 준공식은 지난해 10월에 했다. 중국 당국이 인증업체 기준을 아직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았지만 7~10월에는 '생산경력 1년'자격이 갖춰지는 셈이다.

중국이 지정하는 모범 규준 인증업체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다만, 2018년 이후부터 중국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사실상 중국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삼성SDI 측은 "4차 서류 준비 당시 생산경력 1년 이상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탈락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며 "중국에서 한 번의 인증만 받아놓으면 되기에 재도전을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올해 삼성SDI 전기차용 배터리 예상 매출 9586억 원 중 중국에서 생산되는 비중이 30%로 5차 인증만 받으면 향후 중국 사업은 문제가 없다. 또 올해 하반기 유럽 현지 거점 공장을 설립하기 때문에 3분기 이후 실적은 기대해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은 영업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분기 실적은 매출액 1조 3300억 원, 영업적자 383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 영업적자 271억 원보다 하회할 것"이라며 "소형전지 부문의 실적은 개선될 전망이지만 중대형 전지 부분은 1분기 자산 상각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기버스향 수주 공백과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실적 기대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유현 기자 yhssoo@

中企에 귀막은 '불통' 동반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대기업만 챙긴 동반성장지수 인정 못해"

"중소기업계 의견이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동반성장지수) 결과입니다. 우리는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41차 동반성장위원회' 직후, 중소기업 측 동반성장위원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와 만나 분통을 터뜨렸다.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면, 동반위에 중소기업 측 위원들이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 의견 교류의 장이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소통이 없다는 불만이다.

이날 열린 동반성장위원회는 예상됐던 시간보다 늦게 마무리됐다. 막판 중소기업 측 위원들의 항의 섞인 발언들이 오랫동안 이어졌기 때문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였지만, 이들의 언성은 회의장 밖 복도까지 수차례 울려 분위기를 짐작게 했다.

최 회장은 회의가 끝난 뒤에도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앞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동안 이어나갔다. 최 회장은 "롯데처럼 사회적 문제가 있는 일부 기업들이 동반성장을 잘한 것으로 버젓이 올라와 항의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간 회의에서도 줄곧 문제를 제기했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자 안 위원장은 "이번에 (중소기업 측 위원들이) 지적한 것들이 다음 번 회의에서 개선되는 것들도 있으니, 조금만 지켜봐달라"며 최 회장을 달래기도 했다.

중소기업 측 관계자들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 한숨을 쉬며 발길을 옮기는 중소기업 측 위원들도 있었다. 반면, 평가를 잘 받은 일부 대기업 측 관계자들은 밝은 표정으로 안 위원장의 기자브리핑까지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회의장 밖에서 만난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인데도 회의 당일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접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 측을 단순 의사결정 거수기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부광약품 신제형 항암제 전 세계 독점 라이선스

후보물질 'SOL-804' 개발권 취득

부광약품이 신규제형 항암제에 대해 전 세계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광약품은 자회사 다이나 테라퓨틱스가 최근 항암제 후보물질인 'SOL-804'의 독점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다이나는 항암제 등 의약품의 투여 편의와 부작용 개선 등을 위한 새로운 제형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젝트 집중회사(PFC)로, 지난달 설립됐다. 부광약품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이 회사는 혁신적인 제형 개발을 통해 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이나의 첫 파이프라인은 덴마크 회사인 솔루랄 파마의 SOL-804다.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대한 기존 치료제를 솔루랄사 고유 기술을 통해 개선한 개량 신약이다. 양사 간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다이나는 솔루랄로부터 SOL-804에 대한 전 세계 개발 및 판권을 취득해 해당 물질을 독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다이나와 같은 프로젝트 집중 회사는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맞춤 전략을 통해 특화되고 유연한 신약 개발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다이나는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 개발을 통해 제형개발 분야에서 파이프라인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남호 기자 spdran@

유튜브, 상암에 '팝업 스페이스 서울'



유튜브가 서울 상암동 다지털미디어시티에 위치한 S-Plex에 '유튜브 팝업 스페이스 서울'을 열고 이달 2일까지 운영한다. 유튜브 팝업 스페이스 서울은 크리에이터를 위한 창작지원 공간이다. 개관식에 참석한 개그맨 홍인규(왼쪽부터), 박준하 푸드 크리에이터, 심정현 뷰티 크리에이터, 김학 영화 리뷰 크리에이터, 장성규 아나운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유튜브

금호그룹 전략경영실장에 박홍석 타이어 전무

건설 신임사장엔 서재환 실장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올해 가장 큰 현안인 금호타이어 인수 작업에 주축 인물로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서재환〈왼쪽사진〉 그룹 전략경영실장을 금호건설 신임사장으로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후임 그룹 전략경영실장에는 박홍석〈오른쪽〉 금호타이어 전무를 선임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지난해 금호산업 인수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서 사장은 1988년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한 후 한국복합물류 경영지원본부장, 대한통운 경영관리본부장 및 부사장 등을 지냈다.

신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장으로는 금호타이어 박홍석 경영기획본부장(전무)이 임명됐으며, 이번 인사를 통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업계에서는

하유미 기자 jscs508@

LG전자 "연말 인천공항에 청소로봇 도입"

B2B 로봇 시장 진출 본격화

LG전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에 지능형 로봇 서비스를 도입키로 해 연말이면 공항 청사에서 청소하는 로봇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양사는 1일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청사에서 '지능형 로봇 서비스 도입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LG전자 대표이사 H&A사업본부장 조성진 사장 등이 참석했다.

LG전자는 인천국제공항의 스마트공항 서비스를 위해 지능형 로봇, 사물인터넷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자율주행하는 공항안내로봇, 환경미화(청소)로봇 등 특화로봇이 여객터미널 이용객들의 편의는 물론 공항 운영의 효율성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이르면 연말부터 로봇 시제품 현장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LG전자는 2003년 국내 기업 최초로 출시한 로봇 청소기, 스마트가전 등을 통해 확보한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 인식 기술, 자율 주행 기술, 제어 기술,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B2B 로봇 서비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LG전자 대표이사 H&A사업본부장 조성진 사장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입할 스마트공항 서비스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가전 분야에서 쌓아온 오랜 경험과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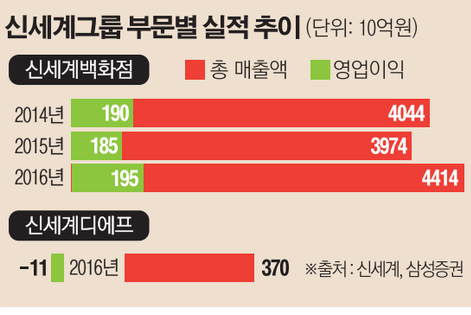
정유현 기자 yhssoo@

신세계면세점 '적자예고' 경영시험대 오른 정유경

〈신세계그룹 백화점부문 총괄사장〉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



명동점 하루 매출 4억 판매 부진
올해 영업적자만 110억 달할 듯
백화점부문 총괄 첫 해 실적 울상

정유경 신세계그룹 백화점부문 총괄사장이 진두지휘하는 신규 신세계면세점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극심한 판매 부진으로 당초 계획한 매출 달성은커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판매와 판촉마케팅 등을 주관하는 판매팀 등도 업무 부담에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더욱이 인근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소공점이 확장공사 완료 예정일보다 2개월 앞서 최근 매장 일부를 임시개장하고 영업에 돌입해 험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한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일 매출이 현재 4억 원 수준으로 극심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다. 면세점 사업권 획득 당시 신세계는 명동점의 개점 첫 1년간 매출 목표액을 1조~1조5000억 원으로 잡았다. 오는 2020년까지는 누적 매출액 10조 원으로 잡는 등 당찬 의지를 보였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이후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사장이 명동점 오픈 간담회서 매출 목표액을 1조 원에서 소폭 하향 조정한다고 밝히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현재 일 매출 수준으로는 연 매출액 4000억 원 달성도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초 밝힌 1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 40억 원은 달성해야 한다.

이에 반해 영업적자는 100억 원 이상을 상회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남성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명동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37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며, 영업적자는 11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사장은 6년간 달았던 부사장 직함을 떼고 지난해 말 총괄사장 자리에 오른 데 이어 최근 오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각각 보유 중인 이마트와 신세계의 지분 교환으로 백화점 부문 경영을 총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성적표가 그의 경영능력과 후계자 자질을 평가하는 첫 무대가 됐다.

명동점의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면세점업계 점포 기준 매출 1위 롯데면세점 소공점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환경 역시 밝지가 않다. 롯데면세점 본점 1곳 매출은 2조2284억 원으로 2위인 신라면세점 본점(1조3206억 원)과 비교해도 1조 원가량 많다. 현재 소공점의 일 매출은 80억 원에 달한다.

면세점 사업과 관련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판매를 전담하는 판촉팀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곧 줄사표가 이어질 것이란 소문도 돌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 사장이 1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신세계의 실적 개선을 어떻게 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면세점은 그룹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첫 번째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

"1등 삼다수 잡아라" 다시 막오른 생수전쟁

연말 광동제약 계약종료 앞두고
제주도개발공사 공개입찰 준비중
7000억 생수시장 30%대 점유율
CJ제일제당·농심 등 판권 도전

제주 삼다수의 판권을 둘러싸고 업계의 유치 경쟁이 끓어 오르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주자치도개발공사는 올 연말 광동제약과 4년 계약을 종료하고, 판권을 담당할 새로운 파트너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삼다수 판권의 공개입찰을 위한 평가항목 등을 검토 중이다. 입찰 공고는 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로 예정됐다.

광동제약은 삼다수 판권 재계약을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광동제약의 지난해 삼다수 매출은 1676억 원으로 전체 매출 5723억 원의 약 30%를 차지했다. 광동제약 측은 "삼다수 판권 계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향후 매출 확대 및 제주도에 대한 기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제주삼다수'고맙삼다 리미티드 에디션'. 사진제공 광동제약

국내 생수시장은 올해 7000억 원대 규모로 삼다수가 3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경쟁사들도 판권의 새 주인이 되기 위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내달까지 제주도개발공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탄산수 시장에 뛰어들 예정이어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합작회사는 CJ제일제당 40%, 제주도 개발공사 60%의 지분으로 만들어진다. CJ제일제당은 올해 말 공장을 완공, 내년 1분기부터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까지 삼다수 판권을 가지고 있었던 농심도 삼다수 판권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각오다. 당시 제주자치도개발공사 측에 의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농심은 백두산 천지 물을 수원지로 한 '백산수'를 선보였지만 삼다수에 밀리고 있는 상태다.

대형마트 이마트도 삼다수 계약의 입찰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업계는 이마트가 '제주소주'를 인수한 배경 중 하나가 삼다수 판권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주소주는 연 매출 1억4000만 원 규모로 제주도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소주 사업보다는 제주소주가 갖고 있는 지하수 취수권을 사용해 음료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하늬 기자 honey@

이비스 앰배서더 동대문·해운대 동시 오픈

비즈니스·패밀리 등 객실구성 다양화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왼쪽)과 이비스 앰배서더 부산 해운대가 1일 동시에 오픈했다. 사진제공 이비스 앰배서더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과 이비스 앰배서더 부산 해운대가 1일 동시에 오픈했다.

서울 을지로5가 사거리에 위치한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은 총 242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상 20층, 지하 4층의 규모로 세워졌다. 7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퍼런스룸과 레스토랑, 로비 바, 루프탑 바, 피트니스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갖췄다.

전통시장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중부시장, 광장시장을 비롯해 지난 5월 오픈한 두산면세점을 포함한 여행객들의 쇼핑 중심지 동대문 패션타운과 접근성이 좋아 여행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을지로4가역과 동대문역사공원역까지 도보로 5분, 명동역까지는 10분 거리다.

해운대 해변으로부터 도보로 5분 거리인 해운대 해변로에 자리한 이비스 앰배서더 부산 해운대는 지상 20층, 지하 3층의 규모에 5가지 타입으로 구성된 237개 객실을 갖췄다.

두 호텔은 이코노미 호텔임에도 욕실과 침실을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하는 등 기존 이코노미 호텔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안락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했다. 객실 구성 또한 다양화했다. 3인 이상의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트리플룸, 패밀리룸, 2개의 트윈룸을 오픈해 다수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커넥팅룸 등이 눈에 띈다.

이비스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호텔을 보유하고 있고 인터내셔널 호텔 브랜드다. 전 세계 1000여 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루이비통, 서울에 남성 팝업매장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서 F/W 컬렉션 선봬

루이비통이 1일 이달 말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2층에 남성복 팝업매장을 연다고 밝혔다. 루이비통이 국내에서 남성복 팝업매장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가을·겨울(F/W) 남성복 컬렉션을 선보일 방침이다. 아티스틱 디렉터 킴 존스의 의류와 모노그램 이클립스 캔버스 제품 등도 공개할 계획이다.

루이비통은 1920년대 '아르 데코' 시대에서 영감을 받은 이번 컬렉션이 '미래의 유산'을 주제로 전통에 현대적인 감성을 더해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옛 우편물 트렁크에서 영감을 받은 '모노그램 이클립스 라인'은 현대적인 느낌의 무채색으로 재해석해 남성적인 느낌을 살렸다고 덧붙였다.

팝업매장에서는 다른 한정판 제품도 둘러볼 수 있다. 루이비통은 9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6층에 국내 첫 남성 전용 매장도 개장한다.

루이비통 측은 "서울은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동시에 풍요로운 문화유산이 보존된 도시"라며 "이번 팝업매장은 서울의 도시 정신에 맞게 꾸몄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미운 오리 새끼’ 대단지의 변신

많은 가구 수로 분양 흥행 의심됐지만…
지난달 ‘헬리오시티’ 분양권 거래 235건
송파구 전체 분양권 거래량 92% 차지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인천 SK스카이뷰’
최근 분양권 전매 제한 풀리며 거래 급증


‘송파 헬리오시티’ 조감도.

그동안 건설사들의 대단지 사업지 분양은 많은 가구 수로 인해 미분양 우려를 낳아왔다. 하지만 2014년 말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부동산 경기와 맞물리며 ‘원샷 분양’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있다.

1일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송파구에서 거래된 분양권 거래량이 255건을 차지했다. 이 중 92%에 달하는 235건은 한 단지에서 거래된 물량이다. 바로 ‘송파 헬리오시티’다. 이 단지는 28일 분양권 거래량은 160건이었지만 단 하루 만에 75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송파 헬리오시티’는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총 9510가구 규모로 1만여 가구가 한 번에 공급된 매머드급 단지다.

이 단지는 한때 3.3㎡당 2800만 원이 거론됐지만 대규모 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발생을 우려해 3.3㎡당 평균 2626만 원으로 공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중대형 평수에서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중대형 평면인 110㎡가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단지는 분양 이후 일주일 만에 완판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끝난 이달에는 프리미엄만 5000여만 원이 붙으며 송파구에서 가장 ‘핫’한 단지로 탈바꿈됐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 미분양 아파트 증가의 원인으로 꼽혔던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역시 지난해 공급된 대단지 중의 하나이다. 지난해 7월 공급된 이 단지는 송도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로 총 2848가구가 분양했다. 당시 송도는 이 단지 분양이 이뤄지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전월 대비 27.61%가 증가하기도 했다. 이런 초창기 모습과 다르게 이 단지는 지난 1월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린 이후로 1300만~2000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입주를 시작한 ‘인천 SK스카이뷰’는 미운오리새끼에서 백조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단지다. SK건설이 인천 남구 용현학익지구에 조성한 4000여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인 ‘인천 SK 스카이뷰’는 총 3971가구의 대규모 랜드마크로 조성됐다. 한번에 대단지 분양이 이뤄지면서 지난 2013년 말 분양 당시 미분양이 상당수 발생하며 골머리를 앓았다. 심지어 미분양 해소를 위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아파트 쇼핑’ 유치부터 TV홈쇼핑 판매에 나서기도 했다. 미분양 해소가 가능할까란 의문마저 갖게 한 단지였지만 현재는 분양권에 오히려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분양시장 훈풍을 타고 대단지 분양 리스크가 감소했다는 반응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단지는 미분양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1~2차 등으로 나눠 분양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며 “해당 단지들의 경우 최근 1~2년간 분양시장이 좋은 데다 입지 역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경진 기자 jungkj@

중대형 틈새면적 포함된 분양예정 단지 (단위: ㎡)

위치	사업명	전용면적	가구수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	하남 미사 신안인스빌	84·93	734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10.0 2단지	77~96	1515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다산신도시 한양수자인2차	97~112	291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 SK VIEW	75~99	2100
경북 포항시 오천읍	신문덕 코아루	69~106	745



중대형 ‘틈새면적’ 틈 크네~

주택시장에서 전용 90~100㎡의 중대형 틈새 면적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주거비 부담과 자녀 양육 등의 영향으로 부모세대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가족 변화에 다른 결혼출산 형태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85년부터 2010년까지 2세대 가구의 구성원을 분석한 결과 25세 이상 미혼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의 비중이 1985년 9.1%에서 2010년 26.4%로 15년간 무려 17.3%포인트나 증가했다.

또한 동일 기간 부모 세대와 함께 사는 기혼자 부부의 비율을 역시 1985년 0.55%에서 2010년 2.10%로 280% 이상 늘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자녀 크게 늘며
전용 90~100㎡ 분양권 프리미엄 껑충
‘하남 미사 신안인스빌’‘송도 SK뷰’ 등
7~8월 중대형 평형 단지 잇따라 분양

이처럼 캥거루족의 증가로 4인 가구 이상이 거주하기 좋은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사실상 일반적인 대형 면적보다 가격 부담은 작고, 평면구성은 우수한 틈새면적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실제로 중대형 틈새평형의 인기는 분양권에 형성된 웃돈으로도 알 수 있다.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6월 2일 기준)를 토대로 면적대별 프리미엄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1~5월까지 거래된 전국 아파트 전용 90~100㎡ 중대형 틈새 면적의 분양권 프리미엄 합은 701억9574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일반적인 중대형 면적대인 전용 100~110㎡가 562억2539만 원, 전용 110~120㎡가 189억8474만 원의 프리미엄 총액을 보인 것보다 각각 1.24배, 3.69배 이상 높은 수치다.

건설사 역시 중대형 틈새 면적 공급에 적극적이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5월까지 공급된 일반분양 가구수 중 중대형 틈새 면적에 해당하는 전용 90㎡ 이상 100㎡ 미만 아파트의 공급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2.69%에서 2016년 4.16%로 1.5배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7~8월 분양시장에서도 중대형 틈새 면적을 포함한 단지가 잇따라 공급을 앞두고 있다.

신안종합건설이 1일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하남 미사 신안인스빌’은 전체 734가구 중 약 47%(344가구)가 중대형 틈새 평형으로 몸값을 높이고 있는 전용 93㎡로 구성된다.

반도건설이 이달 동탄2신도시 A-79블록에서 분양예정인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10.0 2단지는 면적 구성에 있어 틈새 면적을 적극 활용했고 한양이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C-2블록에서 분양 예정인 ‘한양수자인 2차’는 전체 가구의 약 96%가 중대형 틈새 면적인 전용 97㎡(280가구)로 구성된다.

SK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A4블록에서 내달 분양 예정인 ‘송도 SK VIEW(뷰)’도 중대형 틈새 면적인 전용 99㎡를 적용해 폭넓은 수요층을 확보했다. 단지는 지하 2~지상 43층, 11개동, 전용면적 75~99㎡ 총 2100가구 규모다.

구성헌 기자 carlove@

고가 아파트일수록 집값 많이 올랐다

올 상반기 서울 9억초과 아파트 2.31% 상승
‘재건축 강세’ 강남구 3.64% 가장 많이 올라
서초·송파 뒤이어… 상승률 1~3위 ‘강남 3구’

서울에서 9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률이 9억원 미만 아파트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서울지역 9억원 초과 아파트는 2.31% 올라 9억원 이하 아파트 상승률 1.39%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아파트값이 비싼 강남 재건축 시장이 지난 3월 강남구 개포주공2단지 일반분양 이후 줄곧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6월 현재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호당 평균 가격은 10억4538만원으로 2015년 말 9억9295만원에 비해 5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가격대별로는 △6억원대 1.25% △7억원대 2.39% △8억원대 1.54% △9억원대 2.98% △10억원 이상 2.06% 등으로 9억원대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6억원 미만 중저가 아파트 오름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3억원 미만 1.59% △3억원대 1.34% △4억원대 1.17% △5억원대 1.14%로 조사됐다.

구별 상승률에서는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의 80%가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 집중돼 있는데다 개포지구 등 인기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강남구(3.64%)가 올 상반기 동안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서초구(2.57%) △송파구(2.1%)가 뒤를 이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사상 초유의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강남 재건축 분양 사업장은 청약과열 양상을 빚으며 고분양가 행진을 이어갔다”면서 “이것이 다시 기존 재건축 단지의 몸값 상승을 견인하면서 고가 아파트 매매가격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고 설명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수원 컨벤션센터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유력

수원 광교지구 컨벤션센터 실시설계 적격자 및 시공사 선정에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유력해졌다. 기술제안서 심사에서 경쟁업체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큰 점수차로 따돌렸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지난달 29일 경기도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기술제안서 심의를 한 결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93.95점·100점 만점)이 현대건설 컨소시엄(86.35점)보다 8점가량 앞섰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3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는 경기도에서 기술제안 심의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시공사 선정에서 기술제안서와 가격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0%, 30%로 기술제안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시는 다음 주 초 각 컨소시엄이 미리 제출한 가격 입찰서를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개찰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사업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한 사업이며, 컨벤션 센터 활성화와 주변지역 활성화라는 수원시의 의도에 맞게 기술제안을 준비했다”며 “기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해 공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 컨벤션센터는 수원시 영통구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컨1부지에 들어서며 총 사업이 3290억원이 투입된다. 대지면적 5만5㎡에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전시장 및 컨벤션홀, 부대시설 등이 조성된다.

정경진 기자 jungk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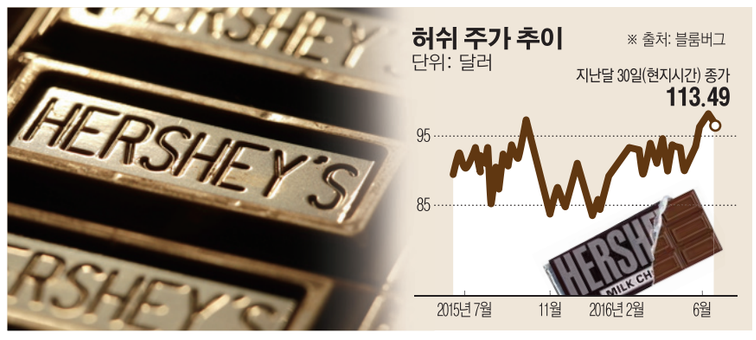


초콜릿 대명사 '허쉬' 230억 달러에 인수하려다 퇴짜 맞은 '몬델리즈'

'세계 최대 제과' 메이커 탄생 포기?

주당 107달러에 50% 현금 지급
일자리 보장·회사명도 그대로
인수 제안에 허쉬 주가 17% 폭등

창업자 밀턴 허쉬 의결권 81% 차지
2002년 윙글리 인수 때도 반대
이사들과 이해관계 충돌 변수 남아



'오레오 쿠키'로 유명한 몬델리즈인터내셔널이 초콜릿의 대명사 허쉬에 인수 제안을 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양사가 통합하면 '세계 최대 과자' 메이커가 되는 만큼 몬델리즈가 순순히 물러설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몬델리즈는 최근 허쉬에 주당 107달러, 총 230억 달러(약 26조4730억 원)에 인수하겠다는 의향을 담은 서신을 보냈다. 인수금액 중 50%는 현금으로, 나머지 50%는 몬델리즈 주식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몬델리즈의 인수 제안 소식에 허쉬 주가는 이날 16.8% 폭등했고 몬델리즈도 5.9% 뛰었다. 그러나 허쉬는 "인수 의향서에 대해 이사회가 몬델리즈와 추가 논의 근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몬델리즈의 인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다만 한 소식통은 "몬델리즈가 허쉬 인수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며 "일자리를 보장하고 합병 이후 글로벌 초콜릿사업부 본사를 허쉬에 두는 것은 물론 심지어 새로 탄생하는 회사 이름을 허쉬로 할 것을 약속했다"고 언급, 몬델리즈가 허쉬 인수를 이대로 포기하진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몬델리즈의 허쉬 인수가 성사되면 세계 최대 제과업체가 탄생하게 된다. 허쉬는 몬델리즈로부터 인수 의향서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전 시가총액이 약 210억 달러였고, 몬델리즈는 690억 달러에 달한다. 리서치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허쉬는 마스에 이어 세계 2위 제과업체다. 네슬레와 페레로가 각각 3, 4위를 차지하고 있고 허쉬는 5위다.

양사의 통합은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거부당할 가능성도 낮다. 몬델리즈는 미국 초콜릿 시장에서 존재감이 약하고 허쉬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 시장 진출이 다소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몬델리즈의 허쉬 인수가 성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WSJ는 지적했다. 허쉬트러스트가 허락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허쉬 창업자이자 자선가인 밀턴 허쉬가 세운 허쉬트러스트는 현재 허쉬 보통주 8.4%를 보유하고 있으나 의결권은 81%에 이른다. 허쉬트러스트는 가난한 학생을 위해 설립된 밀턴허쉬스쿨을 지원하는 등 주주가치 극대화를 넘어서는 목표를 갖고 있다. 허쉬트러스트는 2002년 윙글리가 허쉬를 인수하려 했을 때도 이를 무산시켰다. 허쉬는 성명에서 허쉬트러스트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WSJ는 최근 허쉬트러스트가 이사들의 보수 과다 지급과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올해 이사 일부가 사임하거나 해고되는 등 변동이 생긴 만큼, 인수를 완강히 거부했던 트러스트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다른 업체, 특히 스위스 네슬레도 허쉬 인수에 뛰어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허쉬는 네슬레의 킷캣 브랜드 초콜릿을 미국에서 라이선스 생산하고 있다. 네슬레는 허쉬가 다른 회사에 팔리면 다시 킷캣 브랜드를 회수할 권리도 갖고 있다. 다만 네슬레가 허쉬를 인수하면 반독점 이슈에 해당될 수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필리핀 새 대통령 얼굴에 손도장



필리핀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가진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인의 초상화에 붉은색 파우더로 손도장을 찍고 있다. '필리핀의 트럼프'로 불리는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궁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 6년의 제16대 대통령에 올랐다. 그는 취임 6개월 안에 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범죄·부패와의 전쟁을 예고했다.
마닐라/로이터연합뉴스

"아로라 돌연 퇴임 의심스러워"

〈전 소프트뱅크 부사장〉

美 증권당국, 재직 중 행적 관련
日 소프트뱅크 공시 함께 조사
주가 장중 한때 3% 하락



미국 증권당국이 지난주 돌연 퇴임한 니케시 아로라〈사진〉 전 부사장의 재직 중 행적과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을 조사하고 있다고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로스앤젤레스 사무소 직원들은 아로라 전 부사장의 이익상반이나 다른 의심스러운 행위가 없었는지 여부를 놓고 소프트뱅크의 공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일반적으로 착수단계의 SEC 조사는 예비적인 것으로, 소프트뱅크나 아로라 전 부사장이 법적 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소프트뱅크와 아로라 전 부사장의 불법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SEC가 소프트뱅크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선전하던 소프트뱅크 주가는 급락해 한때 전날보다 3% 하락한 5632엔까지 떨어졌다. 그러다가 0.33% 내린 5789엔에 거래를 마쳤다.

일각에서는 아로라 전 부사장의 갑작스러운 퇴임이 일련의 일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회사 일부 투자자들이 지난 1월에 아로라 전 부사장의 적성과 보수, 사모펀드 자문으로 재직한 경력에 따른 이익상반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소프트뱅크 이사회에 내부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익상반 유무 외에도 투자 실적과 1억 달러 이상의 보수, 의심 상거래 등을 비판했다. 이와 별도로 소프트뱅크 산하 스프린트 이사회에 보낸 투자자 서한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아로라 부사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회사는 특별 조사위원회를 꾸려 내부 조사를 실시, 그 결과 위원회는 투자자들의 주장은 평가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그러나 그 이틀 뒤인 22일 아로라 전 부사장은 결국 퇴임 의사를 밝혔다.

소프트뱅크 측은 이 일과 아로라의 퇴임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석연치 않다. 지난 4월 서한 내용이 보도됐을 때, 손 회장은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아로라 전 부사장을 두둔했다. 당시 아로라도 "소프트뱅크에서 18개월 동안 나는 항상 회사를 우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서한 내용에서 사실에 근거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英 총리 '0순위' 존슨 빠지고 '제2 철의 여인' 메이 뜨고

EU 탈퇴 진영 이끌던 존슨 전 시장
총리 후보 등록 마감날 포기 선언
대신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 출마

유고브 조사 지지율 1위 메이 장관
리그렉시트 분위기 반영됐지만
총리 돼도 EU 유턴 가능성 '제로'


보리스 존슨 전 시장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진영을 이끌었던 보리스 존슨(51) 전 런던시장이 집권 여당인 보수당 차기 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투표 이후 영국 내 리그렉시트(브렉시트에 대한 후회·Regrexit) 분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존슨 전 시장의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으로 영국 브렉시트 정국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존슨 전 시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들과 논의하고 영국 의회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내가 총리가 될 사람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내 역할은 차기 보수당 대표를 최대한 도와 영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보여준 브렉시트에 대한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집권당 대표가 차기 총리가 된다.

영국 정계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다. 브렉시트 이후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했던 존슨이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 마감 직전에 기권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더 의외인 것은 존슨을 지지했던 마이클 고브(49) 법무장관이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고브는 존슨의 기자회견 3시간 전 "오랫동안 총리는 안 한다고 했고 EU 탈퇴가 더 나은 미래를 줄 것이라고 주장해온 존슨을 돕고자 했다"면서 "그러나 존슨이 (EU 탈퇴를 위한) 리더십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보수당 대표 경선 출마를 알렸다.

일각에서는 존슨이 고브 장관의 압력으로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U 탈퇴를 주장했지만 영국 정치사에서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에 일찌감치 손을 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존슨이 결심을 번복한 속내는 불확실하다.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였던 존슨 전 시장이 불출마하면서 되레 EU 잔류파였던 테리사 메이 내무장관이 부상하게 됐다. 메이(59) 장관은 지난달 28일 보수당원을 대상으로 한 유고브의 여론조사에서 31%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잔류파인 메이가 이 같은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리그렉시트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평가지만 그가 총리가 되더라도 영국의 'EU 유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메이 장관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잔류를 지지했지만 캠페인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않았다. 특히 탈퇴파가 브렉시트 장점으로 내세운 이민자 유입 통제에 찬성했다.

메이 장관이 오는 9월 9일까지 치러질 보수당 경선에서 승리하면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이후 26년 만에 영국에서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된다. 메이 장관은 이날 "존슨 전 시장보다 내가 더 나은 협상가"라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밖에 리엄 폭스(54) 전 국방장관, 스티븐 크랩(43) 고용연금장관, 안드레아 리드손 기업차관 등이 영국 총리 경선에 도전장을 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테슬라 '모델S' 자율주행 중 첫 사망사고

美 NHTSA, 기능 이상 조사


테슬라의 세단 모델S. 테슬라 웹사이트

자동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던 미국 테슬라자동차의 '모델S' 차량 운전자가 충돌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에 미국 교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 중이던 한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테슬라는 이날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2개월 전 모델S에 일어난 치명적인 교통사고와 관련해 NHTSA가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자율주행 기능이 켜진 우리 자동차의 총 주행거리가 1억3000만 마일(약 2억921만km)을 갓 넘은 가운데 일어난 첫 사망사고"라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지난 5월 7일 플로리다 주 윌리스턴에 발생했다. 당시 옆면이 하얀색으로 칠해진 대형 트레일러 트럭이 신호등이 없는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조슈아 브라운(40)이 몰던 테슬라의 모델S와 충돌했다. 트럭 운전자는 "모델S가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으며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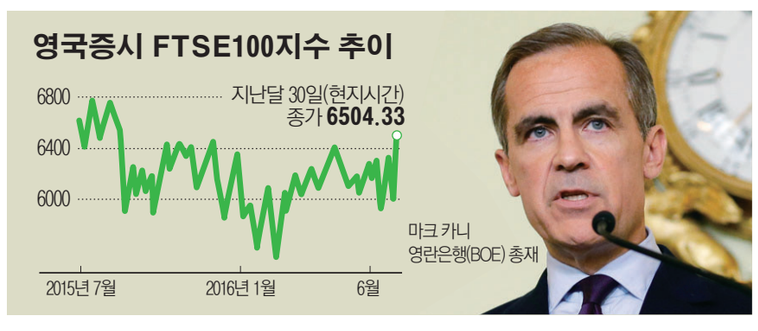
테슬라는 "자율주행 센서와 운전자 모두 사고 당시 하늘이 밝아 트레일러의 하얀색 면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트럭이 도로 전체를 가로지르는 상황에서 모델S가 트럭 밑으로 깔려 들어가 앞유리가 부서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자율주행차의 발전에 큰 후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테슬라는 물론 전통적 자동차업체와 구글 등 IT업체들까지 최근 수년간 자율주행차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들은 오는 2020년까지 완전히 자동으로 운전하는 자동차를 도로 위에 달리게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브렉시트 쇼크 '구원투수' 나선 BOE

〈영국 중앙은행〉

파운드 1.311달러로 0.9% 하락
금리도 한때 -0.04%까지 떨어져
카니 총재, 올여름 금리인하 시사
경기부양 조치 2012년 이후 처음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 트라우마에 빠진 자국 경제의 구원투수를 자청했다.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는 앞으로 수개월간 경제성장이 둔화해 기준금리 인하와 기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카니 총재는 이날 브렉시트 투표 이후 처음으로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개인적 견해이지만 영란은행이 올여름에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브렉시트 투표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초기 평가가 이뤄지고 8월 회의에서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새 전망과 함께 전면적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카니 총재가 8월 금리인하를 선호하지만 그 전에도 결정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카니 총재는 또 "영란은행은 상당한 불확실성의 시기에 경제와 일자리, 임금을 지탱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며 "경기회복과 금융시스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선택이 있다"고 말해 채권 매입을 재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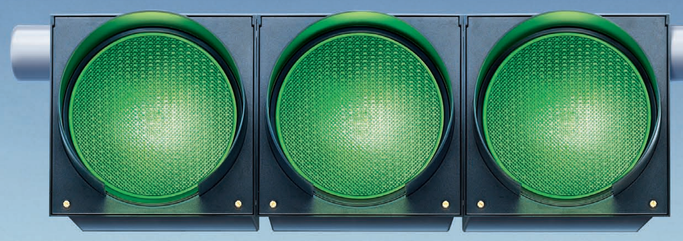
그러나 그는 "통화정책이 대규모 충격이 가져올 모든 경제적 영향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상쇄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영란은행이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카니 총재의 연설 후 영국 증시는 강세를 보이고 영국 국채 금리와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떨어졌다. 특히 금리인하와 채권 매입 재개 등 부양책 기대감에 2018년 3월이 만기인 영국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마이너스(-) 0.04%까지 떨어져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했다. 2017년 8월 만기 국채 금리도 마이너스로 하락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파운드·달러 환율은 카니 총재 연설 전에 1.342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다가 1.3231달러까지 떨어지고 나서 전일 대비 0.9% 하락한 1.3311달러에 마감했다. 파운드·달러 환율은 2분기에 7.3% 하락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빠졌던 2008년 4분기의 19.3%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롯데건설 신흥덕 롯데캐슬 레이시티 검색 www.신흥덕롯데캐슬레이시티.com

7월 1일 GRAND OPEN





강남까지 1정거장!



※ 본 홍보물의 사진 및 내용, 이미지컷은 참고자료로 소비자 이해를 돕기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으며, 광역버스 이용 시 단지앞 버스정류장(상미마을)에서 강남(신논현역)까지 1정거장입니다.

아침이 여유로운 도시 – 신흥덕 롯데캐슬 레이시티



LOTTE CASTLE

031)274-6988 총 1,597세대 59A㎡ 666세대 | 72㎡ 262세대 59B㎡ 426세대 | 84㎡ 243세대

※ 본 홍보물의 사진 및 내용, 이미지컷은 참고자료로 소비자 이해를 돕기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허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 5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17-2번지 일원 ※ 규모 : 총 1,597세대 59㎡ · 72㎡ · 84㎡ (전용면적 기준) ※ 시행사 : (주)하나자산신탁 ※ 시공사 : 롯데건설(주)

견본주택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32-1번지[신흥덕 롯데캐슬 견본주택]
현 장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17-2번지 일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개도국에 수출할 것"

가축분뇨로 바이오가스 만들어
하수처리장엔 태양광 발전시설
환경문제 해결에 농가소득까지
신성장 비즈니스 모델로 육성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강원도 홍천군 에너지 신산업현장인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방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신성장 비즈니스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달 30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강원도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돌아보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농가소득까지 올릴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국내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도 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올해 초 그룹 차원에서 에너지신산업추진단을 구성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박 대통령이 2014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처음 제시한 모델로, 당시 박 대통령은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이러한 구상이 처음으로 실현된 곳으로 정부와 강원도, 홍천군, SK 계열사인 SK E&S 강원도시가스가 지난해 12월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를 친환경에너지마을로 탈바꿈시켰다.

홍천 모델은 마을 악취의 근원이던 가축분뇨와 음식물 찌꺼기를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이를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여기서 연간 생산되는 도시가스 60만㎥는 75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주민들은 연간 약 4500만 원의 가스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은 또 도시가스를 만들고 남은 분뇨를 퇴비와 물거름으로 재가공·판매해 연간 52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하수처리장에는 340㎾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매년 5200만 원의 마을 수익도 얻고 있다. 시설 설치 비용 10억 원은 SK E&S 강원도시가스가 지원했다.

SK그룹은 다른 지역으로까지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SK그룹이 조성한 세종 창조마을 주민은 300㎾급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무상 사용하고 있다. 남는 전기는 판매해 연간 5000만 원의 수익도 올린다.

SK그룹 계열사 SK D&D는 지난해 4월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공동목장 내 204만5000㎡ 부지에 풍력발전 단지를 만들어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공동목장에서 종전처럼 말을 키우면서 3㎿급 풍력발전기 10개 설치에 따른 임대료로 연간 수억 원을 벌 수 있게 됐다. SK그룹은 향후 제주 표선면 앞바다에 1조 원을 투입, 200㎿급 해상풍력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날씨경영으로 원가절감·품질관리 등 효율 극대화"

대상FNF 종가집, '기상산업대상' 대상



최정호(왼쪽) 대상FNF 대표이사가 기상산업 대상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상FNF

대상FNF 종가집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제11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에서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은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기상정보 활용과 기상산업 진흥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제정한 것으로 날씨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에 시상한다. 기상정보 활용, 기상산업 진흥, 아이디어 제안의 3가지 부문으로 진행한다.

대상FNF 종가집은 지난해 날씨 경영 인증을 받고 후보로 등록한 첫 해 대상에 선정됐다. '기상정보를 활용해 농산물 재배계획 수립을 통한 원가절감 및 품질관리' 부문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건섭 대상FNF 경영지원본부장은 "기상정보를 활용해 마케팅 및 판매전략에 반영하는 것은 농산물 등의 원재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기업에 있어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기상정보 활용을 다방면으로 사업 전반에 적용해 소비자 만족도 및 기업과 제품의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

현대차그룹, 사회적기업 유공 대통령상

4년간 250개 창업팀 지원…1800명 일자리 창출



현대차그룹은 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H-온드림 오디션 5기 수상자들의 모습. 사진제공 현대차

현대자동차그룹은 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현대차그룹이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육성 유공자 포상은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 활동 장려를 위해 마련한 행사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년간 250개의 창업팀 육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1800명의 일자리 창출과 총 41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현대차그룹과 현대차정몽구재단의 대표적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프로젝트인 'H-온드림 오디션'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매년 30개 팀씩 150개 팀을 선발해 체계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 혁신을 이끄는 청년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희진 기자 heejin@

삼계탕 中수출 공로…윤미정 팀장, aT 첫 여성부장에

임축산물 신규품목 발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올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여성 부장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aT는 이번 인사에서 윤미정〈사진〉 임축산수출TF팀장을 부장(2급)으로 승진 발령했다.

윤미정 팀장은 올해 신설된 임축산수출TF팀장을 맡아 중국 삼계탕 수출과 한우 수출 활성화, 동물용 의약품 수출 사업 및 국산 깐은행 등 신규 수출품목 발굴 등을 통해 임축산물 수출 증대에 기여해 왔다.

aT는 지난 4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2016 대한민국 여성인재경영대상'에서 김재수 사장이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여성인력 발탁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정필 기자 roman@





윤재호 감독의 영화 '마담 B'(왼쪽)와 김종관 감독의 영화 '최악의 하루' 스틸컷.

윤재호 감독 모스크바영화제 작품상
김종관 감독 국제비평가연맹상 수상

세계 4대 국제영화제 중 하나로 꼽히는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윤재호·김종관 감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38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주최 측은 영화제 폐막일인 30일(현지시간) 윤재호 감독의 '마담 B'가 기록영화 부문 최고작품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 자체 심사위원단을 파견한 국제영화비평가연맹(FIPRESCI)은 김종관 감독의 장편 드라마 '최악의 하루'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김종관 감독의 '최악의 하루'는 늘 최선을 다하지만 최악이 돼버린 그녀와 세 남자의 늦여름 하루의 데이트를 그린 작품이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이세돌·김장훈 독도 나눔대국…1500만원 기부



지난달 30일 독도에서 열린 '제1회 독도나눔배 특별대국'. 바둑 역사상 독도에서 처음 열린 이번 대국에서 이세돌, 장혜연 조는 김장훈,이슬아 조를 맞아 불계승을 거뒀다. 사진제공 한국기원

이세돌 9단이 '독도나눔배 특별대국'에서 가수 김장훈에게 불계승을 거뒀다.

이세돌 9단과 김장훈이 주도한 '독도나눔배 특별대국'은 지난달 30일 독도 망향대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기원 홍보대사인 김장훈이 이세돌 9단에게 바둑 보급과 나눔을 위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관광지 독도에서 대국하자고 제안하며 성사됐다.

이세돌·장혜연 팀은 이날 대국에서 2시간 20분, 202수 만에 김장훈·이슬아 팀을 제압했다. 당초 약속에 따라 패한 쪽이 1000만 원, 승리 팀이 500만 원의 자선기금을 내놓기로 했고 여기에 후원금을 더해 기부하게 된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코트라 '서비스 자문단' 해외 지원정책 홍보

전국 261개 中企 임직원으로 구성

코트라(KOTRA)의 수출 지원 서비스 개선을 조언하는 자문단이 전국 261개 중소기업 임직원으로 새롭게 구성됐다.

코트라는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자문단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자문단은 전국 261개 중소기업 임직원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트라 등 유관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도 맡는다. 코트라는 회의에서 자문단에 소속된 중소기업의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코트라는 이날 39개 협력사와 '동반성장 파트너십 선포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협력 분야에 인쇄를 추가하고, 5대 중점 지원모델(교육, 홍보, 컨설팅, 마케팅, 제도개선)을 선정했다.

안철우 기자 acw@

인사

◆**기획재정부** △운영지원과장 이호모 △협동조합정책과장 강장원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3급 전보** △재정기획담당관 정현철 △국제사업과장 김홍재 △보험자산운용과장 김도균 △서울중앙우체국장 김재목 △서울강남우체국장 임정수 ◇**4급 전보**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도병균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기반과장 정원주 △우정사업정보센터 예금정보과장 오광수 △서울마포우체국장 김평석 △서울은평우체국장 백형국 △여의도우체국장 이재찬 △서울양천우체국장 강연중 △서울강서우체국장 정연석 △서울중랑우체국장 김용모 △국제우편물류센터장 강승호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윤순상 △경인지방우정청 금융사업국장 강영철 △서인천우체국장 이태근 △의정부우체국장 최석봉 △수원우체국장 유해수 △서수원우체국장 이육현 △안양우체국장 고용석 △군포우체국장 박노직 △성남우체국장 우상익 △성남분당우체국장 정순덕 △부천우체국장 김동혁 △고양일산우체국장 윤선혁 △고양덕양우체국장 조병호 △시흥우체국장 이광해 △용인수지우체국장 이재현 △용인우체국장 김곤배 △남양주우체국장 조병화 △평택우체국장 김승만 △이천우체국장 마재욱 △구리우체국장 이상만 △파주우체국장 송영식 △김포우체국장 김광호 △안성우체국장 이혜림 △경기광주우체국장 신동희 △부산우체국장 박경호 △동래우체국장 오후기 △진주우체국장 최원봉 △부산우편집중국장 황국선 △거제우체국장 정재범 △부산영도우체국장 심정보 △충청지방우정청 예금영업과장 권혁운 △동천안우체국장 임성민 △청주우체국장 이상명 △서청주우체국장 손충환 △전남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강명구 △전남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황수연 △전남지방우정청 예금영업과장 진수동 △광주광산우체국장 박호열 △목포우체국장 유완근 △순천우체국장 김병환 △광양우체국장 윤병기 △경북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석원근 △경북지방우정청 예금영업과장 이상희 △포항우체국장 조현진 △안동우체국장 김원봉 △경산우체국장 오일태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박찬우 △춘천우체국장 송혁호 △강릉우체국장 이용춘 △동해우체국장 최명철 △제주우체국장 김한준

◆**법무부** ◇**고위공무원** 〈**전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손홍기 〈**승진**〉 △정책기획관 김태복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급** △교정본부장 김학성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박정렬 △콘텐츠정책관 최병구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 이진식 △미래창조과학부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문화창조융합본부 부단장(파견) 최보근

◆**고용노동부** △장관실 정책비서관 홍경의 △노동시장분석과장 양현수 △직업능력평가과장 이민재△서울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김연식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장현석 △중부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김호현 △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소장 김효순△부산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 유재식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박정웅 ◇**서기관 승진** △홍보기획팀 이후송△감사담당관실 손성길△외국인력담당관실 김선재 △청년고용기획과 이준호 △직업능력정책과 이종구 △일학습병행정책과 손재형 정병팔 △노사협력정책과 최윤미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연△고용차별개선과 유해종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김태은 △산업안전과 허서혁 △산업보건과 전하준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백승근

◆**금융위원회** ◇**실·국장급** 〈**임명**〉 △상임위원 손병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이병래 △금융정보분석원장 유광열 〈**전보**〉 △금융정책국장 도규상

◆**원자력안전위원회** ◇**서기관 승진** △안전정책과 장현아 △원자력안전과 주호성 △방사선안전과 유광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장 홍진환

◆**관세청** ◇**과장급(일반임기제) 임용** △대변인 하현길 ◇**과장급 전보** △중앙관세분석소장 윤동규 ◇**기술서기관 승진**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장 김종명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 이상훈

◆**특허청** 〈**전보**〉 ◇ **부이사관** △특허심판원 심판관 오재윤 ◇ **과장급** △국제상표출원심사팀장 정덕배 △에너지심사과장 손창호 〈**승진**〉 ◇**과장급** △정보관리과장 한규동 △주거기반심사과장 권호영 △특허심판원 심판관 박성우 △특허심판원 심판관 정재훈 ◇**서기관** △대변인실 배재현 △감사담당관실 박노익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복상문 △디자인심사과 배흥선

◆**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승진** △지진화산관리관 김남욱 ◇**3급 전보** △예보정책과장 정관영 ◇**3급 승진** △감사담당관 안용모 △관측정책과장 이정환 △대전지방기상청장 서장원 △국가기상위성센터장 박훈 ◇**4급 전보** △연구개발담당관 이은정 △총괄예보관 김동준 박영연 △방재기상팀장 김희수 △국가태풍센터장 전영신 △기후정책과장 권오웅 △기후변화감시과장 신동현 △국립기상과학원 수치모델개발과장 나득균 △부산기상청 관측과장 한성의 △부산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이희서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장 장재동

◆**서울시** ◇**3급 이상** △평생교육정책관 김용복 △복지본부장 직무대리 장경환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 천석현 △시의회 사무처장 김경호 △서울시립대 행정처장 양인승 △민생사법경찰단장 김용남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직무대리 성은희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직무대리 한영희 △복지본부 복지기획관 직무대리 엄의식 △국회사무처 파견 근무 강석원 △은평구 부구청장 신용목 △광진구 부구청장 백호 ◇**4급 행정직** △감사담당관 강희은 △조직담당관 심상원 △예산담당관 이동률 △재정관리담당관 박범 △정보기획담당관 이기완 △민생수사1반장 김영기 △소상공인지원과장 곽종빈 △문화융합경제과장 장영민 △디지털산업과장 박태주 △민생경제과장 천명철 △복지정책과장 신종우 △지하철혁신추진반장 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정상훈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승복 △총무과장 정상택 △자산관리과장 김두성 △관광정책과장 김재용 △관광사업과장 오제성 △체육진흥과장 이구석 △북부수도사업소장 박철규 △강남수도사업소장 차장운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 최규해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홍순길 △서대문구기봉호 △민관협력담당관 직무대리 장화영 △시민봉사담당관 직무대리 전재선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직무대리 권순기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동수 △자전거정책과장 직무대리 김성영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윤식 △공기업담당관 박진영 ◇**4급 기술직** △대기관리과장 이인근 △기후환경자원순환과장 최홍식 △도시공간개선반장 안재혁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서부도로사업소장 한동근 △북부도로사업소장 신응수 △강서도로사업소장 김용제 △시설계획과장 조남준 △공원조성과장 최현실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정흥순 △도시철도계획부장 권영찬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임정규 △성동구 문인식 △동대문구 한유석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성락 △자연생태과장 직무대리 유영봉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 직무대리 문길동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장 직무대리 손흥락 △생활권계획추진반장 직무대리 정제호 △서북권사업과장 직무대리 차창훈 △도시철도사업부장 직무대리 박동룡 △용산구 정대현 △서대문구 이경우 △서초구 하현석 △한옥조성과장 직무대리 진조평 △건축부장 직무대리 김진용 △마포구 하용준 △서초구 박내규 △구로구 남궁용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지방소방준감 승진** △소방행정과장 김선영 △안전지원과장 김송연 ◇**지방소방준감 전보**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 이성묵 ◇**지방소방정 승진** △현장대응단장 정재후 △종합상황실장 김성회 △119특수구조단장 민춘기 ◇**지방소방정 전보**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현진수 ◇**소방서장** △중부 이동선 △동대문 이영우 △서초 김재학 △강동 권혁민 △도봉 김형철 △구로 장현태 △송파 박근종 △동작 박찬호 △서대문 서순탁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 김명서 △심의위원 서배원

부음

▲**손상용**(부산시의회 부의장)씨 부친상 = 30일, 부산 한중프라임장례식장, 발인 2일 오전 8시 30분, 051-305-4000

▲**조진희**(한화생명 경인지역본부장)씨 장인상 = 30일, 전북 정읍 정다운장례식장, 발인 2일 오전 10시, 063-532-4441

▲**이순호**씨 별세, **마영관**(SC제일은행 이사)·**영애**(인천 마장초 교장)·**영현**(서인천고 교사)·**영미**씨 모친상, **박종덕**(세바 RNC 부회장)·**백민기**(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 부교수)씨 장모상, **정윤경**(제론웨이브 상무이사)씨 시어머니상 =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일 오전 7시, 02-3410-6920

▲**유종명**(전 송원산업 부회장)씨 별세, **강영수**(화가)씨 남편상, **유석하**(NAD 건축 대표이사)·**미하**(위니컴 대표)·**승하**(만화가)·**은하**(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관)씨 부친상, **이진수**(전 한국 IBM 홍보실장)·**최호철**(청강대 교수)·**서영욱**(충남대 연구교수)씨 장인상, **권혜영**씨 시아버지상 = 3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일 오전 6시 30분, 02-3410-6915

연재소설

한만수 作 사유진 畵

서울 25시, 夜

제2화 그녀는 분식회계 중 ①

유성홀딩스에 다니는 이혜진, 이름만 예쁜 것이 아니다. 총각 직원들 몇 명이 이혜진이 영화배우 김태희보다 예쁘다, 이혜진이 예쁘기는 하지만 김태희보다는 덜 예쁘다. 내기를 했다. 유부남인 과장까지 합세해 김태희가 행사를 하는 백화점에 찾아갔다.

"그 봐, 김태희는 화장발이라구."

"야! 이혜진은 화장 안 하냐?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내가 판단을 해 주지. 이혜진은 순수 미인이 틀림없어. 김태희보다 한 등급 위라고 할 수 있지."

황금 같은 연휴, 그것도 가운데 날이다. 직원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김태희를 보고 왔다는 소문은 유성홀딩스 안에서 뉴스가 되기에 충분했다.

"혜진이, 얼굴 재개발한 거 같지 않니?"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증거가 없잖아."

총각 직원은 물론 유부남 과장까지 가세해서 이혜진을 여신으로 모시니까 여직원들의 눈에 쌍심지가 돋는 건 당연하다. 나름대로는 부서에서 예쁘다는 말을 듣는 여직원들이다. 그녀들이 화장실에서 이를 바드득 갈아도 그때뿐이다. 어

"아니, 배탈 났는데 죽은 어떻게 먹어?"

"얘 좀 봐. 이혜진이 직접 제 돈으로 사다 준 죽인데 안 먹어? 독약이라도 먹었을 거야."

"하긴, 우리 회사 남자들이라면 이혜진 광팬이지. 총각 직원들부터 정년퇴직이 내일모레인 부장님까지 이혜진이라면 깜박 죽잖아."

"남자들은 원래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한눈 판다잖아."

"하여튼 무슨 수를 내든지 해야지. 그년 하나가 유성홀딩스 여직원 전체를 나쁜 년으로 만들고 있어."

여직원들은 이혜진이 안 보이는 데서는 사흘 동안 밤낮으로 뒷말할 수 있을 정도로 혀를 놀렸다.

"어머, 이 옷 신상이니? 어디서 샀어? 정말 어울린다 얘."

"오늘 좋은 일 있어? 어제보다 더 예쁜데?"

정작 눈앞에서는 꼬랑지를 착 내리고 알랑방귀 뀌느라 입과 손이 바쁘기 일쑤다.

유성홀딩스 모든 여직원에게는 질투의 대상이자, 부러움의 대상이며, 친구 하고 싶어도 쪽팔릴까 봐 친구할 수가 없지만 남자 직원들 또한 말 못하는 애환이 많았다.

이혜진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순수하고, 너무 고고하니까 쉽게 접근을 할 수 없었다.

백 명에 하위급 50%는 100% 송중기 같은 애



쨌든 예쁜 것은 사실이니까.

김태희 같은 얼굴에 김혜수 같은 몸매는 불가항력이라고 쳐. 정작 여직원들이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트리다 못해 끼리끼리 모여 횟술을 마시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어머 이를 어째. 제가, 제가 주워 드릴게요."

남자 직원들의 책상에서 어쩌다 서류나 파일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는 수가 있다. 이혜진은 자기 일처럼 얼른 주워서 책상 위에 얌전히 놓았다. 복사를 하고 있는데 남자 직원들이 복사할 서류를 들고 있으면 바로 양보해 주는 것은 기본이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먼저 타시라고 뒤로 물러서서 얼굴이 뜨겁도록 뿌듯하게 만들고, 자판기에서 음료 빼고 있는데 남자 직원들이 오면 제 돈으로 빼줘서 온종일 황홀하게 만들고, 회식 자리에서 맛있는 반찬을 남자 직원들 앞으로 옮겨줘서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은 예사다.

"허! 아니, 혜진이 걔는 밸도 없는 애니? 요즘 누가 회식 자리에서 반찬 시중을 들어?"

"그건 약과야. 글쎄 이 대리님이 서류 넘기다 종이에 손가락을 벴잖아. 눈물을 글썽이며 대일밴드로 감싸주더라니까."

"어머머! 걔 드디어 미쳤나 봐. 혹시 이 대리님 좋아하는 거 아니니? 이 대리님 지금 허니문이잖아?"

"그건 아닌가 봐. 김광석 씨가 배탈이 나서 점심을 못 먹었거든. 글쎄 그 여시 같은 년이 본죽에서 죽을 사다가 바치더라니까."

인이 있다고 굳게 믿었고 투자 자체를 포기했다. 중위급 30%는 괜히 잘못 대시해서 부도를 내느니 기회를 노리자는 관망세를 보였다. 중상위 15%는 이혜진이 약세를 보일 때 재빠르게 베팅할 기회를 노렸다. 상위급 5%는 수시로 전화를 하고, 생일선물을 집으로 보내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온갖 화려한 멘트를 던지며 계속 투자를 했다.

이쯤에서 이혜진에 대한 분석을 해 보자. 그녀는 원래 본바탕이 착했다. 안경 쓴 아이만 봐도 콧잔등이 시큰거릴 만큼 동정심도 많은 편이다. 내성적인 성격이라 먼저 친구하자고 덤벼드는 일이 없어 도도하게 보일 뿐이다.

또, 남자들이 특별하게 대해주는 것에도 감동받지 않는 점은 어렸을 때부터 단련이 되어 있던 까닭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유치원 다닐 때부터 남자들에게 선물을 받았다. 남자들은 원래 선물을 잘 하는 족속이라서 아무 여자들에게나 수시로 선물을 한다는 것. 자신은 그중 한 여자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녀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위장 전술을 쓰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다. 오히려 매수자들이 그녀의 참면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실수다. 대부분의 매수자는 기업의 외형만 보고 매수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매수자들의 실수라고 볼 수도 없다.

이혜진은 여직원은 물론이고 남자 직원들 사이에서 초우량주로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다. 사장실 비서로 발탁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돈과 가치는 같은 게 아니랍니다"

할리우드 통신



박 흥 진
영화평론가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 회원

5월 13일 개봉한 스릴러 드라마 '머니 몬스터'(Money Monster)의 감독 조디 포스터를 최근 비벌리힐스의 포시즌스호텔에서 인터뷰했다. 영화는 TV의 투자전문 쇼 호스트인 리 게이츠(조지 클루니)의 조언에 따라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청년 카일 버드웰이 방송사에 난입, 생방송 중인 게이츠를 인질로 잡고 난동을 부리는 얘기로, 쇼의 제작자로 줄리아 로버츠가 나온다.

여고생 스타일의 포스터는 똑소리 날 것처럼 총명했는데 매우 차가운 인상이었으나 질문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차분하고 진지하게 대답했다. 작고 가는 참새를 연상케 하는 포스터는 인터뷰 후 필자와 사진을 찍을 때 필자가 한국인이라고 소개하자 "내 영화 제작에 한국인들이 여러 명 참여했다"며 미소를 지었다. 가까이에서 얼굴을 들여다보니 멀리서 보는 것과 달리 주름살이 많았다.

△이 영화는 어떻게 만들었나.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모험이었다. 만드는 데 4년이나 걸렸다. 조지(클루니)가 각본을 읽고 출연을 결정한 뒤로는 만사가 빨리 진행됐다. 여러 개의 얘기를 내포한, 지적으로 도전적인 작품이다."

△요즘의 돈과 인간과의 관계가 당신이 젊었을 때와 달라졌다고 보는가.

"이 영화에서 돈은 하나의 아이디어요, 유령과도 같은 것이다. 돈과 가치는 같은 게 아닌 데도 사람들은 둘을 같이 취급한다. 나는 이만큼 돈이 있으니 가치가 있고 또 나는 이런 차를 가지고 있으니 가치가 있다고들 생각한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해 걱정해야 했다. 우리 집의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돈은 좋은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모든 과목에 A를 맞아야 했고 직업에 있어서도 최고가 돼야 했다. 돈이란 이렇게 동기가 될 수 있으나 늘 공허한 것이다."

△요즘에도 돈에 대해 걱정하는가.

"아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덜 걱정하게 된다."

△지난해 리어나르도 디캐프리오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젊었을 때 가장 강렬한 영향을 받은 영화로 당신이 미성년 윤락녀로 나온 '택시 운전사'를 꼽았는데, 그 영화가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그와 같은 미국의 고전에 참여했다는 것은 큰 행운이다. 영화가 만들어진 1970년대는 미국 영화계의 황금기였다. 난 그 시기의 영화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 당시 활약한 시드니 루멧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감독이다. 내 영화도 루멧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돈을 가졌다가 잃는 것과 아예 갖지 못하고 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못한 것이라고 보는가.

"이 영화는 자본주의에 대한 고발이나 기소가 아니다. 나는 그 체제를 믿는다. 문제는 그것을 과용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도박을 할 때 25센트에서 시작해 3달러를 만들었다가 다시 잃고 본전이 됐는데도 손해를 봤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돈을 외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만이 월 스트릿을 비판하는데 이에 대



'머니 몬스터' 감독 조디 포스터
"이 영화는 자본주의 고발 아냐 나도 그 체제를 믿는다, 다만 그것을 과용한다는 것이 문제"

한 생각은.

"난 정치 얘기를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후보들의 토론을 보면 정치와 재정과 연예가 모두 한 덩어리가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내 영화와 같은 얘기다. 난 내 아들이 정치에 관여하려 해서 염려스럽다. 이번 선거가 젊은이들의 관심을 유발한다면 좋은 일이다."

△평소 수집하는 물품이 있나.

"그림과 사진을 좋아한다. 내 집이 무너진다면 그것부터 먼저 건질 것이다. 그러나 난 소유욕이 별로 없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 그렇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지만 쾌적한 집이면 된다.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유를 의미한다. 그런데 난 맛있는 음식을 정말로 좋아해 아무리 비싸도 좋아하는 음식은 사 먹는다."

△그동안 살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 그리고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랑스러운 것은 '택시운전사'처럼 1970년대 영화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내가 처음으로 감독한 '리틀 맨 테이트'다. 불완전하지만 내가 100% 느끼는 것을 화면에 올린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다. 후회할 일은 별로 없는데 있다면 내 경력과 흥행 위주로 출연작을 선택한 것이다. 다시는 그런 선택을 안 할 것이다."

△영화계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남녀 간에 봉급을 비롯해 아직도 차별이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영화계에 여성 감독이 별로 없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유럽과 다른 곳, 그리고 TV에서는 진전이 있으나 유독 할리우드의 주류 영화계만이 남성 위주다. 그러나 이것도 서서히 변하고 있다. 남녀 고용에 관한 통계나 배분율을 더 이상 보지 않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예술은 결코 그런 것들에 의해 통제될 수 없는 것이다."

△유럽에서 오래 살았는데 미국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미국에는 귀족체제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다 자기를 재창조해야 한다. 자신의 가치를 자손에게 물려줄 수가 없으니 케네디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면 이렇게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돈을 번다는 것으로 우리 문화의 전체적 가치는 금전적 가치를 둘러싸고 돌아가고 있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은 무엇인가. 그중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머니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로부터 배운 것은 내가 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 묻는 윤리의식이다. 그리고 가족을 버리지 않고 단단히 결합한다는 것이다."

블로그: hjpark1230.blogspot.com



영화 '머니 몬스터'



'택시 드라이버'의 열두살 창녀, 이젠 할리우드서 가장 지적인 배우이자 감독

배우, 감독, 제작자로 활약하고 있는 조디 포스터(53)는 세 살 때 광고모델로 시작해 2년 뒤 TV에 데뷔, 이어 영화의 아역을 거쳐 성인 배우로 성공한 자기 세대 중 가장 유명한 스타 중 하나다. 포스터를 대뜸 스타의 위치에 올려놓은 영화는 마틴 스코르세지가 감독하고 로버트 드 니로가 주연한 '택시 드라이버'(1976). 여기서 포스터는 맨해튼의 열두 살 창녀〈사진〉로 나와 오스카 조연상 후보에 올랐다.

이 영화를 보고 포스터에 푹 빠진 존 힝클리가 포스터가 예일대 1학년일 때인 1981년, 포스터에게 짙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당시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을 저격했다.

포스터는 '피고인'(1988)과 '양들의 침묵'(1991)으로 오스카 주연상을 탔고 이어 제작사 에그픽처스를 설립, '넬' 등의 영화를 제작했으나 2000년 초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영화사는 문을 닫았다. 포스터는 현재 감독활동에 주력하고 있는데, 2013년 필자가 속한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HFPA)가 주는 생애업적상 세실 B. 드밀상 수상 소감에서 동성애자임을 밝혔다. 2014년 배우이자 사진작가인 알렉산드라 헤디슨과 결혼한 포스터는 전 애인과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OVER STORY 손주 병법, 꽃보다 손주로 살맛 나는 사람들
PART1. 육아 일기 쓰는 할아버지 〈하씨의 육아일기〉 저자 이창식
PART2. 문화가 변해도 손주 돌봄은 역시 격려와 인정이 최고 장영희 동년기자
PART3. 대한민국 조부모의 손주 병법
PART4. '초등학생 서베이' 할아버지·할머니 우리 함께 놀아요!
PART5. 신종플루는 아니었지만 되살아난 내 보물 손녀 백외섭 동년기자
PART6. 미국 할아버지·할머니의 손주 병법 남진우 뉴욕 주재기자
PART7. 일본 할아버지·할머니의 '똑똑한' 손주 사랑법 이태문 동경 통신원

브라보가 만난 사람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산다" '풀꽃'시인 나태주
"시니어를 위한 연극은 있다!" 연극연출가 이윤택
'죽음'이 알려주는 삶의 가치와 행복 법의학자 문국진 박사

7월의 맛 닭다리 잡고, 무더위도 잡자
초복부터 말복까지를 더위가 가장 심한 때라 하여 '삼복 더위'라고 한다. 예로부터 복날이면 여름내 지친 몸과 기운을 달래기 위해 보양식을 챙겨 먹었다. 해마다 먹던 삼계탕과 백숙이 진부하게 느껴진다면 이번 복날엔 조금 특별한 곳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색다른 건강식과 옛 물건들이 가득한 '솔모랭이'를 소개한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임철순의 **즐거운 세상**

다모토리로 쭈욱 한 잔!

큰일 났다. 매일 술 퍼마시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 사람들보다 위암에 걸릴 위험성이 3.5배 높다고 한다. 특히 한자리에서 20도짜리 소주를 한 병 이상 마시면 위암 위험이 3.3배 높아진다.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수경, 유근영 교수팀이 1993년부터 2004년까지 1만8863명을 대상으로 평균 8.4년간 위암 위험도를 추적 관찰한 결과다. 조사대상이 많고 기간도 긴 편이니 신뢰할 만한 조사인 것 같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3월 21일 암 예방의 날에 음주수칙을 바꿔버렸다. 종전엔 '술은 하루 두 잔 이내로만 마시기'라고 살살 달래더니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돌변했다. 지속적인 소량 음주도 암 발생을 높일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음주단속'에 나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술 끊어!"다.



EU(유럽연합)는 우리보다 2년 앞서 '남자 두 잔·여자 한 잔 이내'에서 '음주하지 말 것'으로 수칙을 고쳤다고 한다. 남자가 여자보다 술이 더 세다고 믿을 근거가 있나?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판단하건대 EU의 이번 조치는 성차별적 수칙을 바로잡은 게 아닌가 싶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좀 좋아? 한자리에서 소주 한 병 이상 마시면 암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하자 한자리에서 마시지 말고 두 자리 세 자리로 옮겨 다니며 마시자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아니, 내가 잘 말하는 식으로 하면 '흥론이 불등'하고 있다. 輿論(여론)과 興論(흥론), 沸騰(비등)과 拂騰(불등)은 한자가 비슷해서 흔히 이렇게 말한다.

한 잔만 마시는 것도 말이 참 어렵다. "술 한잔 하자"고 하면 붙여 쓰지만 마시는 잔을 세려면 한 잔이라고 써야 되니 우리말은 술 마시면서도 띄어쓰기를 생각해야 한다. 한 잔도 한 잔 나름이다. 작은 소주잔도 한 잔, 다모토리도 한 잔이다. 다모토리는 사전에 '큰 잔으로 소주를 마시는 일 또는 큰 잔으로 소주를 파는 집'이라고 나와 있다.

조선 성종 때의 저명한 술꾼 손순효(孫舜孝·1427~1497)는 유명한 일화를 남겼다. 성종이 건강을 염려해 은 술잔을 하사하며 "이걸로 매일 한 잔씩만 마시구려" 했더니 사람을 시켜 술잔을 대접처럼 넓게 펴서 독한 술을 한가득 부어 마시곤 했다고 한다. 다모토리로 마신 것이다.

그런데 술꾼들은 왜 그렇게 매일 마시려 할까.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런던 정경대가 '술을 마시면 행복해진다'는 속설을 수치로 입증했다고 보도했다. 맵피니스라는 모바일 앱을 이용한 설문조사에서 사용자들에게 하루에 몇 번씩 "지금 뭐 해? 지금 느끼는 행복 수준을 1에서 100점까지 점수로 매긴다면?" 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3년간 3만여 명으로부터 200만 개의 답변을 받아 행복지수를 도출해 보니 술을 마시면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행복지수가 무려 10.79점이나 증가했다! 술 마시면서 축구 경기를 보는 것과 같은 다른 행동을 제외하고 술 마시는 것 자체만 수치화해도 4점 정도가 올라갔다. 음주가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를 이제 알겠지?

그러나 언제까지나 술독에 빠져 살 수는 없는 법. 장기적으로는 출구전략을 짜는 게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요즘 브렉시트로 연일 시끄러운데 알코올엑시트(이게 아닌가? 알코올렉시트라고 써야 하나?)도 중요한 일이다.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fusedtree@

貨殖具案 화식구안



하 태 형
전 현대경제연구원장

브렉시트는 끝났는가

연일 세계를 뒤흔들던 브렉시트의 여파가 잦아지고 있다. 6월 3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99포인트(0.72%) 올라 브렉시트 낙폭의 73%를 회복하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 브렉시트 충격의 64% 정도를 회복했고 심지어 브렉시트의 진앙지인 영국 증시는 브렉시트 충격의 낙폭을 완전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3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파운드 값은 여전히 브렉시트 전보다 10% 이상 낮은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다.

그러면 브렉시트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인가? 그렇게 결론 내리기엔 너무 이르다. 먼저,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목요일을 포함한 이번 주 세계 증시의 회복세는 일정 부분 소위 '윈도 드레싱'이라 불리는 상반기 종가 관리에 힘입은 바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작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부분은 세계 채권시장 동향이다. 세계 채권시장, 특히 국채시장은 브렉시트 이후 연일 몰려드는 자금으로 수익률의 저점이 계속 경신되는 초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6월 29일 역사상 최저점인 2.223%를 기록하였고 독일의 10년 만기 Bund나 영국의 Gilt 모두 브렉시트 이후 최저점 가까운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수익률이 낮은데도 연일 돈이 국채시장으로 몰려드는 현상은 투자자들이 투자 후 밤잠을 편히 자고 싶어 하는 'Flight-to-Quality', 즉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브렉시트가 끝나기는 요원하다고 채권시장이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최근의 주식시장 회복세는 지속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왜 그러한가? 우선 브렉시트의 심각성은 한마디로 불확실성으로, 문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만큼 발생될지 전혀 예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브렉시트는 단순히 EU의 경제규모를 '28-1'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 브렉시트의 가장 주된 이유로 꼽히는 이민 및 난민 수용문제, 그로 인한 테러위협 증대 등의 문제는 사실 모든 회원국에 공통되는 문제로 영국과 EU 간의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제2, 제3의 탈퇴를 추진할 국가들이 나올 불확실성이 엄존한다.

이뿐인가?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추진이란 불확실성 외에도 EU 역사상 최초의 회원국 탈퇴를 규정한 EU조약 '50조'를 발동하게 됨에 따라 협상 결과에 의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영국은 유럽 내 금융산업을 주도하는 나라이다. 영국의 금융산업은 전 세계 유로화 거래의 45%, EU 내 헤지펀드 자산의 85%, 외환거래의 85%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EU 내 금융서비스산업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영국 내 금융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금융계 불확실성이 증대될 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EU의 과도한 금융규제가 영국의 금융산업 발달을 가로막고 있다는 견해도 있어 왔으므로, EU의 금융규제에서 벗어나 영국의 독자적 금융산업 발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조지 소로스의 헤안이 화제가 되고 있다. SEC(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한 1분기 보고서에서 그는 이미 7년 이상 계속된 주가 상승이 끝났다고 보고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었다. 소로스는 미국 주식 비중을 작년 말에 비해 37% 축소하면서 미국의 대표적 주가지수인 S&P500이 하락하면 이익을 보는 풋옵션 상품 비중을 2배로 늘렸고, 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었다. 또 브렉시트가 결정된 6월 24일, 도이체방크 주식 700만 주에 대해 매도 포지션을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적 헤지펀드의 대가 또한 브렉시트의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오늘의 인물 7월 1일
호러스 언더우드

"해방의 날 올 것" 연세대 설립한 미국인 장로교 선교사

"호러스 언더우드(1859.7.1~1916.10.12)가 이룬 모든 업적은 오롯이 한국에 대한 그의 지극한 사랑에서 비롯됐다." 그를 절절하게 사모했고, 한없이 존경했던 부인 릴리어스 언더우드는 저서 '언더우드-조선에 온 첫 번째 선교사와 한국 개신교의 시작 이야기'에서 남편을 이렇게 평가했다.

호러스 언더우드가 한국어 이름(원두우)을 짓고 한국이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했던 교육사업(연세대 설립)에 진력한 것만 봐도 부인의 평가엔 전혀 과장이 없다. 그는 원래 영국 런던 출신이지만 13세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갔다. 뉴욕대와 뉴브런스위크교회 신학교에서 수학하고 장로교 목사가 되었다. 그는 인도적 선교를 결심하고 의학 공부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1884년 7월 28일 장로교 선교사로 뽑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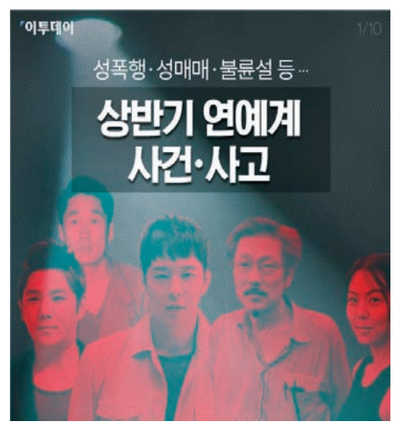
하지만 당시 조선은 갑신정변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일본에 체류하면서 한국어에 매달렸다. 1885년 부활주일인 4월 5일 그는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을 밟았다. 당시 조선 정부가 선교활동을 불허했기 때문에 그는 일단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 제중원(濟衆院)에서 물리와 화학을 강의했다. 제중원 시절 영어로 된 '조선어 문법'도 발간했다.

이후 선교가 허용되자 1887년 조선 최초의 장로교 교회인 정동교회(현재 새문안교회)를 설립했다. 이어 1900년에는 개신교 양평동교회를 만들었다. 북한 지역도 세 차례 방문해 기독교를 알렸다. 교육사업에도 힘써 예수교학당, 서울구세학당, 연희전문학교(현재 연세대)를 설립했다. 피어선기념성경학원(현재 평택대학교)에선 교장도 지냈다.

그는 조선의 해방을 마음 깊이 바란 선교사였다. "참고 견딘다면 해방의 날이 올 것"이라고 라디오방송 연설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일제는 그를 반일 인사로 간주했다.

이은호 미래설계연구원 연구위원 leeeunho7@

카드로 보는 세상



어느새 2016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올해 연예계는 각종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지며 몸살을 앓았는데요. '그림 대작' 논란에서부터 자살까지 충격적인 사건들이었죠. 잊을 만하면 나오는 연예인 음주운전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 여배우와 감독의 불륜설도 있었고요. 성추행, 성매매, 성폭행 피소 등 성(性) 관련 스캔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 상반기 ★들의 사건을 짚어봤습니다.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goo.gl/3Rwgi1

온라인 와글와글

미용실 요금 사전에 안내하게…"바가지 요금 사라질까"



앞으로 미용실은 서비스하기 전에 손님에게 요금을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미용업소 가격 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을 만들어 전국 시·도, 시·군·구에 시달했다고 1일 밝혔다. 지침은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지침에 따라 미용업소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최종 지불요금 내역서를 만들어 이용자에게 보이고, 비용을 합의해야 한다. 내역서 형식은 자유롭지만, 최종 결제 금액,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내용(품목)과 품목별 가격, 염색제, 퍼머제, 영양제 등 제품명, 할인율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미용업소는 미용 행위에 따르는 추가 항목까지 포함해 서비스별로 가격이 얼마인지 업소에 게시해야 한다.

네티즌은 "머리카락 길이에 따른 추가 가격이 너무 비싸", "서비스 중 클리닉이나 제품 홍보 부담스러워", "그동안 부르는 게 값이었어", "남자와 여자 가격 차이 너무 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The Sharp 약사 더샵

약사 더샵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분양공고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666-7번지 일원

■ 공급규모 : • 근린생활시설동 13개 호실(지상 2층~지상 3층 13개 호실)
(※ 근린생활시설동 13개 호실은 근린생활시설동 1층에 근생전용 주차장 12대 위치 / 분양면적 미포함)
• 아파트 101동 7개 호실(지상 1층 7개 호실)
(※ 아파트 101동 7개 호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근생전용 주차장 4대 위치 / 분양면적 포함)
• 노유자시설 1개 호실(근린생활시설동 4층에 위치)
(※ 근린생활시설동 1층에 노유자전용 주차장 4대(장애인 1대 포함) 위치 / 분양면적 미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복리시설의 공급)의 규정에 의거 중구 디자인건축과-29517호(2016.06.30)로 입주자 모집신고 수리 통지 득함

■ 중구 디자인건축과-24607호(2016.06.03.)로 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사항)변경을 득하였음.

■ 사용검사 예정일 : 2017년 02월 28일

■ 2016.06.20. 현재 공정률(근린생활시설 포함 아파트 전체) : 58.90%

■ 공급면적 및 최저분양가격 〈단위 : ㎡, 원〉

용도	동	호	분양면적 전용면적	분양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주차장	분양면적 합계	대지지분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건축비)	최저분양가격 (부가가치세 포함)
근린생활시설동	2층	201	42.4600	16.8148	–	59.2748	17.7149	47,700,000	85,900,000	8,590,000	142,190,000
		202	32.5730	12.8994	–	45.4724	13.5899	36,600,000	65,900,000	6,590,000	109,090,000
		203	40.5260	16.0489	–	56.5749	16.9080	45,600,000	82,000,000	8,200,000	135,800,000
		204	86.2840	34.1699	–	120.4539	35.9989	97,000,000	174,700,000	17,470,000	289,170,000
		205	87.4590	34.6352	–	122.0942	36.4892	98,300,000	177,000,000	17,700,000	293,000,000
		206	73.8460	29.2442	–	103.0902	30.8096	83,000,000	149,500,000	14,950,000	247,450,000
		207	64.2640	25.4496	–	89.7136	26.8119	72,300,000	130,100,000	13,010,000	215,410,000
	3층	301	75.0320	29.7139	–	104.7459	31.3044	84,400,000	151,900,000	15,190,000	251,490,000
		302	63.4410	25.1237	–	88.5647	26.4685	71,300,000	128,400,000	12,840,000	212,540,000
		303	93.1170	36.8759	–	129.9929	38.8498	104,700,000	188,500,000	18,850,000	312,050,000
		304	85.5050	33.8614	–	119.3664	35.6739	96,100,000	173,100,000	17,310,000	286,510,000
		305	73.8460	29.2442	–	103.0902	30.8096	83,000,000	149,500,000	14,950,000	247,450,000
		306	64.2640	25.4496	–	89.7136	26.8119	72,300,000	130,100,000	13,010,000	215,410,000
	소 계		13개 호실 882.6170	349.5307	–	1,232.1477	368.2405	992,300,000	1,786,600,000	178,660,000	2,957,560,000

용도	동	호	분양면적 전용면적	분양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주차장	분양면적 합계	대지지분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건축비)	최저분양가격 (부가가치세 포함)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101동	101	48.2900	35.4378	10.3818	94.1096	28.1257	75,800,000	432,900,000	43,290,000	551,990,000
	1층	102	70.0600	51.4145	15.0624	136.5369	40.8055	110,000,000	628,100,000	62,810,000	800,910,000
		103	34.9660	25.6599	7.5173	68.1432	20.3653	54,900,000	313,500,000	31,350,000	399,750,000
		104	27.6440	20.2866	5.9431	53.8737	16.1007	43,400,000	247,800,000	24,780,000	315,980,000
		105	19.9470	14.6381	4.2884	38.8735	11.6178	31,300,000	178,800,000	17,880,000	227,980,000
		106	21.0410	15.4410	4.5236	41.0056	12.2550	33,000,000	188,600,000	18,860,000	240,460,000
		107	43.7390	32.0981	9.4034	85.2405	25.4750	68,700,000	392,100,000	39,210,000	500,010,000
	소 계		7개 호실 265.6870	194.9760	57.1200	517.7830	154.7450	417,100,000	2,381,800,000	238,180,000	3,037,080,000

용도	동	호	분양면적 전용면적	분양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주차장	분양면적 합계	대지지분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건축비)	최저분양가격 (부가가치세 포함)
노유자 시설	근린생활시설동	4층 401	669.0790	264.9683	–	934.0473	279.1500	752,300,000	2,054,900,000	205,490,000	3,012,690,000
	노유자 합계	1개 호실	669.0790	264.9683	–	934.0473	279.1500	752,300,000	2,054,900,000	205,490,000	3,012,690,000

※ 근린생활시설 및 노유자시설 대지지분은 전체(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대지지분(802.1355㎡)을 각 호수별 분양면적비율로 분배하여 산정하였음.

■ 시설용도

구 분	시 설 용 도
근린생활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탕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 된 것을 제외), 의원, 탁구장 및 체육도장 등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 제과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종교집회장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규정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동 규정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 업종을 참조 바람. 단,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고시원,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등 아파트 입주민의 생활 및 환경에 위해시설 또는 혐오시설 업종은 제외함
노유자 시설	•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공급방법 및 일정

1. 공급방법 : 근린생활시설동 근생 13개 호실(전체), 아파트 101동 근생 7개 호실(전체), 노유자시설 공개 경쟁입찰
※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호실별로 입찰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동 근생 13개 호실(전체) 또는 아파트 101동 근생 7개 호실(전체)에 대하여 각각 일괄 입찰금액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급일정 및 구비서류

구 분	일시	구비서류	장소
신청접수	2016.07.05.(화) (10:00 ~ 14:00)	• 입찰신청서 (사업주체 소정양식) • 도장 • 주민등록증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찰보증금(입찰예정금액의 10%) 입금확인증 (은행명 : 국민은행 계좌번호: 393301-04-047771 예금주 : (주)생보부동산신탁) • 환불용 통장사본(입찰신청자 명의) • 대리인의 경우 – 대리인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대리인도장	악사 더샵 현장 사무실 주소 : 울산 중구 약사동 604-1번지
개찰	2016.07.05.(화) (15:00 ~ 16:00)	• 입찰신청서(신청접수시 확인필) • 주민등록증	
계약	2016.07.06.(수) (10:00 ~ 15:00)	• 입금확인증(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 입찰신청서(신청접수시 확인필) • 도장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 대리인의 경우 – 대리인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대리인도장	

※ 제반 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낙찰자 결정 방법

1. 최저분양가격 합계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함.
– 근린생활시설동 근생(13개 호실) : 2,957,560,000원 이상 / 아파트 101동 근생(7개 호실) : 3,037,080,000원 이상
노유자시설 : 3,012,690,000원 이상
2. 입찰금액이 최저분양가격 합계 미만일 경우 유찰로 함
3. 동일금액의 최고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즉석에서 해당인에 한하여 추첨으로 결정함.
4. 입찰자가 1인일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최저분양가격 합계 이상이면 유효함.
5. 입찰신청자가 없을 경우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함.
6. 제출된 입찰서는 개찰 전 · 후를 불문하고 취소, 교환 및 변경할 수 없음.
7. 입찰금액은 만원 단위까지만 기재하여야 하며,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함.

■ 낙찰 후 대금납부 시기 및 방법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 부 일	계약시(2016.07.06.)	2016.09.30	입점시(사용검사예정일 2017.02.28.)
금 액	낙찰금액의 20%	낙찰금액의 30%	낙찰금액의 50%
납부 계좌	은행명 : 국민은행	계좌번호 : 393301-04-047771	예금주 : (주)생보부동산신탁

1.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됨
2. 낙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 계약금, 잔금 납부시 입금자란에 반드시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환불일시(낙찰자 제외)
1. 환불일시 : 2016. 07. 05.(화)(입찰 및 개찰일) 이후 10일 이내
2. 환불방법 : 입찰신청자 본인의 환불용 계좌 무통장 입금

■ 입점개시일 : 2017. 02. 28.(화) (구체적인 입점개시일은 추후 통보합니다.)
※ 실 입점일이 입점개시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은 실 입점일에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점지정일은 입점개시일부터 30일 이내로 함.

■ 유의사항
1. 낙찰자는 계약일 마감시각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시행자에 귀속되며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근린생활시설 및 노유자시설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상가관리, 영업 인 · 허가 및 용도변경 등)과 이에 따른 시설 추가사항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3. 학원, 교습소 용도로 개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관할 교육청에서 최소면적, 용도 등의 등록, 인가조건을 확인후 계약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4. 낙찰자는 입점개시 최초일까지 본 상가의 영업 및 제반관리에 필요한 조직(상가 자치관리위원회)을 구성하여야 함.
5. 입점개시 최초일로부터 상가에 대한 제반관리는 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하여야 함.
6. 분양받은 시설은 준공받은 상태대로 인수하여야 하며, 시설의 칸막이, 진열대, 간판, 상하수도, 가스배관, 전기, 냉난방 등 추가되는 시설은 계약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함. (잔금 완납후 개별공사 가능)
7. 분양질서를 해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해당 낙찰을 무효로 함.
8. 용도변경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안에서만 가능하며, 당해 인 · 허가 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9. 계약자는 분양공고, 용도, 현장여건, 분양계약서 등 기타 입찰 및 분양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10. 전기, 수도는 기본 용량만 공급하며, 입찰 및 분양계약 전에 사업주체에 확인하시기 바람.
11. 난방 및 취사를 위한 열원은 LNG(액화천연가스)이며, 기본 가스배관만 설치되므로, 각종 인 · 허가 사항과 내부 배관설치, 계량기 설치 및 가스시설 분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12. 급수요금은 상가 외부에 설치된 주 계량기의 검침에 의해 관할 상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하며, 상가 계약자간의 협의에 의해 상가공용부분에 대한 사용량이 포함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13. 계약체결 이후에도 잔금 완납 이전에는 내부 및 외부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14. 상가 내 별도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15. 분양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 · 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면적 및 지분과 차이가 발생할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 및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정산하지 않음.
16. 상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을 완납한 후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17. 상가는 공동주택 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 요청을 할 수 없음.
18. 근린생활시설동 근생전용주차장 12대의 사용 및 운영은 근린생활시설동 13개 호실 계약자 상호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19. 아파트 지하주차장내 근생전용주차장 4대의 사용 및 운영은 101동 근린생활시설 7개 호실 계약자 상호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20. 유찰 및 입찰무효된 미분양 근린생활시설 및 노유자시설은 사업주체가 필요에 따라 임의 분양하며, 상가 구획(호수 및 면적 조정)도 임의로 조정하여 분양할 수 있음.
21. 토지 소유권 이전은 입점일과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될 수 있음.
22. 홍보용 인쇄물의 도면 및 사진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23. 상가의 간판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24. 상가에 대한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현장 주변의 제반 환경 등은 계약자가 확인하여야 함.
25. 상가 인근에 학교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른 정화구역 내 설치 불가 업종 등의 확인은 계약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26. 영업업종은 법으로 허용된 사용용도 내 업종으로 개점하여야 하고, 입점시 및 입점 후의 업종중복에 대하여 상가계약자 상호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27. 상가운영시 운영자는 입주민과 타상가 운영자 등 타인에게 방해될 시설 변경 또는 운영을 해서는 안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분쟁의 책임은 상가 운영자에게 있음.
28. 102동 1층에 어린이집이 계획 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동 4층 노유자시설(보육시설) 입찰에 참고 하시기 바람.

■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 [본 근린생활시설 및 노유자시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분양보증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단위 : 원)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4,503,665,000	01282016-101-00096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기간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
• 보증사고의 내용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사고일"이라 함은 보증회사가 제1조 제4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함.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광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성립 : 보증회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얻은 때(상기의 경우에는 신고한 때를 말한다)에 유효하게 성립함.
•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하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특별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시스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전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이슈&인물

한국선 '위법성' 없다는 폭스바겐…환경부 '차 교체명령' 빨리 해야

'배출가스 조작' 소송 주도하는

하 종 선 변호사

美선 18조, 한국선 100억
임의설정 부품 금지 조항
차 수입 후라고 주장하지만
대기환경법 근거 인정해야

법무고문·보험사 사장 출신
기업 편에서 소비자 편으로?
과감히 책임지고 털고가는 게
오히려 기업 이롭게 하는 것

미국은 18조 원, 한국은 100억 원.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일으킨 아우디폭스바겐(이하 폭스바겐)이 양국에 차별적인 피해배상 태도를 보이면서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피해에 대해 147억 달러(17조4000억 원)를 배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액 중 최대 금액이다. 반면 한국에서 폭스바겐은 조작과 관련한 위법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책임감을 느끼는 만큼 10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게 고작이다.

국내 폭스바겐 소송에서 4432명의 원고를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 법무실 상임고문과 현대해상화재보험 사장,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을 지낸 기업인이었다. 약 4년 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로펌으로 돌아오면서 '반 기업적' 성향을 갖게 된 것이냐는 물음이 요즘 그에게 따라붙는 이유다.

하 변호사는 오히려 기업에 장기적으로 이로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소송을 맡았다는 반응이다. 미국 법원과 폭스바겐의 합의로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새 국면에 들어선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이투데이는 하 변호사를 만나 이번 사태의 핵심과 전망에 대해 물었다.

美, 즉시 환불조치…韓, 기다리기만

△18조 대 100억. 폭스바겐이 미국에서는 최고 수준의 합의를 진행하고 한국에서는 위법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바로잡을 것이 있다. 18조 원은 미국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 금액일 뿐, 대단히 큰 규모는 아니다.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위자료 규모가 나오면 몇 조 원씩 더 추가될 수 있다. 폭스바겐은 한국에서 그 합리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주행 상태에서 끄거나 저하시키는 임의설정 장치가 위법하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된 같은 EA189엔진을 사용한 차량인데도 미국에서는 임의설정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못 한다는 논리가 무엇인가.

"폭스바겐 측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법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임의설정 부품을 금지하는 규정이 국내에서는 폭스바겐 차량이 수입된 이후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법령도 시행령도 아닌 고시에 불과하다. 원칙 조항인 대기환경법 제46조와 제48조는 해당 차량이 수입되기 훨씬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임의설정을 인정해야 한다. 폭스바겐이 대놓고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태는 본질적으로 미국 환경당국과 국내 환경부의 문제 인식 차이에서 기인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법무부, 캘리포니아대기자원위원회(CARB) 등 관계 당국은 문제가 된 부품 리콜(결함 수리)로 사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빠르게 환불 조치를 내렸다. 기준치의 40배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뿜고 다니는 문제 차량을 하루빨리 길거리에서 없애겠다는 절박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환경부는 국내 소비자들이 자동차 교체명령 요구를 청원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 폭스바겐은 벌써 세 번이나 리콜 계획서를 냈지만 환경부가 반려한 상태다. 리콜 계획서에 '임의설정을 시인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여전히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서만 기다리고 있다."

△현대차 법무실장에 계열 보험사와 그룹 사장직까지 역임한 기업인이 소비자를 대변하는 집단소송 대리인이 된 것이 아이러니하다.

"장기적으로 기업이 생존하려면 소비자와 함께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게 소신이다. 반기업적 성향과 오히려 반대라고 볼 수 있다. 기업과 소비자가 부딪쳤을 때 한국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가 마음에 한이 남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그 기업도 오래가지 못한다. 기업은 장래 구매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에 발생하는 손해는 보험을 통해 일부 보장받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폭스바겐은 물론 최근 옥시사태 등 소비자가 '한이 맺히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무책임한 경영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금전적 배상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더 문제인가.

"처벌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물적 피해를 만회하고 정신적 위자료까지 보장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점에서 국내 집단소송인들은 현재 미국 법원에도 집단소송을 낸 상태다. 국내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피해가 1이라고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3~10까지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실제 피해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가 피해 규모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2013년 아시아나 항공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추락한 사건의 피해자 27명의 소송을 맡고 있다. 구체적인 합의금은 밝히기 어렵지만 미국과 한국에서 합의·판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 현재 국내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법무법인 바른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징벌적 손배 가능해 美서 동시 소송

△타 지역 거주자의 재판을 거부하는 '불편한 법정의 원칙'이 있다. 일명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승무원이 미국 뉴욕주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폭스바겐 소송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나.

"국내 배상 가능 규모나 소비자의 승소율이 미국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관련 사건이 들어오면 어떻게 미국 법원으로 가져갈지 먼저 생각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폭스바겐 사건은 좀 더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 우선 결함이 발견된 폭스바겐 차종 중 파사트가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만들어져 수입됐다. 또한 미국 폭스바겐에서 제작한 광고가 국내 광고에도 사용된 정황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23일 미국에 집단소송을 냈다. 우리 로펌과 미국 로펌 퀸 엠마뉴엘(Quinn Emanuel), 하게스 버먼(Hagens Berman)이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 하게스 버먼은 원래 소비자 소송 전문 로펌이지만 대기업 측 대리 전문인 퀸 엠마뉴엘의 합류는 남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퀸 엠마뉴엘은 폭스바겐 주가 하락에 대해 소송을 낸 주주들을 대리하고 있고 이 선상에서 법무법인 바른과도 손잡게 됐다."

△국내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기까지 어떤 과정이 남아 있나?

"우선 환경부의 자동차 교체명령이 빨리 나와야 한다. 이번 미국 법원과 폭스바겐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부가 큰 망신을 당했다. 미국 법무부 차관은 합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폭스바겐의 행위에 대해 '극악무도한 위반행위(flagrant violation)'라고 비판했다. 대립 세력의 미사일 도발 등에나 사용하는 표현을 쓸 만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 환경부 역시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서를 기약 없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 법원에서만 해결하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과거 현대차에서 일할 때도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 결함 관련 소송을 많이 했지만 대부분 합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진행했다. 미국보다 법원 판결로 기대할 수 있는 손해배상, 위자료 규모가 작은 국내에서는 더욱 그렇다. 국내 재판기일도 가능하면 연내 잡히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어쨌든 결론이 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배상 합의가 우선, 환경부 결단 시급

△이런 사태에도 국내 폭스바겐 차량 판매는 줄지 않았다. 불매 운동은커녕 할인 이벤트 등에 손쉽게 지갑을 여는 국내 소비자들의 의식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개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소비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소비자보다는 그간 기업에 솜방망이 규제를 한 정부의 문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에도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환경부가 폭스바겐에서도 이상점을 발견하고 소명을 요구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 검찰이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조사하는 것도 이런 의혹을 밝히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의 15개 차종, 12만5500대가 임의설정됐다고 판정했다. 다음 주에 집단소송 참여자 수를 다시 집계하면 45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는 6000명 이상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2011년에 환경부가 제대로 폭스바겐을 들여다봤다면 규모가 이만큼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책임질 부분을 과감히 털고 가는 것이 소비자에게는 물론 장기적으로 기업에도 유리하다는 것을 우리 당국자들이 인지하기 바란다."

정다운 기자 gamja@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강 혁
논설실 (02)799-6701 정치경제부 (02)799-2665 국제팀 (02)799-2643
산업1부 (02)799-2663 산업2부 (02)799-2664 사회경제부 (02)799-2650
자본시장1부 (02)799-2641 자본시장2부 (02)799-2658 금융시장부 (02)799-2648
뉴미디어부 (02)799-6741 기획취재팀 (02)799-2651 사진영상팀 (02)799-2646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10.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www.hainaim.com 전화 02-326-1600 팩스 02-326-1624 해냄

"만일 마더 테레사께서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이 그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였을 것인가" —정호승

가난을 고발하려 인도로 떠난 사진가, 마더의 사랑에 물들다

마더 테레사, 넘치는 사랑

시인 정호승과 그 아버지의 손길로 태어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녀의 깊고 큰 사랑!
인도 콜카타, 마더 테레사의 곁에서 보낸 사진작가의 7년







"우리는 모두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마더 테레사

조광호(신부, 화가) '신이 어디 계시며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은 분과, 사람은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참사랑과 행복과 기쁨, 보람과 희망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은 분에게' 나는 이 책을 진심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이해인(수녀, 시인) 생생한 사랑의 기록인 이 책 속의 사진과 글을 보는 것 자체가 훌륭한 기도이고 묵상이며 우리가 두고두고 본받아야 할 이웃사랑의 지침서입니다.

김혜자(배우)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희생이라는 실천을 통해 사랑을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가르치신 넘치는 사랑뿐입니다.

오키 모리히로 찍고 쓰다
정창현 정호승 옮기고 다듬다
양장본 | 272쪽 | 값 14,500원

진짜 사랑하는 법 해영에게 배웠다

〈서현진〉

인터뷰 드라마 '또 오해영' 전 혜 빈

배우 전혜빈이 tvN '또 오해영'을 통해 새로운 '구 여친(옛 여자친구)' 대열에 합류했다. 구 여친은 아픔을 간직하고, 공유할 추억이 많다는 점에서 '남심'(男心)을 자극할 강력한 무기를 지닌다. 그래서 오랜 시간 한 남자의 가슴속에 박혀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들은 대체로 외모까지 매력적인데, 전혜빈이 연기한 구 여친 '오해영' 역시 그랬다. 별명까지 '예쁜'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대놓고 아름다운 캐릭터는 전혜빈을 만나 더욱 실감나게 표현됐다. 첫사랑 미모에 고운 성격까지 갖춘 '예쁜 오해영'이지만, 실상은 여러 상처를 지녀 연민을 불러일으켰다. 감정적 조절로 구 여친의 애잔함을 연기하며 매력지수를 높인 전혜빈을 만났다.

△지난 6월 28일, 마지막 방송은 봤나.

"배우들끼리 마지막 방송을 함께 봤다. 사랑을 많이 받은 드라마라 좋은 추억이 많다. 아쉬운 마음이 들어 우리끼리 '시즌2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했다."

△드라마가 사랑받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감독님이 '모든 캐릭터에 악의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는 것 없이 얄미운 예쁜 해영이도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캐릭터로 잘 그려져 애정과 공감을 받은 것 같다."

△기자간담회에서 그냥 오해영(서현진 분) 캐릭터에 더 공감이 간다고 했다고 했다. 공감대는 어떻게 찾았는지.

"사실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속상한 부분이 많았다. 예쁜 오해영은 사랑받고 싶어 아등바등 애를 타는 아이다. 그런 모습에 연민이 들었고 짠했다. 연기적으로 내 욕심만큼 채우지 못해 아쉽다."

△결혼식날 떠난 오해영, 이해받기엔 어쩌면 이기적이다.

"나 역시 해영이가 결혼식 당일 날 그랬어야 했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늘 사랑 받으려고 애쓴 자신의 모습, 그 치부를 에릭에게 들켰다는 게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다. 내가 불쌍해서 결혼하려 했다면, 도망갈 수도 있을 법한 상황이다. 물론 방법은 잘못 됐지만 해영이의 선택이 이해도 간다."

△오해영이 둘인 현장에서 스태프들은 두 사람(전혜빈, 서현진)을 어떻게 불렀나.

"처음엔 그냥 오해영으로 불렀다. 근데 우리가 헷갈려 하니까 스태프들이 '예쁜 해영이', '그냥 해영이'로 불렀다. 부끄럽고 오글거렸다. 난 예쁜 역할이 제일 어려운 것 같다. 그래도 예쁜 옷을 입혀준다는데 안 입을 수 없지 않냐(일동 웃음). 서현진이 실제로는 예쁜 오해영이다. 노래, 연기 못하는 게 없다. 현실에서는 나와 캐릭터가 바뀐 것 같다."

△'또 오해영'은 설렘 가득한 로코물이다. 당신 역시 연애 욕구가 들었을 것 같은데.

"난 사랑을 할 때 되게 소심하고 저돌적이지 못하다. 사랑에 짜게 굴었다. '또 오해영' 서현진을 통해 사랑을 배웠다. 감정에 솔직해야 상대에게도 더 큰 사랑을 받는 것 같다."

△전혜빈을 향한 대중의 호감도가 높은 상황이다. 어떤 걸 해 보고 싶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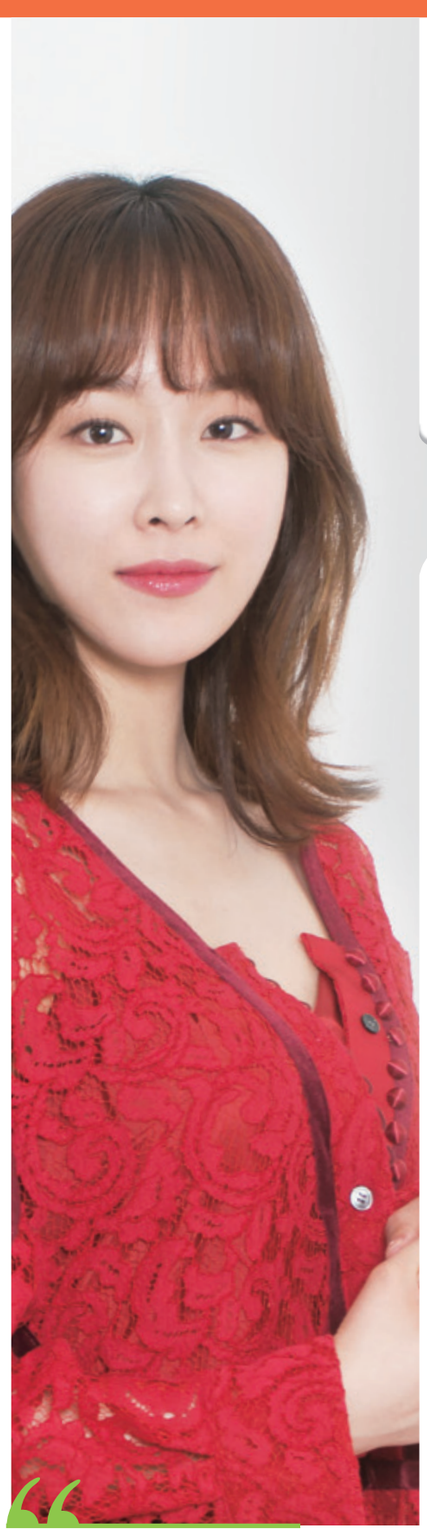
"앞으로는 예쁜 캐릭터보다 거친 캐릭터를 연기하고, 배우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다. 아, 예능도 날 찾아주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 달려가겠다(웃음)." 서현진 기자 sssw@



"결혼식날 떠난 '예쁜 오해영' 예쁘고 이기적인 겉모습 속 사랑 갈망하는 캐릭터 연민 소심한 사랑을 하던 나에게 솔직한 감정 일깨워준 작품"



사진제공 나무엑터스



"결혼 전날 차인 '그냥 오해영' 예쁜 해영와 엮어 존재감 상실 다 내려놓고 만취·집착녀 열연 지금까지 한 역할중 제일 솔직 드디어 인생작… 극복도 내 몫"

사진제공 점프엔터테인먼트

내 연애의 민낯… 다큐처럼 찍었다

인터뷰 드라마 '또 오해영' 서 현 진

'또 오해영' 서현진은 '예쁨'을 내세우지 않았다. 별명조차 무미건조한 '그냥 오해영'이다. '예쁜 오해영' 전혜빈의 그늘에 가려 평범함마저 빼앗겼고, 존재감을 잃은 학창시절을 보냈다. 모두가 주목하는 여자와 동명이인으로 엮여 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소심했던 과거에 대항하며 술이 늘었고, 파혼을 당하는 수모도 겪었다. 하지만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으며 누구보다 매력적인 오해영으로 거듭났고, 자연히 배우 서현진의 아름다움에 대중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로맨스에 최적화된 매력으로 '로코 보물'의 탄생을 알린 서현진이다.

△오해영을 만난 서현진, 행복할 것 같다.

"종영이 아직 실감이 안 난다. 배우들끼리 본방송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수다를 떨었다. 내 생각엔 우리 배우들이 이 드라마를 제일 좋아한 1등 애청자였다. 시청률이 잘 나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지 몰랐다. 내가 대본을 보면서 울고 웃은 걸 시청자들이 같이 공감하고 기뻐해주는 게 참 좋았다. 잘 만들어진 드라마라 더욱 기분이 좋다."

△오해영 캐릭터에 개인적으로 공감한 부분은 어떤 게 있나.

"'또 오해영'은 자존감이 한축을 이루는 사랑 이야기다. '내 연애의 민낯을 다 보여주자'는 게 목표였다. 다큐처럼 느껴지길 바랐다. 사실 내려놓고 망가지는 게 창피하긴 했다. 그때마다 용기내서 할 수 있게 스태프들이 기회를 줬다. 지금껏 해왔던 연기 중에 가장 솔직했다."

△'또 오해영'은 연애 욕구를 자극하는 드라마다. 본인도 연애하고 싶다고 생각한 지점이 있다면.

"그런 자극을 주는 특별한 장면은 없었는데 촬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설레게 됐다. 아, 에릭과 바닷가에서 데이트하는 장면이 가장 설렜다. 그 신을 방송에서 모니터하면서 엄청 웃고 있는 날 발견했다(웃음)."

△에릭과 키스신이 거침 없었나.

"에릭과 스킨십 장면을 촬영할 때 마치 액션 연기를 하는 것처럼 합을 맞췄다. 완벽하게 합을 맞추지 않으면 서로 어색해지기 때문에 미리 짠 동선대로 했다. 벽키스 장면이 수위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후에 거침없어진 부분도 있다."

△실제였다면 에릭과 이재윤 중 서현진은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까.

"난 두 남자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태진(이재윤 분)이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어도, 그 아팠던 순간을 기억하는 한 관계는 회복되지 못한다. 나는 박도경(에릭 분) 같은 남자를 좋아한다. 자기의 못난 부분을 내게 오픈해주는 사람을 선택할 것 같다."

△당분간 배우 서현진에게 '오해영'이란 수식어는 뗄 수 없을 것 같은데.

"기억이 되는 작품을 만난 것은 행운이다. 평생 한 번도 못 만날 수 있으니까. 가장 애착한 드라마가 대표작이 돼 기쁘다. 훗날 그걸 극복하는 건 내 몫이다."

△앞으로 희망하는 '배우' 서현진은 어떤 그림인가.

"계속 좋은 작품과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1, 2년만 하고 그만두고 싶지 않다. 난 아무리 힘들어도 촬영장에 가면 힘이 나는 사람이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게 됐지만, 이게 곧 끝나고 흘러간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돼도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서현진 기자 sssw@



똑같은 '나쁜남자'는 없다

'국수의 신' 김길도役 조재현 "동정·연민의 가치조차 없다" 급 다른 악인연기 간담 서늘

배우 조재현이 '명품 배우'의 진가를 다시 한 번 발휘했다.

조재현은 지난 6월 30일 막을 내린 KBS2 수목드라마 '마스터-국수의 신'(극본 채승대, 연출 김종연 임세준)에서 궁락원 대면장 김길도 역으로 분해 활약했다. 김길도는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나고자 하정태(조덕현 분)의 궁중메밀꿩국수 요리법을 빼앗고 그의 이름과 인생마저 도둑질한 악인. 훗날 하정태의 아들 무명(천정명 분)과 대척한다.

김길도에 대한 무명의 복수가 작품의 주된 소재이지만 이 과정에서 김길도는 수많은 인물들과 대립각을 세운다. 아내 고강숙(이일화 분), 음식 평론가 설미자(서이숙 분)와는 궁락원을 두고 갈등하고, 김다해(공승연 분)와는 친모의 죽음을 둘러싸고 갈등한다.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 소태섭(김병기 분)과는 공천, 비리 문건 등을 약점 잡아 서로를 압박한다.

조재현은 다양한 갈등 상황마다 서로 다른 얼굴을 꺼내들며 시청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비열하고 위선적이라는 면에서 현대의 전형적인 악인과 다름없지만,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던 소태섭과 맞설 때는 동물적이고 원초적인 모습으로 변모한다. 특히 지난 6월 23일 방송에서 자신의 앞길을 막는 최 의원(엄효섭 분)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은 천하의 소태섭마저 움찔하게 만들 정도로 섬뜩했다.

조재현은 그동안 다수의 작품에서 악인을 연기해왔다. 전작 SBS '펀치'에서도 그는 냉혈한 이태준 역을 맡아 시청자들의 혈압지수 상승에 일조했다. 이태준과 김길도 모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지만, 조재현은 디테일을 통해 두 캐릭터에 차별점을 뒀다. '펀치' 촬영 당시 정장 차림에 귀마개를 하고 등장하거나 자장면 '먹방'을 선보이는 등 유머러스한 코드를 섞었지만, '국수의 신' 김길도를 통해서는 악(惡) 그 자체를 보여줬다.

조재현은 지난 4월 '국수의 신' 제작발표회 현장에서 "김길도는 그동안 보여준 악인보다 깊이가 심한 악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악인은 악해진 이유가 있고, 연민이나 동정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그런데 김길도는 그렇지 않다"면서 "회차가 더해질 때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현의 말처럼 김길도는 악으로 똘똘 뭉친 인물이었다. 높은 시청률을 거두진 못했지만 새로운 악인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김길도는 유의미하다. 조재현의 연기 사전, 그 안에 '답습'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



음방+먹방+서바이벌 '한 방' 노리는 JTBC

새 예능·드라마 편성… 흥행 기대감

'비정상회담', '냉장고를 부탁해', '슈가맨', '히든 싱어' 등을 통해 예능 명가로 입지를 굳힌 JTBC가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최근 방송가를 강타했던 '음방', '먹방' 등의 인기 코드에 서바이벌 포맷을 첨가한 새 예능 3편을 준비하고 편성까지 완료했다. 예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춤하던 드라마에서도 힘 있는 배우들을 대거 기용하며 흥행 기대감을 더했다.

6월 첫 방송된 '잘 먹는 소녀들'은 대한민국 걸그룹 중 먹방 요정으로 꼽히는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최고를 가리는 프로그램이다. 트와이스, 레드벨벳, 에이핑크, 시크릿 등이 이름을 올렸다.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입맛을 돋우는 '먹방'과 긴장감을 부르는 '대결'이 관전 포인트다.

대규모 생존 미팅 게임 '솔로워즈'는 일반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서바이벌이다. 성인 남자 50명과 여자 50명이 단체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으로, 남녀 100명이 어떤 방식으로 이성에게 접근하고 짝을 찾아가는지를 관찰한다.

주목받지 못하던 걸그룹들의 보컬 대결인 '걸스피릿'도 방송을 앞두고 있다. '걸스피릿'은 12명의 걸그룹 메인 보컬들이 경연을 통해 순위를 정하고 파이널 리그에서 최종 우승자를 선정한다. 노래 경연뿐만 아니라 걸그룹 멤버다운 다양한 퍼포먼스, 5명의 선배가수들과의 호흡 등이 눈여겨 볼 부분으로, '솔로워즈'와 함께 7월 중 첫 방송된다.

예능뿐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JTBC는 심혈을 기울였다. '미스코리아'(2013) 이후 스크린에 집중했던 이선균을 안방극장으로 거의 이끌어냈다. 지난달 이선균 측은 "JTBC 새 드라마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출연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유정선배' 박해진도 '태양의 후예'를 공동 집필한 김원석 작가의 신작 '맨투맨'을 차기작으로 확정지었다.

'떠오르는 샛별' 한예리도 JTBC 드라마 라인업에 합류했다. 금토극 '마녀보감' 후속작 '청춘시대'에서 생활력 넘치는 짠순이 윤진명 역을 맡았다.

초반의 화제성이 꺼졌다는 평도 있었으나 JTBC는 낙담만 하기 보단 새로운 활로 모색에 나섰다. 본격적인 변화에 나선 JTBC의 새로운 2막은 어떤 성과를 낼까. 많은 이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이고 있다. 김예슬 기자 yeye@



걸크러시 깨고 소녀로… '넘나 여성스러운 것'

1년 만에 컴백 소나무

세번째 미니앨범 '넘나 좋은 것' 발표
핑크빛 바비인형 콘셉트 '남심' 저격
"10대 소녀들만의 풋풋한 감성 대변"

늘 푸른 소녀들, 걸그룹 소나무가 이번엔 분홍빛을 가득 머금고 돌아왔다. 그동안'데자부(Deja-Vu, 2014)', '쿠션(CUSHION, 2015)'를 통해 걸크러시를 유발했던 소나무는 새로운 음악과 퍼포먼스로 '남심'(男心) 저격에 나선다.

소나무는 지난 6월 29일 세 번째 미니음반 '넘나 좋은 것'을 발표하고 1년 만에 컴백했다. 신인 걸그룹으로서는 다소 긴 공백기를 가졌지만 그만큼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변신과 성장을 통해 공감을 얻겠다는 소나무. 이들의 컴백 키워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자.

◇**변신**=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콘셉트의 변화다. 그간 걸스 힙합을 내세워 강렬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소나무가 '넘나 좋은 것'을 통해 바비 인형으로 변신했다.

지난 6월 22일 공개된 음반 재킷 사진은 소나무의 변신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일반판과 특별판 두 가지 버전으로 발매되는 이번 음반은 '바비 인형' 콘셉트에 걸맞게 화사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일반판에서는 파스텔 톤의 세트장을 배경으로 블루-화이트 계열 원피스로 소녀의 매력을 한껏 살렸고, 특별판에서는 분홍빛 의상으로 여성스러움을 강조했다.

수민은 지난 6월 29일 열린 쇼케이스 현장에서 "여자의 변신은 무죄 아닌가. 우리도 이렇게 여성스러운 콘셉트를 소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민재는 "소녀스러운 곡을 정말 하고 싶었다. 그동안 후속곡 활동을 통해 반전매력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엔 타이틀곡 활동을 통해 여성스러움을 보여드릴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성장**=음악적 성장도 빼놓을 수 없다. 먼저 디애나는 타이틀곡 '넘나 좋은 것' 가사 작업에 참여했다. 앞서 '상영시간무한대', '깊어' 등의 작사를 통해 다져진 내공이 톡톡히 빛을 발했다. 디애나는 "평소 이별 내용을 담은 우울한 감성의 가사를 주로 썼는데, '넘나 좋은 것'을 통해 밝은 분위기에 도전했다"면서 "뉴썬과 스태프들의 도움이 컸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뉴썬은 작사는 물론 수록곡 'B.F'를 통해 작곡과 편곡자로도 활약했다. 평소 정통 힙합에 관심이 큰 뉴썬이지만 그룹 색깔을 위해 개인적인 욕심은 잠시 내려놨다는 후문이다. 뉴썬은 "크레딧에는 내 이름만 올라갔지만 사실 멤버들과 함께 콘셉트를 잡아 작업한 것이라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여러 곡들을 작업 중에 있다. 앞으로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공감**=소나무는 이번 음반을 통해 사랑에 빠진 '소녀'의 감정을 노래한다. 인트로 '클로저(CLOSER)'를 시작으로 '센스넘쳐', 'B.F', '슈가 베이비(SUGAR BABY)', '아이 두 러브 유(I DO LOVE YOU)' 등을 통해 소녀의 연애담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냈다. 소나무는 실제 '소녀'의 언어를 제목에 차용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포부다.

소나무는 "'넘나'라는 단어가 또래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의 감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라서 음반 타이틀과 노래 제목에도 넣게 됐다"면서 "또한 '넘나 넘나 좋은 U', '꼭꼭 안아 힘껏 구겨버릴까' 등 재밌는 가사를 통해 또래 친구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0대들만의 풋풋한 사랑을 대표하는 표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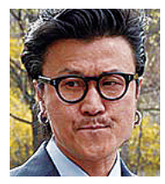
글/이은호·사진/윤예진 기자 wild37@

연예계, 성추행·불륜·음주운전… 부당거래까지

'11월 괴담' 공식 깬 악몽의 6월

201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이 어느 때보다 시끄럽다.

프로야구가 시즌을 마무리하던 11월, 연예계 사건 사고가 유달리 집중적으로 터져 나와서 붙여진 별칭 '11월 괴담'이 올해 만큼은 6월로 옮겨진 것 같다.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 불륜, 성 스캔들, 주식 부당 거래 의혹까지 분야도 다양하다.

◇**성폭행·성추행 스캔들…박유천, 이주노**=6월 괴담의 처음과 끝을 장식한 인물은 박유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흥주점 여직원 A 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것을 시작으로 박유천은 총 4명에게 같은 혐의로 피소됐다.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박유천과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박유천은 6월 30일 처음으로 경찰서로 출두 조사를 받는다.

박유천과 같은 날 경찰 조사를 받는 이주노는 성추행 혐의로 신고 당했다. 가정도 있고, 아이도 셋이나 있을뿐더러 현재 채무 문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주노다. 그런 그가 클럽을 출입했을 뿐 아니라 성추행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은 진위 여부를 떠나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낯뜨거운 불륜 스캔들…김세아, 그리고 홍상수·김민희**=배우 김세아는 한 법무법인 부회장 부부 이혼 소송에 '상간녀'로 함께 피소됐다. 상간녀는 아내가 있는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여성을 뜻한다. 소장을 접수한 아내는 이혼 과정에 김세아가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 것. 해당 사건은 현재 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진행 중이다.

김세아에 이어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스캔들도 놀라움을 안겼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모두 정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홍상수 감독의 아내가 "내 남편은 돌아올 것"이라는 인터뷰로 불륜 사실을 인정하면서 충격을 안겼다. 홍상수 감독과 아내에겐 여대생 딸이 있다는 점도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술 먹고 운전 그만…윤제문, 버벌진트, 이정**=음주운전도 6월에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음주운전이 발각된 연예인은 올해에만 지금까지 4명. 이 중 3명이 6월에 윤제문은 5월, 이정은 4월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6월에 알려졌다.



이들 외에 스스로 음주 사실을 고백한 버벌진트는 KBS 2TV '추적60분' 카메라에 음주 측정 사실이 담겼다는 예고 보도 자료가 공개되기 직전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거짓 해명' 의혹까지 낳았다.

◇**주식 거래까지…정용화 그리고 씨엔블루 멤버 B씨**=6월 괴담의 마지막 주자는 씨엔블루 정용화였다. 정용화는 6월 28일 주식 부당 거래로 차익을 거둔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용화 외에 씨엔블루 다른 멤버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정용화는 2015년 7월 4억여 원의 주식을 사들인 뒤 6억여 원에 되팔며 일주일 만에 2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명 연예인이 영입되면서 해당 주식이 급등했다. 정용화 외에 다른 씨엔블루 멤버도 검찰이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와 씨엔블루의 앞날에 관심이 쏠린다.

김소연 기자 sue123@


미쓰에이


비스트

다큐멘터리 '빅뱅 메이드'

팬들을 의식한, 팬들을 위한, 팬들에 의한… 빅뱅의 '10번째 생일파티'

데뷔 10주년 월드투어 영상 담아 제작
팬들이 궁금해하는 숨겨진 모습들 공개
3면 270도 입체화각 '스크린X' 버전도



대한민국 음악 산업에서 빅뱅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는 분명 특출하다. 아이돌과 아티스트의 경계에서 새로운 음악적 문법, 혹은 새로운 음악 유행을 선보여 온 게 빅뱅이다. 연예인들의 연예인, 시대의 아이콘, 유행을 이끄는 얼리어답터 등 빅뱅을 수식하는 범상치 않은 단어들이 이를 증명한다. 그런 그들이 데뷔 10주년 맞았다. 그리고 13개국 32개 도시에서 펼쳐진 월드투어를 담은 다큐멘터리 '빅뱅 메이드'를 내놓았다. 그러니까, '빅뱅 메이드'는 빅뱅이 자신들의 1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이벤트의 일환이다. 다분히 팬들을 의식한, 팬들을 위한, 팬들에 의한.

무려 340일의 시간을 기록했으니, 다큐에 담을 수 있는 영상을 차고 넘친다. 결국 어떤 모습을 취사선택하느냐가 관건. '빅뱅 메이드'의 선택은 예상을 크게 빗겨가지 않는다. 아티스트로서의 빅뱅을 조망하고, 20대 청춘들로서의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들춰내고, 빅뱅과 오랜 시간 동고동락해 온 스태프들(안무팀장, 스타일리스트, 매니저 등)을 소개하며 그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한다. 딱히 색다를 것 없는 안전한/안일한 구성이지만, 멤버 개개인이 지닌 개성에 힘입어 그만의 보편적 재미를 획득한다.



'빅뱅의 팬임에 자부심'을 느낄만한 장면과, 팬들이 궁금해 하는 '우리 오빠'의 숨겨진 면모도 수두룩하게 담겼다. 뭔가에 꽂히면 끝장을 낼 기세로 파고 파고 또 파는 태양의 불굴의 의지, "무대 뒤에서 차갑게 해야 무대 위에서 뜨겁게 보려줄 수 있다"는 대성의 날선 시선, 탈진한 상황에서도 기어코 자신의 파트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지드래곤의 프로패셔널한 면모는 물론, 탑의 '잘진 욕설'까지도 가감 없이 담겼다.

'남들과는 다른 것'을 선호해 온 빅뱅답게 다큐 역시 일반적이지는 않다. 2D 외에도 스크린X 버전이 추가로 제작됐다. 스크린X는 극장 정면 스크린뿐 아니라 양옆 벽면을 함께 사용해 3면 270도 입체적 화각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덕분에 빅뱅의 콘서트를 상당히 실감나게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좋아하는 멤버를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시간도 많아졌다. 정면에서 지디와 태양이 노래를 부를 때, 양옆 화면에서는 탑이 랩을 하고 승리와 대성이 댄서들과 춤을 추는 식이니까.

'빅뱅 메이드'는 다소 예민할 수 있는 빅뱅의 YG 재계약과 군대문제로 이야기를 닫는다. 열세 살 때 YG에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지드래곤은 YG를 '집'이라고 표현했다. 탑은 "사람에게 누구나 존재 이유가 있다면, 저희 다섯 명은 그냥 빅뱅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다"고 말했다. 수많은 아이돌이 해체되고 사라지는 비정한 환경 속에서 빅뱅은 '빅뱅 메이드'를 통해 다짐하는 듯하다. '영원'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당신들과 함께 한 지금 이 순간은 영원히 잊지 않겠노라'고. 그런 의미에서 '빅뱅 메이드'는 빅뱅이 팬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다독임 같기도 하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

해체·탈퇴… 가요계 '魔의 7년'

포미닛, 현아만 재계약하며 갈라서
2NE1·비스트·미쓰에이 멤버 탈퇴
개인활동 잦아지며 각자 갈 길 가

근래 가요계에 통용되는 말이 있다. 기존의 '5년 징크스'가 아닌 '7년 징크스'다. '마의 7년'이라고도 불리는 이 구간은 아이돌의 위기점인데,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던 이들도 7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안타까운 결말을 맺곤 한다.

7년 징크스를 가장 여실히 보여준 건 걸그룹 포미닛이다. 2009년 데뷔한 포미닛은 결국 7년의 벽 앞에서 무너졌다. 지난 16일 포미닛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현아를 제외한 남지현 허가윤 전지윤 권소현 등 4인 멤버는 회사와 재계약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포미닛과 함께 2009년에 데뷔한 아이돌 그룹 2NE1과 비스트는 멤버 이탈을 겪었다. 2NE1 공민지는 지난 4월 팀 탈퇴를 선언했다. 당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공민지의 미래를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공민지 아버지가 SNS를 통해 탈퇴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음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비스트는 기존의 논란이 탈퇴로 번진 케이스다.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멤버 장현승의 추문과 불성실한 태도, 솔로 활동에서의 마약 퍼포먼스 등이 문제가 되며 장현승은 팀을 나갔다.

7년차로 향하는 몇몇 그룹도 노란 불이 켜졌다. 2010년 데뷔한 걸그룹 미쓰에이는 지난 5월 중국인 멤버 지아의 탈퇴가 확정됐다. 지아는 중국을 기반으로 연예 활동을 할 계획이다. 걸그룹 나인뮤지스 이유애린과 민하 또한 지난 6월 탈퇴를 선언하고 현재 휴식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돌 그룹 수명의 한계에 대해 관계자들은 "이해관계의 대립"이라고 입을 모은다. 개인활동이 잦아짐에 따라 팀과 개인이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해 각자 갈 길을 간다는 게 중론이다.

과거 아이돌 평균 수명이 5년으로 꼽혔던 것과 달리 7년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걸 멤버들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가요관계자는 "팀 활동의 중요성을 아이돌들도 잘 알고 있지만, 팀 활동으로 인해 개인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는 생각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김예슬 기자 yeye@

‘지카 공포’ 리우올림픽 ★ 볼일 없네



왼쪽부터 로리 매킬로이, 조던 스피스, 제이슨 데이, 리디아 고, 박인비

브라질 ‘지카 바이러스’ 발생지역으로 골프장 안 모기 서식지 대형 호수 많아

제이슨 데이 등 유럽 톱 랭커 대거 불참

올림픽 전후 초대형대회 참가도 이유

여자 선수로는 리-앤 페이스 첫 통보

박인비 임신 가능성, 리디아 고는 미정

올림픽 골프가 자칫 ‘반쪽짜리’ 대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카 바이러스 공포’ 때문이다. 지카 바이러스는 신생아에게 소두증(小頭症)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소두증에 걸린 신생아는 두뇌 발달 장애를 겪거나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결혼 적령기의 여성들은 더욱 지카 바이러스의 위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유럽의 톱 랭커들이 대거 불참한다. 세계골프랭킹 1위 제이슨 데이(호주)와 로리 매킬로이(북아이랜드)가 올림픽에 나가지 않겠다고 이미 선을 그었다. 여기에 조던 스피스(미국)도 안전을 문제삼아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럽선수를 중심으로 10명이 올림픽 불참을 통보한 상태다. 급기야 여자 선수 리-앤 페이스(남아공)가 30일 처음으로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가족 건강’이 우선이라 했다.

이 때문에 한국선수들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박인비(28·KB금융그룹)는 최근 가진 인터뷰에서 “올림픽은 나라를 대표해 나가는 것인데 내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가 나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올 시즌 초 허리 부상으로 고생한 박인비는 엄지손가락 부상이 심각해 현재 정상 컨디션이 아니어서 불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박인비는 결혼한 상태여서 ‘아이’ 문제가 걸려 있다. 아직 임신 소식은 없지만 여자로서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결혼 적령기의 여성들은 더욱 지카 바이러스의 위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브라질은 지카 바이러스의 발생지역으로 골프장에는 모기들의 주 서식지인 대형 호수가 자리하고 있다. 대회 코스에는 2개의 인공 워터해저드가 조성돼 있다. 이 호수는 2번 홀과 5번 홀에 접해 있고, 이보다 작은 호수는 10번 홀과 연결돼 있다.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나 경기를 관전하는 갤러리들이 모두 모기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운동선수들에게 올림픽은 출전 자체가 영광이다. 금메달을 목에 걸면 ‘가문의 영광’은 물론 국위를 선양하고 영웅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수들은 ‘가자니 불안하고, 안 가자니 아쉬워’ 출전 여부를 놓고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것이다.

선수들에게 올림픽 출전을 독려하고 있는, 뉴질랜드 대표로 나가는 리디아 고(19·캘러웨이)는 “지카 바이러스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은 불행이지만 (브라질 사람들이) 잘 통제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일단 출전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미국의 신세대 기대주 렉시 톰슨(21)은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 올림픽에 가지 않는 것 외에 확실한 대비책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남자선수들은 지카 공포 외에 올림픽을 전후로 메이저대회 및 초대형급 대회가 줄줄이 엮여 있는 것도 불참의 한 원인이다. 30일 개막한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시리즈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을 비롯해 메이저대회 디 오픈, PGA챔피언십 등이 잇달아 열린다. 7주 동안 3개 대륙을 강행군해야 한다는 얘기다.

1904년 세인트루이스 올림픽 이후 112년 만에 부활한 골프. 8월 열리는 리우 올림픽 골프 종목에는 남녀 개인전으로 각각 금·은·동메달이 걸려 있다. 단체전은 없다. 4일간 72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경기를 펼쳐 승자를 가린다. 출전 선수는 남녀 각각 60명이다. 남자는 8월 11~14일, 여자는 8월 17~20일 경기가 열린다. 출전 선수는 7월 11일 발표된다.

60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이번 올림픽은 골프의 흥행몰이를 위해 세계랭킹 15위 이내 선수를 많이 보유한 국가는 4명까지 나갈 수 있다. 한국의 여자선수는 14위 이내에 7명이나 몰려 있다. 치열한 집안 경쟁을 하다가 지카 바이러스로 인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남자는 안병훈(24·CJ오쇼핑)과 김경태(30·신한금융그룹) 등 2명이, 여자는 박인비, 김세영(23·미래에셋), 전인지(22·하이트진로), 장하나(24·BC카드) 등이 유력하지만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 다른 선수들이 ‘어부지리’로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인비와 장하나는 이미 오는 21일 열리는 8개국 대항전 UL 인터내셔널 크라운도 포기한 상태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김동하의 사이언스골프레슨

샷이 불안하면 그립을 체크하라



김동하 프로가 세움필라테스 최은이 원장에게 그립잡는법을 지도하고 있다.

일반인도 과연 프로가 될 수 있을까?

김동하가 사회인 골프 외인구단을 창단하고 프리미엄 경제지 이투데이와 함께 ‘프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 첫 번째 교육과정으로 ‘힘빼기’에 대한 모두 수업이 진행됐다. 흔히들 필드에서 미스 샷을 하면 주변 동반자들이 쉽게 던지는 말이 “힘 들어가서 그래~”다. 샷을 하기 전에 클럽을 쥐고 힘을 빼기 위해 좌우로 흔들어도 보고 왜글 동작도 해보지만 막상 샷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힘이 팍! 들어가고 만다.

어떻게 하면 이놈의 힘을 관리할 수 있을까?

김동하(이하 김): 아무리 왜글 하면 뭐 합니까? 막상 공을 칠 때는 “이거 한 번 조져 봐야지” 하고 그립을 잡은 손에서부터 힘 빡 넣고 치뿌는데….

프로선수들이 샷이 불안하면 가장 먼저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립입니다.

‘그만큼 그립은 좋은 샷의 첫 단추가 된다.’ 이 말이 되는데, 힘 빼기는 스윙동작을 하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립을 잡는 방법만 정확히 알아도 많이 달라집니다.

이래 얘기하면은 아~ 그립을 가볍게 잡아라! 이래 얘기하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에 말씀, 아니고요~ ㅎㅎ 그립의 힘을 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주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오른손 잡이가 대부분인 한국인들의 경우 스윙에서 오른손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오른손을 우째 잡으면 힘을 뺄 수 있는지, 또 왼손은 우째해야 될는지 제가 학실히 정리해 뿔라니까 같이 한번 해보입시다.

일단은 그립을 잘 잡는다는 거는 헤드 무게를 잘 이용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만 잘 잡아도 다운스윙 때 오른팔도 옆구리에 척 잘 붙고, 손목코킹도 안 풀리고, 임팩트까지 잘 전달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강력한 다운블로 샷을 만들어내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는 비거리 늘리기에 효과를 낸다 이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른손으로 그립을 할 때는 중지와 약지에 걸친다고 생각하고 걸어 놓으세요.

나머지 아 들은 집게손가락은 밑에서 바치고, 엄지는 살짝 덮어주고, 새끼 손가락… 야는 왼손 집게 손가락 우에 덮어 놓고…

외인구단 단원(이하 단원): 프로님 이러면 손에서 그립이 빠질까봐 좀 불안한데요.

김: 오른손으로 방금 알리 준대로 잡고 있을 테니까 이 클럽 좀 뺏어가 보이소.

단원: (김 프로는 오른손으로 그립을 잡고 있고, 단원은 클럽 샤프트 부분을 잡고 김 프로의 클럽을 뺏어보려 당겨 본다.)

어? 안 빠지네요?

김: 왜 빠집니까? 안 빠집니다. 이번에는 본인이 오른손 한 손으로 내가 말한 대로 그립을 잡고 조우로 한 번 휘둘러 보이소. 빠지는지.

단원: 오~ 의외로 안 빠지네요? 완전 신기합니다. ㅎㅎ

김: 바로 거깁니다. 생각에 그립이 손에서 빠질까바 염려하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힘이 빡! 들어가는 기거던요?

그러면 그립에서부터 힘 조절에 실패하는 기니까. 지금처럼 실험을 통해서 고정관념을 깨뿌야 안심하고 힘 뺄 거 아입니까? 그지요?

단원: 네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한국사이언스골프아카데미 원장

이재철의 골퍼와 면역건강

필드서 갑자기 옆구리 통증… 혹시 대상포진

지난주 진료실을 찾은 52세 중년 골퍼 K씨는 최근 골프를 치다 갑자기 극심한 옆구리 통증을 호소했다. 처음에는 스윙하며 삐끗했나 생각하고 방치했는데 며칠 후에는 옆구리에 수포마저 올라왔다. 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동반하며 띠 모양으로 K씨 옆구리에 펼쳐진 수포는 대상포진의 증상이다.

2014년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50대가 대상포진 환자 4명 중 1명을 차지했을 만큼 K씨뿐만 아니라 50대 이상 중년, 특히 폐경기 여성은 대상포진에 취약한 계층이다. 중년 골퍼를 위협하는 대상포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대상포진은 유아기에 수두에 걸렸던 적이 있거나 수두 백신을 맞은 적이 있다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다. 대상포진 원인체인 대상포진 바이러스와 수두 바이러스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체내에 남아있던 수두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피부로 올라와 염증과 함께 통증을 유발한다. 감옥에 갇혀 있던 바이러스가 간수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가 약해진 틈에 탈출해 몸속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셈이다.

대상포진 초기에는 옆구리, 등, 가슴, 목 등 특정 부위에 심한 통증과 감각 이상이 발생한다. 대상포진에 통증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암성통증이나 출산의 고통에 비견될 정도로 극심한 통증 때문이다. 또한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에 띠 모양으로 물집이 무리 지어 생기는 피부의 수포가 사라진 후에도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남을 수 있다.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증상 발생 후 72시간 내에 통증 치료와 면역증강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부에 발진이 나타났다면 항바이러스 약물 치료를 통해 수포로 인한 2차 감염을 막고 흉터를 최소화한다. 염증을 제거하고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발진이 생긴 부위에 신경주사 치료를 한다. 치료 전반에는 개별맞춤형 PMT(Personalized Micronutrient Therapy)주사 요법을 적용해 신체 불균형을 바로잡고 면역세포를 튼튼하게 만든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면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대상포진 재발 및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중년층. 생활 관리를 소홀히 해 면역력이 떨어지면 언제든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크다. 골프에 대한 사랑 못지 않게 면역력을 키우려는 생활 속 노력이 중요하다. 햇빛 좋은 날은 야외에서 골프를 치며 넉넉히 햇빛을 쬐 비타민D를 합성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많이 웃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면역력 증진과 각종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첫걸음일 것이다.

반에이치클리닉 원장·통증의학 전문의

리디아고 사용 ‘클럽 풀세트’ 드려요~

캘러웨이골프, LPGA·KLPGA 동반 석권 기념 ‘크롬소프트 페스티벌’

캘러웨이골프(대표이사 이상현·www.callawaygolfkorea.co.kr)는 캘러웨이 용품을 사용하는 오지현(20·KB금융그룹)과 리디아 고(19·캘러웨이)가 크롬소프트볼로 KLPGA, LPGA 투어를 동반 석권한 기념으로 이벤트를 갖는다.

지난달 26일 오지현 선수가 한국여자골프(KLPGA) 투어 비씨카드·한경 레이디스에서 우승한 데 이어, 다음 날인 27일 리디아 고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거둔 것.

캘러웨이 골프는 두 선수 모두 크롬소프트볼을 사용해 우승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크롬소프트볼 구매자를 대상으로 오지현, 리디아 고가 사용하는 클럽 풀세트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크롬소프트 페스티벌’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15일까지 2016년 형 크롬소프트볼을 구매하고 캘러웨이골프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크롬소프트볼의 바코드를 등록해 응모하면 된다.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리디아 고 선수가 사용하는 클럽 풀세트(1명), 오지현이 사용하는 클럽 풀세트(1명), 크롬소프트볼(10명)을 증정한다.



캘러웨이골프 김흥식 전무는 “소속 선수들의 연이은 우승 소식을 축하하고 이를 기념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이번 크롬소프트 페스티벌을 통해 프로 선수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크롬소프트볼의 차별점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아마추어 최강자 가리자!

제4회 베어크리크배 19일 개막

아마추어 최고수는 누굴까.

제4회 베어크리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가 오는 19일부터 4일간 경기 포천의 명문 베어크리크컨트리클럽(대표이사 조규섭)에서 열린다.

대한골프협회(KGA)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성적에 따라 국가상비군 포인트가 주어진다. 이번 대회는 국가대표 및 상비군을 포함해 모두 180명의 선수들이 출전한다. 예선전을 거쳐 남자는 51명, 여자는 45명이 본선에 올라 최종 승자를 가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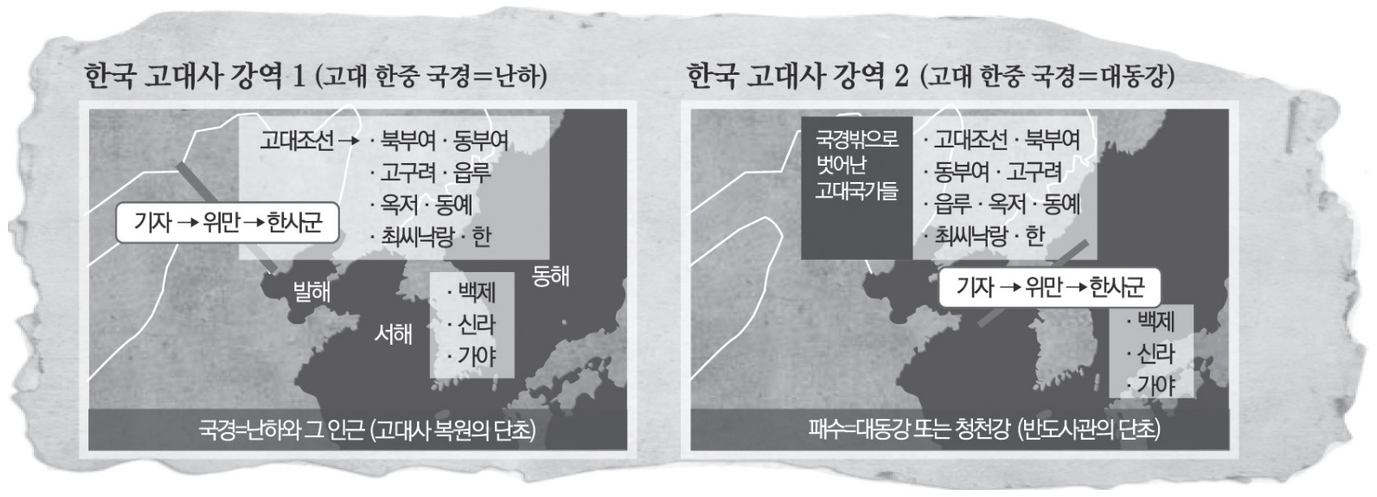


베어크리크컨트리클럽 코스 전경.

한국 고대사, 끝나지 않은 전쟁

② 사료로 보는 민족의 기원과 고대조선 강역

고대사 정립은 민족 정체성 확립하는 작업



한민족·배달민족·백의민족·동이족·예·맥…
민족이름 합의 못한채 '우리민족'으로 표기
中 동북공정 대응논리도 세우지 못하면서
고대조선 강역 제기땐 '사이비…' 비난만

고대 한·중 국경인 '패수' 위치 먼저 알아야
기자·위만·한사군, 요서지역 나라인데
평양에 있었던 것처럼 설명해 혼란 빚어
위만 멸망이 고대조선 멸망처럼 기술도

◇민족의 이름과 기원에 대한 합의가 절실하다 = 교육은 곧 우리의 미래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역사교육은 실증사학이라는 명분으로 민족의 기원을 폄훼하고 부정하는 내용뿐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민족에 대한 자존심을 훼손하고 자아를 상실케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역사학계는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커녕 편을 갈라 상호 비방을 일삼고 있다. 더욱이 우리 역사학계는 민족의 이름과 기원에 대한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그 이름도 없고, 그 기원도 모른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서 민족의 이름이 사라진 것은 2009년부터다. 현재 모든 국사 교과서에서 '우리 민족'으로만 두루뭉술하게 표기하고 있다. 그 이전 국사 교과서에서는 '한민족' 또는 '배달민족' 등의 이름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민족을 상징하는 이름이 필요하다며 역사서들에서 보이는 한민족, 배달민족, 백의민족, 동이족, 예, 맥, 숙신 등등 그 가운데 하나를 민족의 이름으로 정하려다가 합의를 보지 못하자, 이름 대신 '우리 민족'이라는 표현으로 묶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

민족의 이름에 대한 합의가 없다 보니 민족의 기원에 대한 설명도 모호하기 그지없다. 서둘러 민족의 이름과 기원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그것은 국제무대에 내세울 수 있는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자 국제경쟁력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우리 민족이 처음 세운 나라는 고대조선이며 2000년 가까이(서기전 2333~서기전 425년) 존속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집단 귀속의식이 점차 강화되었을 것이므로 한 민족은 고대조선시대에 출현했다'는 선학들의 논리에 따라 우리 민족의 이름을 한민족으로, 그 기원은 고대조선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또 우리 민족이 처음 세운 나라는 '고조선'이 아니라 '조선'이었다. 따라서 '근대조선'과 시대를 구분하기 위해서 '고대조선'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고대조선 강역에 대한 논의는 민족과 문명이 형성된 기원을 찾는 작업이다 = 고대조선의 강역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면 국수주의 또는 사이비 역사학이라는 쪽으로 비난하며 논의 자체를 기피한다. 대단히 잘못된 현상이다. 고대조선 강역에 대한 논의는 바로 우리 민족과 문명이 형성된 기원을 찾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작업이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해 만주지역에서 발견되는 유적과 유물들을 우리 문명에 대한 해석으로 연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고대사의 진실을 바로 정리하기는커녕 중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에 대응 논리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고대조선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윤내현 교수에 의하면 고대조선의 강역은 서쪽은 난하와 갈석산 일대, 북쪽은 아르군강, 동쪽은 흑룡강(아무르강), 남쪽은 경상도와 전라도 남부 해안까지였다. 필자는 이에 적극 동의한다. 고대조선은 '삼국유사'에 따르면 서기전 2333년에 청동기문명을 기초로 건국한 실제한 역사였으며, 그 강역은 넓을 때는 지금의 만주(요서와 요동)와 남북한 전 지역이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고대 한·중 국경지대인 패수(浿水)의 위치를 알아봐야 한다. '사기' 권115 '조선열전'에는 "요동(遼東·동쪽으로 가장 먼 곳)의 옛 요새를 고쳐 패수까지를 경계로 삼아 연(燕)에 속하게 했다"는 말이 있다. 연의 동쪽에 있는 강은 지금의 난하(灤河)다. 상흠(桑欽)이 쓴 '수경(水經)'과 허신(許愼)이 쓴 '설문해자(說文解字)'에 "패수는 낙랑과 루방현을 나와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강들은 모두 지금의 중국에서 찾아야 한다. 고대 한·중 국경이었던 패수가 발해의 서안에 있었음을 말한다.

다음은 기자와 위만의 성격과 활동지역, 한사군의 위치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기자(箕子)는 고대조선 서편 변방에 망명해 제후가 된 실존 인물이다. '사기' 권38 '송미자세가(宋微子世家)'는 무왕(武王)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으나 신하가 아니었다고 했다. '진서(晉書)' 권12 '지리지' 상(上)에는 "조선현은 주 무왕이 기자를 봉했던 땅을 말한다"고 기록돼 있고, '한서(漢書)' 권28 '지리지' 하(下)에는 "조선현은 주 무왕이 기자를 봉한 곳"이라는 내용이 있다. 주의 무왕이 기자를 봉한 조선현은 서한(西漢), 동한(東漢), 진(晉) 시대까지 난하 동쪽에 있던 낙랑군 소속 행정구역이었다.

'사기' 권115 '조선열전'을 보면 "조선왕 위만(衛滿)은 연(燕)나라 사람이다"고 기록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선은 고대조선이 아니라 위만국을 말한다. 위만은 고대조선과는 무관한 연나라 사람이다. 그런데 국사 교과서에서는 위만이 마치 고대조선을 계승해 부흥시켰고 그의 멸망이 곧 고대조선의 멸망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시정되어야 할 내용이다.

기자-위만-한사군 관계를 보면 위만은 고대조선의 제후(거수)였던 기자의 41대 손 준(準)왕을 물리치고 나라를 세웠으며, 한 무제는 이(위만국)를 멸망시키고 4군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기자국-위만국-한사군은 같은 지역에서 차례로 성립한 일련의 나라와 행정구역이었다. 그 실제 위치는 지금의 요서지역이었음을 위 사료들이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국사 교과서는 이들이 마치 평양에 있었던 것처럼 설명해 고대조선의 강역뿐 아니라 우리 문명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빚고 있다. 민족의 기원에 대한 인식과 민족의 이름마저 합의를 보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역사학계와 교육부서들은 격의 없는 논의를 통해 역사의 진실을 복원, 청소년들에게 근본 있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료와 고고학 연구 성과들이 우리의 활용을 기다리고 있다.



이도상
역사학자

필자는 1964년 육군 소위로 임관, 베트남전 참전 후 특전부대와 특공작전부대를 지휘하면서 부대원의 자아인식이 전투력 발휘의 기초임에 착안해 민족의 기원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위해 단국대에서 한국 고대사를 전공(석·박사과정)했다. 보병 제66사단장으로 전역 후 원광대 사학과 초빙교수를 역임했으며 지금도 한국 고대사 바로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 '한민족의 국위수준'(보문사, 1990), '민족사 재해석'(형설출판사, 1994), '일제의 역사침략 120년'(경인문화사, 2003), '고대조선 끝나지 않은 논쟁'(들메나무, 2015) 등이 있다.

'지식·정보' 내다본 앨빈 토플러…그가 말한 미래가 이젠 현재

미래쇼크·제3의 물결·권력이동…
미래 예측하고 사회변화 방향 제시
정치인·경영인 등 그의 저서서 영감

지난달 30일 미래 학자 앨빈 토플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줬다. 그는 '제3의 물결', '권력 이동', '부의 미래' 등 총 10권이 넘는 저서로 미래를 예측하며 사회의 변화 방향을 제시한 미래 학자였다. 그의 책을 통해 중국의 지도자, 미국 정치인, 기업 경영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영감을 얻었다.

토플러는 정치와 노동, 경제 등 사회에 꾸준한 관심을 이어오다 196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미래학 연구에 나섰다. 당시 미국과 선진국들을 문화적 격변기로 몰아넣은 사회적 원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토플러는 1970년 연구 결과를 담은 '미래 쇼크'를 출간했다. 이 책은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돼 수백만 권이 팔리면서 토플러에게 명성을 안겨줬다.

이후 토플러는 1980년 '제3의 물결'로 현대 정보사회를 설명하는 이론을 제안했다. 책은 20세기 후반과 21세기 다가오는 정보혁명, 정보사회를 예견해 유명해졌다. 전작 '미래 쇼크'에 이은 이 책에서 토플러는 제1의 물결인 농업혁명, 제2의 물결인 산업혁명에 이어 제3의 물결로 정보혁명을 설명했다. 또 미래 사회가 고도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을 예고했다.

토플러가 물결 이론에서 제시한 첫 번째 물결은 농업 혁명에 의한 수렵, 채집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문명의 시대가 도래하는 농경사회로의 변화다.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에 의한 농경사회에서 산업 사회로의 사회 변화다. 토플러는 "제2의 물결의 사회는 고도로 산업화돼 있으며 대량생산, 대량분배, 대량소비, 대량교육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것들은 표준화, 중앙화, 집중화, 동기화를 통해 이뤄지며 우리가 관료주의라 부르는 조직에 의해 운영된다"고 말했다. 제3의 물결은 195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산업 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그는 이 사회에서 탈 대량화, 다양화, 지식기반 생산과 변화와 가속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토플러는 제1의 물결인 농업혁명은 수천 년에 걸쳐 진행됐지만, 제2의 물결인 산업혁명은 300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제3의 물결인 정보화 혁명은 20~30년 이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별세한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앨빈 토플러가 쓴 서적들을 찾고 있다. 앨빈 토플러는 미래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디지털혁명, 정보통신혁명, 사회혁명, 기업혁명, 기술적 특이성에 관한 저작으로 유명하다. 뉴시스

1991년 출간된 '권력 이동'에서는 사회를 통제하는 힘이 물리적인 힘과 경제력에서 지식으로 진행되는 현상을 짚었다. 이 책은 폭력, 부, 지식을 권력의 세 가지 원천으로 설명하고, 폭력을 저품질 권력, 부를 중품질 권력, 지식을 고품질 권력으로 규정했다. 그는 21세기 전 세계적 권력투쟁에서의 핵심 문제는 지식의 장악이며, 이 지식이야말로 진정한 권력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식은 결코 소진되는 법이 없으며, 약자나 가난한 자도 소유할 수 있는 지식의 생산성으로 폭력과 부의 파괴적이고 편향적인 비민주성의 낭비와 횡포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토플러는 1995년 출간한 '전쟁 반전쟁'에서 자신의 물결 이론을 전쟁에 적용해 예측하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전쟁의 이면에는 물결의 충돌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1물결과 제2물결이 충돌한 전쟁으로 베트남전쟁을, 제2물결과 제3물결이 충돌한 전쟁으로 걸프전을 예로 들었다. 또 인류가 부를 창출하는 방식과 전쟁을 하는 방식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하며 전쟁은 부를 창출하는 새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의 미래'에서는 다가오는 제4의 물결을 예견하고 경제, 사회제도, 비즈니스부터 개인의 삶까지 미래 세계를 조명했다. 단순히 경제학 관점에서의 부가 아닌 문화와 문명이라는 커다란 구조 속에서의 부를 설명했다. 이 책에서 토플러는 혁명적 부 창출의 요인으로 시간, 공간, 지식을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속도론'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기업이 100마일의 속도로 변하고, 노조는 30마일, 정부는 25마일, 학교는 10마일, 정치조직은 3마일, 법은 1마일로 변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속도 차이가 경제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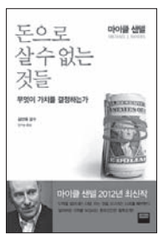
2009년에는 '불황을 넘어서'로 전 세계에 닥친 최악의 경제불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도박판이 된 세계경제를 분석하고 에너지 공급 부족 사태와 이로인한 공포심, 유효기간이 지난 경제 관념을 지적했다. 또 슈퍼 인플레이션, 일반적인 불황, 경제 위기에 관한 시나리오를 내놨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출판사 첫 베스트셀러

와이즈베리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처음'의 의미는 남다르다. 누구나 처음 달성한 일이 있듯, 다양한 베스트셀러를 배출하는 힘 있는 출판사들도 지금을 만든 첫 베스트셀러가 있다. 출판사에 기쁨과 감동을 안겨줬던 첫 베스트셀러를 이투데이가 찾아 재조명해 본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비롯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조지 레이코프 저), '문제는 무기력이다'(박경숙 저), '최고의 공부'(켄 베인 저) 등을 내놓은 와이즈베리의 첫 베스트셀러는 2012년 4월 출간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마이클 샌델 저)이다.



이 책은 2012년 대선을 앞둔 시점, 시장이 잠식해버린 민주주의와 다양한 가치에 대해

황금만능 풍조 판치는 세상
샌델 신자유주의 비판 공감

독자들이 책을 읽고 다양한 토론을 전개하길 기대하는 마음에 기획됐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국내에 돌풍을 일으킨 마이클 샌델의 후속작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담고 있다. 샌델은 1998년 옥스퍼드대학교에서의 강의부터 15년간 철저히 준비하고 고민해 이 책을 완성했다.

편집부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전 세계를 휩쓴 황금 만능주의로 인해 공공의 영역이나 윤리의 영역까지 시장 원리가 잠식하고, 불평등과 불법이 판치는 세상에서 냉소주의가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로 자리 잡은 이 시대, 신자유주의가 왜 실패한 체제인지를 체제의 문제가 아닌 가치의 문제로 접근한 샌델의 방식이 독자들에게 의미심장하게 와 닿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새로 나온 책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
로데베이크 페트람/조진서 옮김/이콘/2만원

역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로데베이크 페트람이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를 펴냈다. 저자는 17세기 암스테르담에서 일어난 무역과 주식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 연구를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책은 17세기 암스테르담, 세계 최초의 주식거래소가 있던 그곳으로 독자을 안내한다. 이 책에는 주식 거래의 역사와 파생상품, 선도거래, 옵션의 유래를 상세히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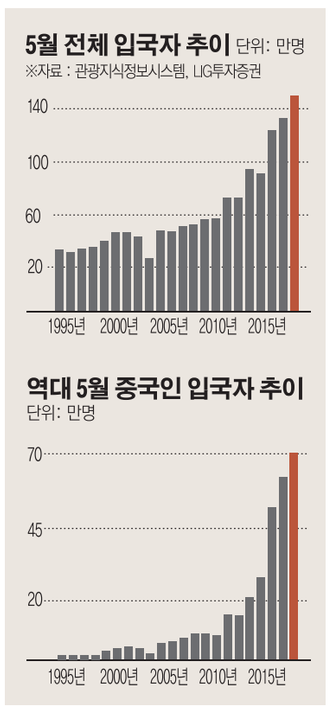
뉴스테이 시대,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
채상욱/헤리티지/1만3500원

현직 금융권의 주택부동산 애널리스트 채상욱이 '뉴스테이 시대,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을 출간했다. 저자는 "현실의 이면에서는 다양하고 풍성한 정보로 이익을 얻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 언제까지 정의로운 피해자로 살 텐가"라고 쓴소리를 남겼다. 이 책은 2015년 말 시행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즉 '뉴스테이법' 이후의 부동산 상황을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바닥다진 여행株 하반기에는 훨훨"

하나, 연초대비 30% 뚝
모두·참좋은레져·인터파크 20%이상 하락 최저 수준

최근 입국·출국자 급증세
파운드·유로화 약세 전망
유럽노선 수요회복 기대



상반기 내리막길을 걷던 여행업종이 다시 활기를 찾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여행주가 그간 바닥을 다졌다고 판단하며, 성수기와 맞물려 반등을 꾀할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149만 명을 기록해 역대 사상 최다 인원을 경신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1.9% 성장한 수치다.

특히 인바운드 핵심인 관광목적 중국인 입국자는 4월 68만 명 기록에 이어 5월 70만 명을 돌파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 증가했다.

내국인 순출국자 역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5월 순출국자는 유럽 테러와 일본 지진, 지카 바이러스 등 악재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한 153만 명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여행주는 글로벌 악재와 실적 부진 등 악조건 속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하나투어는 연초 대비 30% 이상 떨어졌으며, 모두투어와 참좋은레져, 인터파크도 20% 이상 내렸다.

증시 전문가들은 여행업종이 2분기를 저점으로 바닥을 다지고 하반기 본격적인 반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인해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6월부터는 메르스 기저효과로 뚜렷한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주요 지표들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에 따른 파운드화와 유로화의 약세는 침체한 유럽 노선 수요를 회복시킬 것으로 보인다. 장거리 노선 수요가 늘어나면 평균판매단가(ASP)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승은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브렉시트 여파로 엔고 현상이 계속된다면 일본 여행객은 감소하겠지만 유로화 약세 추세가 이어지면 유럽여행 성수기와 맞물려 유럽여행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업종 내에서도 눈여겨 볼 종목은 하나투어다. 하나투어는 지난달 다양한 프로모션 효과로 송출객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리는 외형 성장을 나타냈으며, 시장점유율(22.7%)도 2.4%p 확대했다. 유성만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엔화 급등으로 일본 노선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시점에서 하나투어의 일본 자회사들은 경쟁사 대비 방어우위를 가지고 있다"며 "여기에 서울시내 면세점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지라시' 한줄에 10조 들썩…"작전세력 가능성"

"이건희 회장 사망, 오후 3시…" 거래소 사실확인 공시요청에 삼성측은 곧바로 "사실무근"

코스피서 차지하는 비중 높은 전자·물산 등 그룹株 일제히↑ 새 '공매도 제도' 악용 노린듯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지라시' 한 줄에 삼성그룹 관련주는 물론 증시 전체가 일제히 들썩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최대주주 사망설의 확인을 요구하는 조회공시를 냈고, 삼성 측에서는 곧바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소동의 근원이 된 지라시를 누가 어떤 의도를 갖고 유포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시장에서는 공매도 공시제도 시행일에 맞춰 특정한 의도를 가진 주가조작 세력이 의도적으로 루머를 퍼뜨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30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관련된 계열사의 주가가 점심때를 전후로 일제히 이상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이날 정오께 카카오톡 등을 통해 퍼진 '지라시'를 주가상승 배경으로 주목했다. 지라시 내용은 "이건희 회장 사망, 오후 3시 엠바고, 청와대 보고"라는 단 한 줄이었다.

삼성전자의 지배구조와 관련성이 높은 종목의 주식은 즉각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날 오전 중 140만 원 아래에서 거래되던 삼성전자는 이날 144만5000원까지 치솟은 뒤 전날보다 2.08% 오른 142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그룹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도 곧바로 8%대의 상승률을 보였다가 4.68%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다. 삼성에스디에스(3.99%), 삼성생명(1.52%), 삼성화재(1.15%) 등 관련 종목도 함께 올랐다. 의결권이 없는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물산 우선주, 삼성화재 우선주도 오후 들어 각각 4.69%, 2.65%, 3.26%씩 상승했다.

삼성그룹 관련 종목이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코스피 지수 전체도 덩달아 들썩였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은 전날 대비 약 9조8631억 원(1.00%) 증가했다. 문제의 지라시 확산을 전후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 종목의 시가총액 증가분이 7조1831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해도 전체 시총의 0.73%가량이 한 줄 지라시에 들썩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날부터 공매도 대량 보유자 공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매도 대량 보유자의 숏커버링(매도포지션 청산) 물량을 고려해 일부 작전 세력이 사전에 관련주를 사들인 뒤 지라시를 유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이날 소동이 주가조작을 겨냥한 세력과 연관돼 있는지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증권사 ISA 성적표 공개…HMC투자 1·2위 석권

금투협, 130개 상품 수익률 공시
5.01% 최고…SK 0.1%로 꼴찌

증권사들의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익률이 출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수익률 1위는 HMC투자증권이 운용하는 상품이 차지했다. 반면 SK증권이 운용하는 상품은 가장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ISA 다모아 비교공시 시스템을 통해 일임형 ISA를 출시한 13개 증권사 130개 상품의 3개월(3월 14일~6월 14일) 누적수익률을 공시했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HMC투자증권 수익추구형 B2(신흥국, 대안투자형)'의 누적수익률이 5.01%에 달해 지난 3개월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HMC투자증권은 유망한 펀드의 선별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펀드에 분산투자를 실행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익률 2위를 기록한 상품 역시 HMC투자증권이 운영하는 상품이었다. HMC투자증권의 초고위험군 상품인 '고수익 추구형 A1(선진국형)'이 수익률 4.92%를 기록한 것.



회사명	MP유형	MP명칭	최근 3개월	설정이후 수익률
에이치엠씨투자증권	고위험	HMC투자증권 수익추구형 B2(신흥국, 대안투자형)	5.01	5.01
에이치엠씨투자증권	초고위험	HMC투자증권 고수익추구형 A1(선진국형)	4.92	4.92
메리츠종금증권	초고위험	메리츠 ISA 고수익지향형A	4.71	4.71
에이치엠씨투자증권	고위험	HMC투자증권 수익추구형 A2(선진국형)	4.58	4.58
메리츠종금증권	초고위험	메리츠 ISA 고수익지향형B	4.32	4.32
NH투자증권	초고위험	NH투자증권 QV 공격A	4.16	4.16
메리츠종금증권	고위험	메리츠 ISA 성장지향형B	3.67	3.67
NH투자증권	초고위험	NH투자증권 QV 공격P	3.41	3.41
NH투자증권	고위험	NH투자증권 QV 적극A	3.06	3.06
메리츠종금증권	고위험	메리츠 ISA 성장지향형A	3.05	3.05

이에 대해 권지홍 HMC투자증권 상품전략팀 이사는 "1분기 시장 상황과 절세효과에 초점을 맞춰 국내 자산보다는 해외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점이 수익률 차별화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적절한 리밸런싱을 통해 수익률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3위는 메리츠종금증권이 내놓은 '메리츠 ISA 고수익지향형A'가 차지했다. 이 상품의 수익률은 4.71%였다.

'HMC투자증권 고수익 추구형 A2(선진국형(4.58%)', '메리츠종금증권 ISA 고수익지향형B(4.32%)', 'NH투자증권 QV 공격A(4.16%)' 등도 4%를 웃도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SK증권의 'ISA적극투자형 A'는 고위험군 상품임에도 0.1%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나타냈다. SK증권의 상품들은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부진했다. 'SK-ISA 공격형 A'가 0.23% 수익률을 기록하며 하위 수익률 2위를 기록했다.

문선영 기자 moon@

'흄·샤틴' 등 의류브랜드 보유 YK038, M&A시장 매물로 매각 주관사에 삼일회계법인

유명 여성 의류 브랜드인 '샤틴(SATIN)'과 '흄(HUM)'을 보유한 YKO38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등장한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YKO38의 회생전 인수합병(M&A)을 결정하고 매각 주관사에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주관사가 선정된 만큼, 법원은 7월 중으로 구체적인 매각 스케줄 등을 반영한 공개경쟁입찰 매각 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

1997년 설립된 YK038은 주로 20대에서 40대를 타깃으로 한 여성복을 만들며 유명세를 탔다.

캐주얼 의류 '흄'과 여성복 '샤틴' 등이 대표 브랜드로 꼽힌다. 특히 2000년에 '샤틴'을 론칭해 여성복 시장에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했다. 샤틴은 고가에도 고품격 디자인을 앞세워 여성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이처럼 승승장구해 온 YK038은 근래 유니클로, 자라 등 제조·직매형 의류(SPA) 업체 공세로 시장 경쟁이 격화하면서 실적 악화 등 재무적 위기로 지난해 4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대한민국 독서혁명-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를 통한 기적의 성공 스토리

대한민국 독서혁명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



강규형 지음 I 272쪽
다연 I 값 14,000원

인생이 풀리지 않는 당신, 새벽 6시에 무엇을 하는가?
여기 새벽 6시 40분에 '책 읽기'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있다면?
수다독서로 힐링하고 인생까지 뒤집은 사람들의 살아 있는 이야기!

고단한 현실 속에서 더할 수 없는 역경에 빠진 인물들이 '나비'를 통해 희망을 되찾고 꿈을 키워 마침내 성공에 이른다! 《대한민국 독서혁명》은 이러한 과정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떼독서'의 위력과 더불어 꿈을 현실화하는 인생 반전의 리얼 스토리, 즉 자영업자·대학생·직장인·가족·군인·전업주부의 성장 사례 여섯 가지를 진솔한 이야기로 풀어냈다. 그 외 책 말미에 별도의 팁 페이지를 할애하여 '독서포럼나비' 및 독서·토론 관련 핵심 정보를 담았다.

문의 : 070-8700-8767

신가치투자로 돈 번 사람들을 확인하시려면 〈 www.segerotv.com 〉 스마트폰 청취가능!

"주식 투자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세계로TV의 신가치투자로 돈 번 사람들



김원기 지음 I 248쪽
글로벌북스 I 값 14,000원

34개월만에 14억 8천만원 벌다 – 필명: 금융강국
수익금으로 집을 사다 – 필명: 집사자

◉ 2016년 고객만족 경영대상 수상! – 한국경제 선정!
◉ 서적 구매 독자를 위한 ₩65,000 〈세계로 TV〉 1일 무료 이용권
◉ 무료 저자 전국 순회 강연회

강의 : 김원기 대표
주제 : 바이오 & 대선주에 투자하라!
일시 : 부산 – 5월 7일(토) 오후 2:00·벡스코 컨벤션홀
서울 – 5월 14일(토) 오후 12:00·한국사회복지회관
울산 – 5월 22일(일) 오후 12:00·롯데호텔
대전 – 5월 29일(일) 오후 2:00·인터시티호텔

※ 선착순 입장 / 전화예약안됨

문의 : 02-336-2226

드디어! 주식의 황제 김원기 대표를 부산, 서울, 울산, 대전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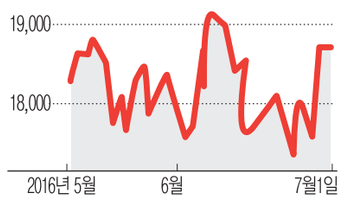
◉ 출판사 참여문의 ☎ 070-4333-0098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쌍용양회 최대주주, 2대주주 보유지분 전부 샀다



쌍용양회 주가 추이
(단위: 원)



한앤컴퍼니, 日태평양시멘트 32.36% 4548억에 매입
총 46.80%→79.20% 확대로 경영권 분쟁 우려 해소
기존 4000억 규모 유증 예정대로 진행…일정만 연기

쌍용양회의 기존 최대주주인 한앤컴퍼니가 2대 주주인 일본 태평양시멘트 잔여지분을 인수하며 경영권 분쟁 우려를 덜었다. 지난 4월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 4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일정을 미뤄 예정대로 추진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쌍용양회공업의 최대주주인 한앤코 10호 유한회사는 2대주주인 태평양시멘트와 TCC 홀딩스(Holdings)가 보유한 주식 전량(보통주 2082만8960주, 의결권 있는 우선주 516만50주) 2598만9101주(지분율 32.36%)를 4548억800만 원(주당 1만7500원) 규모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양회에 대한 한앤코 10호 유한회사의 지분율은 기존 46.80%에서 79.20%(6357만1122주)로 증가한다.

한앤코 10호 유한회사는 지난 4월 15일 쌍용양회 주식매각협의회(산업은행,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 한앤코시멘트홀딩스)로부터 3705만1792주를 주당 2만3850원에 장외매수했고, 한앤코시멘트홀딩스로부터 53만320주를 주당 1만9450원에 장내매수했다. 인수자금은 총 8950억1700만 원으로, 쌍용양회 주식 3758만2112주(지분율 46.80%)를 취득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인수자금은 자기자본 5001억1700만 원, 하나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3939억 원을 차입해 조달했다.

당시 2대주주인 태평양시멘트는 출자 주식매각협의를 대상으로 우선매수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을 벌였지만, 이번 거래로 경영권 분쟁 우려는 해소됐다는 평가다.

애초 진행 중이던 4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지난달 30일 쌍용양회는 유상증자결정 정정보고서를 통해 최대주주와 2대주주간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에 따라 구주주 청약일정 등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앤코 10호 유한회사는 쌍용양회 최대주주에 오른 지 2주 만인 4월 29일 40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차입금 상환과 최대주주 지위 강화용 증자였다.

당초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일은 지난달 30일, 납입일과 신주 상장예정일은 각각 오는 8일과 21일이었으나 이번 거래로 청약일 등 일정이 연기됐다.

쌍용양회는 조달자금 4000억 원 중 1500억 원은 동해공장 폐열발전 설치공사 등 시설자금, 2490억 원은 차입금 상환 등 운영자금으로 쓸 예정이다.

쌍용양회는 지난 2014년 이후 차입금 상환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상증자 단행으로 재무안전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쌍용양회의 총차입금은 지난 2013년 말 1조511억 원에서 2016년 3월 말 7446억 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137.0%에서 99.5%로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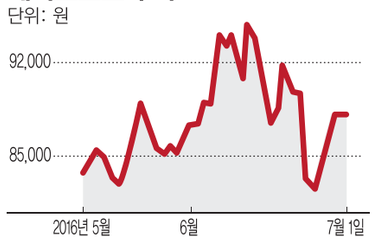
나이스신용평가 한형대 선임연구원은 "4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어 단기적으로 재무안정성 지표의 개선이 예상되고, 우수한 영업수익성과 운전자금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면 중기적으로도 재무안정성 제고가 가능할 전망"이라며 "다만 지분 인수와 유상증자에 따른 최대주주의 자금부담이 배당정책 변경 등을 통해 회사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미정 기자 mjk@

메디포스트 '폐질환 치료제' 美임상 경과 관찰후 FDA 희귀의약품 신청

'뉴모스템' 저체중 신생아 투여
줄기세포 이용 기관지폐이 예방

메디포스트 주가
단위: 원



메디포스트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원순·장윤실 교수팀과 공동 개발한 미숙아 폐질환 치료제 '뉴모스템(Pneumostem)'의 미국 임상 1, 2상 피험자 투여를 완료했다.

메디포스트는 지난달 15일 시카고 러시(Rush)대학교병원에서 저체중 신생아를 대상으로 '뉴모스템'의 마지막 임상 투여를 했으며, 약 2주간의 초기 관찰기간에 환자에게서 약물유해반응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메디포스트는 지난해 3월부터 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해 왔으며, 계획보다 약 3개월 앞당겨 피험자 투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메디포스트는 '뉴모스템'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앞으로 약 3개월간 피험자들의 경과를 관찰하고, 이후 장기적 데이터 분석 등을 거쳐 결과를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제출할 계획이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뉴모스템'은 이미 FD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는 등 현지 의료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며, "이번 임상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뉴모스템'은 현재 국내에서는 제2상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을 앞두고 있다.

'뉴모스템'은 미숙아 사망의 주요 원인인 기관지폐이형성증 예방 치료제로, 제대혈 유래 간엽줄기세포를 원료로 하고 있다.

한편, '뉴모스템'은 2012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줄기세포 재생 의료 실용화 컨소시엄' 연구 과제로 선정돼 국내 및 해외 임상시험 비용 등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다.

성시종 기자 ssj@

'사후면세' 엘아이에스, 홍콩 호텔과 손잡는다

액티스그룹과 포괄적 업무협약
관광상품·전자결제 등 체인구축

국내 대표 사후면세 전문 기업 엘아이에스가 홍콩 사모펀드와 손잡고 아시아 관광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엘아이에스는 홍콩 대표 사모펀드인 액티스그룹(AKTIS Group, 대표 대니 옹 리)과 글로벌 사후면세점 체인망 구축에 대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액티스그룹이 보유한 호텔 체인망과 사후면세점 연계를 통한 관광 상품 개발, 전자결제 시스템 인프라 구축 등을 핵심으로 아시아 관광업 가치사슬 확장에 함께 나서기로 협의했다.

이로써 엘아이에스는 액티스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네트워크, 디지털금융 인프라와 호텔 체인망에 자사의 사후면세점 및 여행상품을 접목해 국내는 물론 아시아 전역에 이르는 관광 체인 구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액티스그룹은 지난 3월 현대증권 매각 입찰 시 KB금융지주 및 한국금융과 경합한 바 있는 홍콩계 사모펀드다. 중국 소재 글렌뷰 호텔체인과 비은행금융업 6개사(단자·리스·보증보험·자산운용) 등 한화 약 3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이다. 최근에도 액티스그룹의 국내 자회사가 감정가 2600억 원 상당의 의정부 소재 아일랜드캐슬을 경매로 낙찰받아 세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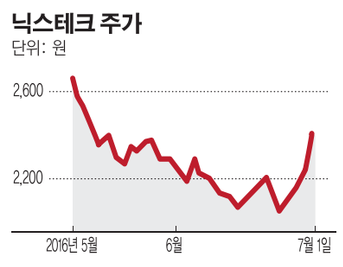
엘아이에스는 올해 상반기 목표로 했던 국내 8곳의 사후면세 매장 개장을 완료하고 대표 사후면세 전문 기업으로서 사업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유여행객의 방문에 대비해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JSM 백화점과 같은 복합 쇼핑몰을 전국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취급 품목 또한 의류, 식품, 명품 아웃렛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식품 체험형 매장은 물론이고 약초 박물관, 메디컬 스킨케어, 한류공연 등 관광형 매장도 추가로 열어 단순한 판매를 넘은 관광 문화 창출을 위해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장원 엘아이에스 대표는 "새로운 주력 사업인 호텔 마스터리스 사업과 토탈 여행 서비스 제공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액티스그룹과의 시너지를 발생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닉스테크 주가
단위: 원



닉스테크 '망분리·보안 USB' 공공기관·금융권 잇단 수주

닉스테크는 공공기관과 금융권에서 망분리 사업과 보안 USB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 측이 망분리 사업을 수주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등이다. 또 KB 생명, 신한금융투자증권 등에서는 보안 USB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망분리는 여러 침해 사고를 겪으면서 공격들에 대비할 대안으로 기업과 기관에서 내부망과 외부망(또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구분하는 네트워크 구성을 말한다.

해당 사업에서 판매된 닉스테크의 주요 솔루션으로는 DLP(데이터 유출방지) 솔루션인 '세이프 피시 엔터프라이즈(SafePC Enterprise)'와 보안 USB '세이프 유에스비플러스(SafeUSB+)'다.

세이프 피시 엔터프라이즈는 PC 내 주요 정보를 검출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기업의 중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솔루션이다. 세이프 유에스비플러스는 보안 USB와 일반 저장 매체를 등록해 매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해당 제품을 통해 망간의 자료 이동을 관리 △사용자의 악의적인 정보 유출 차단 △ 보조 기억 매체를 통한 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다.

박동훈 닉스테크 대표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는 데 힘쓰고 있으며, 최근 출시한 이상징후탐지 솔루션 '세이프몬(SafeMON)'과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 '세이프 프로세스(SafePROCESS)'도 많은 고객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닉스테크는 업무 환경 개선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1일 본점을 서울숲 지식산업센터 포휴로 이전한다.

송영록 기자 syr@

이에스브이 '레이싱 드론' 美하늘에 띄운다

신제품 '플라이드림 에프쓰리'
내년 6월까지 매달 1000대 수출
카본소재·HD카메라 등 고사양

이에스브이가 국내 업계 최초로 미국 시장에 레이싱 드론을 수출한다.

이에스브이는 30일 해외 유통업체와 신제품 레이싱 드론 '플라이드림 에프쓰리(FlyDream F3)'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이에스브이는 오는 2017년 6월까지 매월 1000대의 레이싱 드론을 납품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올해 1분기에 개발을 마친 레이싱 드론이 애초 목표했던 2분기에 첫 수주 계약을 체결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며 "진출 초기라 매월 1000대 납품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시장 반응에 따라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스브이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플라이드림 에프쓰리는 보디 전체가 카본 소재로 돼 있어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다. 또 HD카메라를 탑재해 1인칭 영상 전송이 가능하고, 2㎞에 달하는 비행거리와 시속 110㎞ 이상의 속력 등 레이싱에 최적화된 고사양 드론이다.

제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이에스브이는 해외 마케팅을 더욱 강화, 미국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와 다른 브랜드(TAIGA)로 론칭하며 현지 유통업체와 함께 브랜드 페이지도 구축했다.

향후 레이싱 드론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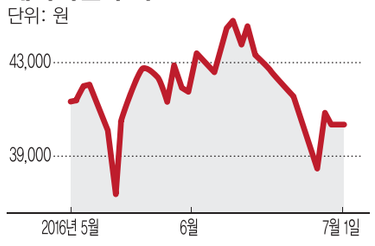
오세준 이에스브이 대표는 "국내 업체로는 최초로 미국 시장에 드론을 출시하는 만큼,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좋게 형성될 수 있도록 고품질의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길을 잘 닦겠다"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에이티젠 건강검진용 'NK뷰키트' 차움 건진센터 삼성분원서 서비스

작년 청담본원 이어 2번째
"인근 직장인 고객 수요기대"

에이티젠 주가
단위: 원



에이티젠이 차병원그룹의 차움 건강검진센터와 손잡고 NK뷰키트 검사 서비스를 개시한다.

에이티젠은 차움 건진센터 삼성분원에서 자사의 NK뷰키트 검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차움 청담본원의 면역증강센터에 NK뷰키트를 공급한 데 이어 차병원그룹에 대한 두 번째 영업성과다.

삼성동 테헤란벨리에 있는 차움 건진센터 삼성분원은 30~40대 청·장년층 직장인 고객이 많아 NK 뷰키트 검사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20여 년의 건강검진 역사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한 차병원을 모태로 한 차움 건진센터는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며 "향후 큰 폭의 검사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미 차움 청담본원의 면역증강센터에서는 면역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NK세포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맞춤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에이티젠의 NK뷰키트 검사를 시행하고 있었다. 센터장인 조성훈 박사는 NK세포치료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면역학 대가로 차움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 청담NK클리닉을 운영하면서부터 NK뷰키트를 치료에 적극 활용해 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에이티젠 관계자는 "건강검진용으로 NK뷰키트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대형 의료기관과 제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사우디 왕자, 썬텍 120억 유증참여

썬테크놀로지스(썬텍)는 30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칼리드 빈 알 왈리드 왕자가 미화 1000만 달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3월 22일 공시된 1000만 달러(한화 약 12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서 배정대상자로 선정된 중국 사이버넷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첸핑 회장에서 칼리드 왕자로 대상자가 변경된 것이다.

칼리드 왕자는 중동의 최대 부호이자 미국 시티그룹의 최대주주인 사우디 알 왈리드의 외아들이며, KBW 인베스트먼츠(Investments)의 회장이다. KBW 인베스트먼츠는 두바이, 사우디 리야드, 카타르, 루마니아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총 운영자산 규모는 약 37억 달러(한화 약 4조 원)로 알려졌다.

아울러 썬코어는 라마단 이후 썬텍 그리고 중국의 국영 및 민간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제다 프로젝트 개발 참여 회사들과 함께 사우디 리야드와 제다를 방문해 본격적인 제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썬코어는 중국 사이버넷 인베스트먼트 그룹은 국내에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성시종 기자 ssj@

한화건설 꿈에그린

여수가 기다려온 프리미엄 新 도시

여수 웅천 꿈에그린

여수 웅천의 완벽한 입지에,
한화 꿈에그린의 완성도 높은 설계까지 -
여수가 기다렸던 주거명작이 탄생합니다

여수가 기다려온 프리미엄 新 도시 여수 웅천 꿈에그린

Brand의 프리미엄 대단지에 더욱 강한 프리미엄 브랜드 꿈에그린
Vision의 프리미엄 마리나항 개발사업, 해양복합레저휴양시설 등 웅천지구의 미래가치
View의 프리미엄 하늘과 맞닿은 29층의 초특급 바다 조망
Life의 프리미엄 바다 앞에서 교통, 교육, 문화 등 모든 것을 누리는 원스탑 주거복합단지

총 1,969가구

아파트 75㎡ 487세대 / 84㎡ 855세대 / 100㎡ 384세대 / 110㎡ 52세대 / 130㎡ 2세대 / 134㎡ 1세대 오피스텔 28~65㎡ 38실 / 84㎡ 150실

시행사 아시아신탁 시공사 한화건설

본 홍보물에서 사용된 사진, 이미지, 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모델하우스와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6일
1순위 청약접수!

분양문의 1522.4800



현장 여수 웅천 택지개발지구 관광휴양상업 3단지 C4-2~3블록
모델하우스 여수 웅천 택지개발지구 C5-2블록